

岳友

2004년 제 14집



全南大學校山岳會

지도교수 인사말

산록의 무등산을 바라보며 48기 신입생을 맞이하게 된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산악회가 산을 오른 지 어언 50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한 해를 거듭 할수록 전통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를 항상 실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대학 산악부가 오랜 관습에 얽매어 변화하는 산악활동에 대처하지 못하고 회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위기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만은 전국 어느 대학 산악부보다 활성화 되어 있으며 또한 산악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50년 전통의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학구적이며 진취적인 알피니즘 구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열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OB선배님들의 지극한 재학생 사랑과 우리 OB선배님 중에서 광주, 전남의 거점 대학이자 명문대학교인 우리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취임하신 강정채 선배님의 격려가 우리 산악부를 고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열의에 편승하여 2006년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열과 훈련을 바탕으로 통해서 꾸준한 자기 연마로 대학 산악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으로 얼룩진 이 한권의 책으로 펴낸 재학생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작년에 이어 14번째 악우지를 발간하게 된 것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이 보고서가 올 한해의 결실이 되고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 합니다.

2004년 12월

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이계윤

발 간 사



계절의 바람은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을 알리듯 저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작년 동계의 추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1학년 멧모르고 대학에 들어온 후 3년 동안 제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산악회에 들어온 후, 이젠 산을 빼 놓고 지금의 저를 이야기 한다면 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두 다리가 있어 산을 오를 수 있고, 맑은 두 눈과 귀가 있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악인들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올 초 동계를 시작으로 1년 동안 산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산행과 경험, 생각들을 이 책 한 권에 담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악회의 활동과 바람과 근심이 이 책 속에 담겨 과거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나은 산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 여러 OB선배님, 지도교수님, 재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4년 12월

전남대학교 산악회장 46기 김가영

CONTENTS

•지도교수 인사말(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이계윤)	003
•발간사(전남대학교 산악회장 46기 김가영)	004

PART I

- 등반보고서

冬 겨울 이야기

•동계장기등반 / 47기 정효준	009
•동계장기등반 / 47기 임성근	011

春 봄 이야기

•선운산 할매바위 / 48기 조아현	017
•선운산 할매바위 / 48기 이재국	018
•신입생 환영등반 / 47기 정효준	019
•신입생 환영등반 / 47기 임성근	020
•호남정맥 종주 / 47기 정효준	021
•호남정맥 종주 / 47기 이선진	023
•월출산 정기산행 / 47기 정효준	025
•월출산 정기산행 / 48기 이광승	027
•월출산 정기산행 / 48기 조아현	029
•춘계훈련등반 / 47기 정효준	031
•춘계훈련등반 / 48기 조아현	033
•춘계훈련등반 / 48기 이광승	035
•춘계훈련등반 / 48기 이재국	039

夏 여름 이야기

•하계장기등반 / 48기 정선영	043
•하계장기등반 / 48기 이재국	050

秋 가을 이야기

•새인봉 개강등반 / 48기 정선영	060
•새인봉 개강등반 / 48기 이재국	062
•전남북대합동등반 / 48기 정선영	064
•추계훈련등반 / 48기 이재국	067

PART II

산행기

•쇠나드리를 다녀와서 / 38기 한창균	072
•가을의천관산은눈발이었다/ 20기 김희영	074
•중국 황산을 다녀와서 / 13기 양형렬	077
•제암산 산행기 / 지도교수 이계윤	088

기타 보고서

•제 26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암벽반 강사 후기 / 46기 김가영	083
•청소년오지탐사대 파미르 보고서 / 42기 김재우	087

기획

•변하자고 했으면 변해보자/ 34기 최지환	102
•/오장민	106
•전남 명산 소개 / 지도교수 이계윤	108

문예

•김C의 음악 살롱에는 / 48기 정선영	116
•추계 / 48기 정선영	117
•무제 / 35기 김정국	118

•편집 후기	120
--------	-----



PART I

등반보고서



01 겨울

02 봄

03 여름

04 가을



PART I

冬

겨울

- 동계장기등반 47기 정효준
- 동계장기등반 47기 임성근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계장기등반

■ 47기 정효준

2004년 1월 11일 일요일

8:00 동방출발 | 15:00 설악산 도착 | 20:00 저녁식사 | 24:20 취침

아침 8시부터 영필형의 차를 타고 7시간정도 도로를 달렸다. 오후 3시경 드디어 설악산에 도착. C지구에 가기 전 시내에서 식량을 샀다. 지순누나가 꼼꼼하게 많이 고르신다. 아마도 오늘식사는 엄청 푸짐 할 것이다. C지구에 도착해서 먼저 텐트를 치고 짐 정리를 했다. 우리는 성근이 일행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모두들 씻었나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다. 잠시 인사를 나누고 저녁식사 준비를 했다. 모두 모여 식사를 마친 후 내일 있을 산행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내일 산행을 준비했다.

2004년 1월 12일 월요일

8:45 비선대 도착 | 9:00 비선대 출발 | 10:40 형제폭포 도착

16:30 하산 | 20:10 c 지구 도착 | 21:30 저녁식사 | 23:30 취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했는데도 늦어 버렸다. 빠진 것도 있고 토막골 찾다 길을 헤매었다. 방학동안 푹 쉬다 산행을 해서 그런지 체력이 금새 바닥나버렸다. 빙벽장비를 착용하고 간단한 빙벽등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바로 실전. 빙폭을 오르며 처음으로 느낀점은 '재밌다' 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시 체력이 문제다. 정상을 몇 미터 앞에 두고 하강을 했다. 하강 또한 장갑을 낀 채로 하니 힘이 더 들었다. 하산하는 내내 뒤통자였다. 겨우 비선대에 도착. 그 곳에서 간단히 배를 채우고 산을 내려왔다. 피곤하다. 내일 산행을 위해...

2004년 1월 13일 화요일

7:15 출발 | 23:40 취침

언제나처럼 빙폭을 하기 위해 폭포를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안 그래도 가파른 길이 더욱 더 위험하다. 오늘은 두줄기폭을 한다. 어제의 경험 덕일까 오늘은 슬립도 별로 하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갔다. 물론 하강 할 때는 힘이 빠

져 좀 위험하게 내려왔다. 그렇지만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즐거움은 하산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조금씩 빙폭이 재밌어 진다.

2004년 1월 14일 수요일

5:00 기상 | 7:00 출발 | 7:30 인공폭포 등반 | 17:30 하산 | 19:00 식사

1:30 취침

오늘은 모든 일이 순조롭다. 출발시간도 잘 맞추고 그리 피곤하지도 않다. 오늘은 설악산으로 가지 않고 매바위 인공폭포를 올랐다. 높이도 상당하고 오버진 곳도 많고 경사가 낮은 쉬운 곳 등등 여러 코스가 있다. 이 곳엔 우리뿐만 아니라 코오롱 등산학교 강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원정대 형들도 있었다. 원정대 형들의 실력도 대단하고 코오롱 등산학교 강사들도 등반실력이 뛰어났다. 이들의 등반을 보니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느꼈다. 이 날은 처음으로 선등도 서보고 스크류도 박아서 확보물 설치도 해보았다. 스크류 참 잘 박힌다. 다시 한번 장비의 소중함을 느낀다. 오늘 산행은 선등도 서보고 우리나라의 뛰어난 등반가들의 등반실력도 보는 등 가장 즐거운 날이다. 돌아오는 길에 영필형이 대포항에서 밤 바다도 보여주고 그 곳에서 조개구이와 즉석회를 사주셨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산행후의 식사의 맛은 말로 표현이 어렵다. 야영장에 도착한 후 생각해 본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동계장기등반

■ 47기 임성근

1월 5일

어제 연맹에서 출발해서 C지구에서 짐을 풀고 아침에 출발해서 9시에 비선대에 도착했다. 내가 속한 조는 정규형이랑 운재형이랑 정아랑 대웅이랑 대희랑 재우형이랑 대현이형이랑 나왔다. 음~~ 조는 좀 잘짜진거 같다. 대웅이는 포터니까...
ㅋㅋ



9시 41분에 비선대에서 출발해서 죽음의 계곡으로 올라간다. 오랜만에 지는 짐이라 힘들었다. 다들 그런가 부다. 1시

좀 못되어 양폭산장에 도착했다. 거기서 밥을 먹고 2시 쯤에 출발했다. 음~~ 넘 힘들군... 우리 조에 남자 몇 명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3시가 좀 넘어서 죽음의 계곡 초입에 도착했다. 여기서 좀 쉬었다. 음 힘들어

4시에 죽음의 계곡에 도착했다. 음 별거 없군. 폭포 2개가 있었다. 여기서 비박을 했다. 물이 없어서 얼음 깨가지고 물을 얻었다. 내가 썩 매고 얼음 가지러 갔다. 생각보다 얼음 무겁다. 얼음을 지고 언덕을 올라오니 조원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썩^^ 먼저 먹을려면 빠질라 그랬는데... ㅋ

휴~~ 내일도 힘들 것 같다.

1월 6일

좀 잔거 같은데 일어났다. 아직도 캄캄하다. 폐인 생활 너무 오래 해서 일어나가도 쉽지 않다.

밥을 먹고 8시 30분부터 아침 교육을 받았다. 프랑스식 등반기술... 피켈로 빙벽을 오르는거다. 피올레 라마세를 연습했다. 손 시렵다. 내가 이런걸 싫어하건만...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다. 종천이형이 빌려준 가죽화가 좋은 것 같다. 대웅이는 발 시렵다 하는데 난 괜찮았다. 역시 장비는 좋은 것 써야 하는가 부다. 동계반 들어와서

새로운 산행도 배운다. 우리 학교 선배들이 강사다. TT 눈치 보인다. 4시 30분에 양쪽산장으로 내려왔다. 원래 여기서 이틀 비박해야 하는데... 어케 된지 모르겠다. 빨리 내려가니까 좋지만 또 짐싸야 된다. 흠~ 귀찮아...

내려오니까 산장에서 등산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묵을 사주셨다. 아~~ 감동 우리 조는 2 코펠을 다 비우며 철수 했다.

산장에서 잤다. 오~~ 편한그... 오늘은 먼지 몰라도 분주한 하루였다.

1월 7일

5시 기상...등산학교는 언제나 분주하다.

왜 여유있게 할 수는 없는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난이도란다. 빨리 잠밤이 되어 할건데. 죽음의 계곡으로 올라가 건폭을 했다. 이름이 왜 건폭인지는 알수 없다. 가족화가 좀 커서 발 뒷꿈치랑 발가락이 아프다. 그래도 참아야지 뭐. X자 바디랑 N자 바디를 배웠다. 강사님들은 역시 잘한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내 차례여서 피할 수도 없다. 몸은 아프지도 않다. 지금 코피라도 난다면 열외일텐데... 보기와는 다르게 무섭다. 발가락 아파 죽겠는데 빙벽을 차야 한다. 바일로 살라고 빙벽을 마구 마구 찍어댔다. 미튼에 물 들어 온다. 이런 TT 걸에는 고어텍스라고 써져 있는데 물이 막 들어온다. 빨리 올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힘껏 찍어 댔다. 안심이 되긴 한디 안빠진다. 아~ 속상해TT

내려와서 밥을 먹었다. 행동식으로... 밥 안해서 편하긴 한데 좀 부실하다. 어제 화성이 들어와서 참 좋다. 아침에 밥도 같이하고... 화성이라는 별로 말을 안해봤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겠다.

4시 반쯤에 철수 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부다. 근데 저녁에 술을 안먹으니까 좀 이상하다.

1월 8일

또 5시 기상. 대현이형은 피곤하지도 않나... 기상! 기상! 정말 듣기 싫은 목소리다. 나랑 대응이랑 화성이는 재빠르게 밥하러 나간다. 떡국이다. 맨날 아침은 떡국이다. 설 기분 나고 좋지 않냐고 생각한다면 한번 먹어보길 바란다. 밥 먹고 싶다. -- 8시 30분에 산장 앞에서 모여서 출발했다. 화성이가 어제 불침번 썼는데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언제가는 서야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늦게 서고 싶다.

다시 건폭으로 직행~ 여기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스크류 박는거랑 이름은 생각 안나지만 얼음에 구멍 뚫어서 슬링 넣는 것... 장민이형은 참 아는 것도 많다.

건폭에 오라서 밑을 보니까 동기들이 열심히 빼올레 라마세랑 빼올레 랍베랑 열심히 아이젠 팡팡을 하고 있다. 크 귀엽군... 우리 조는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딱딱따닥 붙어서 대응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내가 건폭 올라가는 걸 반기지 않았지만 올라와보니 음~ 잘 올라 온거 같다. 다 한번씩 오르고 다시 한번 오를 사람은 지원하라고 했다. 난 절대 강사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았다. 좀 치

사해 보이지만 막상 붙고 나면 발 시렵고 손 시렵다. 내가 좀 추운걸 싫어하지 않는
가. 대응이가 또 올라갔다. 음 참 편찬은 놈이다. 3시에 오늘은 철수 했다. 양쪽산장
에서 비선대까지 내려가야 하니까...

점점 몸이 적응해 가는것 같다. 다행이다.

1월 9일

6시 40분에 출발했다. 출발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뛰어 다녔던가...

좀 여유있게 하면 안되나... 이론교육 받고 싶다. 좀 자게... 잠골을 도착해서 50미
푼을 했다. 길이가 50미터라 50미푼 인가 부다. 조가 나뉘졌다. 그래서 대희항 운재
형이랑 나랑 같은 조가 됐다. 다른 조는 토막골을 갔다. 살아돌아와라... ㅋ

옛날에 한것보다 난이도 있다. 음 힘들어라... 모르는 형들하고 이야기 하니까 좋았
다. 3시에 하산했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빨리 하산한다. 여름이면 한 5시에나 하
산하는데. 여전히 춥다. 근데 물은 찬물이 먹고 싶다. 얼음도 좇어 먹고 그런다. 머리
가 가려워 죽겠다. 좀 씻었으면 좋겠다.

5시 반에 비선대 도착했다. 토막골 간 애들이 거기는 좀 복잡했다 그랬다. 다른 나
라에서 온 사람들이 빙폭을 하고 있다고 그랬다. 음 신기했겠다. 토막골 갈걸... 썸
우리 조는 다른 조보다 분위기도 좋은 것 같다. 화성이가 있어서 밥 많이 해도 밥이
안남는다. 고마울 뿐이다. ㅋ

1월 10일

6시에 기상했다. 웃기는건 오늘 비상해야 하는데 불침번이 대현이형을 깨웠지만 대
현이형이 안일어 나서서 비상훈련을 안했다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괜히 술 줄때부터
알아 봤어야 하는 건디... 술먹고 편히 잘줄 알았는데 간밤에 깨우면 얼마나 어이 없
을까...— 10시반에 수료식을 했다. 대응이가 최우수상. 상금 8만원... 저번에 여름
암벽반때도 상타더니 또 탄다. 난 상은 부럽지 않았지만 상금이 부러웠다. 동계비 8
만원 안냈는다. 내심 상금을 타서 동계비를 내고 싶은 맘이 있었지만 이렇게 되어버
렸다. 헐~~ 이럴지 알았으면 좀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수료식을 다하고 나니 하나둘 철수 했다. 하지만 난 자체를 해야 했기 때문
에 C지구 짐 정리를 했다. 인영이가 가면서 불쌍한 듯 쳐다본다. 잘가~ 라고 말했지
만 속맘은 씩는다.

나도 같이 나가고 싶오~~ -O-

6시에 속초 시내에서 장도 보고 목욕탕도 다녀왔다. 진짜 좋다. 일주일 만에 침 씻어
봤다.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효준이가 지순이 누나랑 들어왔다는 거다. 옹 눈물
난다. 정말 고맙다.

1월 11일

오늘은 예비일이다. 장비도 점검하고 그랬다.

휴~~ 어케 또 일주일을 빼대나... 벌써 등산학교 때가 그림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저녁을 먹고 술을 먹었다. 웬지 이게 정상인 듯 싶다. ㅎㅎ

1월 12일

C지구에서 버스타고 내려서 걸어서 비선대에 도착하니 8시 40분이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9시에 출발했다. 그리고 10시 40분에 형제폭 도착. 여기를 내가 등산학교 때 했던가. 만성 잠 부족에 시달려서인지 등산학교 때가 아련히 떠오를뿐 선명히는 생각나지 않는다. C지구에는 다른 대학 동기들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었다. 그래도 가들은 조인해서 잤있게 하는거 같다. 선배들이 잘해준다고 하지만 나도 조인해서 잤있게 하고 싶다. 효준이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여전히 미트에 물이 들어온다. 으~ 손시러... 암벽이 더 좋다. 빙벽은 당최 재밌는지를 모르겠다.

4시 30분에 하산했다. 그리고 8시에 C지구에 도착해서 11시에 취침을 했다. 5일만 버티면 된다.

1월 13일

7시 20분에 출발했다. 효준이랑 내가 매일 밥을 한다. 다른 선배들은 다 잔다. 추워죽겠는데 밥을 해야 한다. 그것도 출발 시간 어긴다고 매일 혼난다. 심난하다.

내가 총무도 맡고 있다. 넘 여유가 없다. 빨랑 집에 가고 싶다. 준비할 때도 심난했는데... 내 이럴줄 알았다.

9시에 2 줄기폭에 도착했다. 이름이 2줄기 폭이라서 2줄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해본 데 중에서 제일 길다. 그래서 넘 힘들었다. 영필이형이 올라오시다가 바일로 너무 빙벽을 세계 찍어서 바일을 뽑으니까 신기하게 물이 풍풍 쏟아져 나왔다. 음~ 이런 일도 있구나. ㅋㄷ 노래 크게 안부른다고 옷 벗고 재우형이 누으라 했다. 헐~ 제법 춥다. 등산학교 때도 냉수마찰 했는디... 6시 20분에 소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C 지구에 도착했다.

1월 14일

7시 20분에 출발했다. 영필이형 차를 얻어 타고 매바위를 간다. 차속에서 내 잤다. 나한테 속초 앞바다를 구경하는걸 바라는건 무리다. 그 시간에 좀더 자는게 낫지.

매바위는 인공 폭포다. 산 아래인데도 산위에 있을 때보다 더 추운 것 같다. 다른 등산학교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잘했다. 그냥 올라간다. 정말 전문가다. 정말 멋있다. 난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ㅋㄷ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근데 매바위에서 엄청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저렇게 찍어대니 안떨어질수야 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속초 시내로 나가서 회를 먹었다. 회가 맛있다고 보다는 저녁을 안해도 된다는게 좋았다. 9시에 C지구 도착해서 또 술을 먹었다. 헐~

1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다.

1월 15일

효준이가 아침에 나갔다.

난 이제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 9시에 출발했다. 그래도 이틀만 참으면 된다. 텐트를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토왕폭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재우형이 토왕폭 하단을 자일 깔았다. 내가 붙게 되었다. 근데 어렵다. 이때 까지 한 것보다 훨씬... 어렵고 길다. 바일로 찍으면 깨져버린다. 이런 얼음 짤 싫어. 하단을 못 올랐다. 음 못올라서 내려오니 좀 아쉬웠다. 5시 반에 하산을 했다. 그리고 밥을 먹고 11시 25분에 잤다. 형근이형은 참 잤었다.

1월 16일

동계 일정 마지막 날이다. 마무리 잘해야지. 하계 마지막 날 같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7시 20분에 출발했다. 토왕폭을 붙였다. 호순이형은 맨날 같이 다니면서 빙벽 안 오른다. 그게 더 심심할텐데... 용이 형이 친구라는데 동계 이야기 안해줬나보다.

정말 춥겠다. 하단을 올라갔다. 재우형이 확보하느라 고생이다. 눈이 오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는 좋게 보였는데 점점 쌓이기 시작한다. 큰일이다. 3시가 되자 철수를 시작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참이다. 역시 설악산이다. 넘어지고 미끌어지고 험하게 내려왔다. C지구 야영장에 도착하니 9시 30분 밥도 안먹고... 헐~~ 밥을 얼른 먹었다. 그리고 술을 먹고 1시 30분에 잤다.

1월 17일

철수한다. 선배님들이 밥을 해줬다. 그리고 늦게 인났다.

하~~ 다행이다.

화장실 좀 가다가 현지 누나가 나를 불렀다. 근데 녀 여유가 없어서 인사 하는등 마는등 하고 지나쳐 버렸다. 음~ 후회가 되는군...

짐을 다 싸고 12쯤에 서울로 올라갔다. 거기서 선배님들을 만났다. 아직 모르는 선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얼굴도 모르는 후배가 동계다녀 왔다고 밥 사주시는 선배들이 녀 고맙다. 그날도 많이 먹은 것 같다. 그리고 장에서 잤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광주로 내려왔다. 하~ 하루하루 안가더니 결국 동계가 끝나나보다.

PART I

春

봄

- 선운산 할매바위 48기 조아현
- 선운산 할매바위 48기 이재국
- 신입생 환영등반 47기 정효준
- 신입생 환영등반 47기 임성근
- 호남정맥 종주 47기 정효준
- 호남정맥 종주 47기 이선진
- 월출산 정기산행 47기 정효준
- 월출산 정기산행 48기 이광승
- 월출산 정기산행 48기 조아현
- 춘계 훈련등반 47기 정효준
- 춘계 훈련등반 48기 조아현
- 춘계 훈련등반 48기 이광승
- 춘계 훈련등반 48기 이재국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선운산 할매바위

■ 48기 조아현

처음 일생 앞에서 입회원서를 쓰면서 가영언니가 이번 주에 할매바위에 가겠냐고 했을 때 내 머릿 속에 그려진 풍경은 적당한 배낭의 크기를 메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가파르지 않은 산길을 오르는 것이었다.

첫 날 상무지구에서 인공 암벽을 오르리라는 나의 생각은 여전했다.

그러나 할매바위 옆에 텐트를 치면서 설마 저기를 오르냐고 물었을 때 언니가 ‘응’이라고 대답했고 속으로 불안감이 커져갔다.

물론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암벽을 탔다. 하지만 그건 암벽을 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버벅대는 것에 불과했다. 내 키만큼의 높이에 붙어 끊임없이 슬립을 외치는 나의 무력한 모습에 속도 많이 상했고 선배님들이 방법을 알려 주시는데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니까 많이 죄송했다.

그렇다고 이번 산행이 우울과 절망(?)으로 가득찬 것은 아니었다.

졸업하신 OB선배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이 얼굴을 익히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들 친절하시고 재미있고 또 종천이 형의 카리스마 있는 사진포즈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지금도 웃음을 자아낸다. 밥을 짓어먹고 진짜 맛있는 탄계란찜도 한 숟갈씩 나누어 먹고(?) 따까리에 차도 끓여마시고 축국 끓인다고 축을 뜬던 지순 언니의 모습도 생생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자체가 참으로 유쾌하고 기쁜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 신입이라 산악회를 다 겪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도와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시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 좋은 산악회 이끌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겠다고 믿는다. 또 더 많은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고생스럽다지만 즐겁고 보람된 산행을 함께 하면 좋겠다.



할매바위 단체사진

선운산 할매바위

■ 48기 이재국

산악회에 들어오고 나서 첫 산행을 할매바위로 가게 되었다. 출발 당일 일단 상무지구 인공암장에 가서 암벽등반 연습을 하기로 했다. 인공암장 높이는 대략 10미터, 아니 그 이상인 듯 했다. 일단 효준이 형이 한 코스를 등반하는 동안 지켜봤는데 설마 나도 저기까지 올라가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를 차례가 됐는데 막상 직접 오르려니 더 높아 보였다. 뭣도 모르고 터벅터벅 올라갔는데 중간 즈음 올라가니 팔에 힘이 전부 빠진 듯 했다. 꼭대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오르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에 올라갔다. 힘은 들었지만 상쾌한 기분, 좋았다. 하강하는 느낌은 오를 때와 다르게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기분이었다. 등반 연습을 모두 마치고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고창으로 갔다. 대중 시내버스를 타고 할매바위에 도착하고 짐을 내렸다. 어두워서 할매바위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 그림자로 보이는 그 바위의 높이가 어마어마했다. 다음 날 알았지만 다행히 그 정상까지 등반하는 게 아니었다.

짐을 풀고 텐트를 세우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OB 선배들께서 한분, 두분 오셨다. 성근이형이 말한대로 이름 외우기 정말 힘들었다. 그날 저녁 약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8시 쯤에 일어나 지순누나가 손수 캔 쪽으로 쪽국을 끓여 속풀이를 했다. 꽤 맛있었다. 10시 쯤에 할매바위 나들이길이라는 코스를 등반했다. 중반에 바위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많이 애먹었다. 아마 수 십 여분을 붙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 오르고 나서



쪽개는 봄치녀

하강하는 기분은 역시 좋았다. 좀 쉬는데 범칙금이라는 코스를 또 다시 오르라는 것이었다. 당황했다. 으아- 어제 하루 오른 것만 해도 온몸이 쭈셨는데 세 번째 등반을 하려니 정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 2m 올라가지 못하고 추락을 반복했다. 힘이 없었다기 보단 올라가기 싫은 마음이 앞서 있었다. 결국 포기하고 모든 장비를 챙겨 돌아갈 준비를 했다.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첫 산행이 되었다.

신입생 환영등반

■ 47기 정효준

9:00 산수오거리 | 10:15 무등산장 | 10:50 휴식 | 11:40 신선대 도착

산수오거리에서 모두 모인 후 버스를 타고 무등산장을 출발했다. 신입생들 모두 산행을 잘했다. 예상한 시간보다도 일찍 목적지인 신선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도 처음 와보는 곳이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그러나 웬걸. 등산하는 소가 많은지 배설물이 장난 아니게 많았다. 완전 지뢰밭이었다. 그래도 지뢰가 좀 없는 곳에다 짐을 풀고 식사를 했다. 어제 열심히 만든 초밥이 당연 인기(?)였다. 모두 초밥을 먹은 후 다른 것은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배를 채운 후 게임을 하기로 했다. 삼육구, 젓가락으로 가리키기-게임이름을 모르겠다-, ???-이것도 이름을 모르겠다. 마지막에 말을 하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스테레오를 했다. 나랑 성근이는 완전 구멍이다. 덕분에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안심한다. 내가 다 걸려주므로... 스테레오 게임 도중 재국이와 성필이형이 왔다. 재국이 역시 초밥을 좋아(?)하는 것 같다.

게임을 마친 후 신입생 환영등반에서 빠질 수 없는 말뚝박기를 했다. 우리 편은 성필형, 현주누나, 나, 재국이, 아현이, 상대방은 지순누나, 가영누나, 성근이, 선진이, 윤희로 짜졌다. 처음에는 우리편이 월등히 우수했지만 나중에 무너져 버렸다. 결국 골든게임에서 진 벌로 상대방을 업어 주었다.

준비한건 정말 많은데 미처 다 보여주기도 전에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하이라이트 닭*집을 선보였다. 음... 반응이 좀 약하군. 아마 점심 때 먹은 초밥 덕분인가보다.

모두 짐을 싸고 하산을 했다. 노래도 부르면서 즐겁게 내려왔다. 재국이가 백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산행, 기억에 남고 즐거운 산행이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모두 즐거워 보여 뿌듯했다. 특히 신입생들이 즐거워 보여 기분 좋았다. 모두 수고했고 즐거운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신입생 환영등반

■ 47기 임성근

27일 오늘은 환영등반하는 날이다. 모처럼만에 하는 산행 같다. 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는건 부끄러운 일이 건만.

9시 좀 넘어서 777번을 타고 산장으로 갔다. 그리고 신선대로 이동하는데 생각보다 길었다. 조그만 가면 될줄 알았는데 좀 많이 가야 했다. 숨이 차왔다. 2 번째로 조장 역할을 해봤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애기들 재밌게 해줄라고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다. 초밥이 생각보다 맛이 없었다. 정성들여 만들었는데... 재밌게 게임을 했다. 내가 너무 설쳐댄 느낌이 없지 않다. 성필이형하고 재국이가 뒤늦게 합류했다. 하산해서 내려왔다.

오랜만에 한 산행이라 힘들었지만 짬있었다.



신입생 환영등반의 하이라이트!
어어? 저거 짬구 아냐?

호남정맥 종주

■ 47기 정효준

호남정맥종주 (서발재 ~ 개기재)

대원 44기 박지순

47기 이선진, 정효준, 임성근

4월 2일 금요일

20:00 학교출발 | 20:50 217버스타승 | 21:25 서발재 도착 | 22:30 막영

2:00 취침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종천이형을 만나 기호?식품을 지원받고 버스를 탔다. 학동시작에서 버스를 갈아 타고 서발재로 갔다. 벽송저수지에서 내려 근처 할머니댁에서 물을 뜬 후 야간 산행을 했다. 역시 길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간이 늦어 금방 막영을 했다.

모두들 저녁식사를 하고 앞으로 산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내일 산행이 기대 된다.

4월 3일 토요일

07:20 출발 | 8:35 천운산 도착 | 17:50 물뜨고 저녁식사 | 20:30 취침

본격적인 독도 시작이다. 먼저 능선에 붙기 위해 길을 뚫었다. 쉽지 않다. 하지만 다 올라가서 평평한 길을 보았을 땐 웃을 수 있었다. 산행목적이 독도위주였기에 우리는 속도보단 산행 중간중간마다 독도연습을 했다. 오후는 내가 독도를 하면서 앞장섰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면 할수록 조금씩 재미가 느껴졌다. 저녁부터 선진이가 앞장섰다.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도 금방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당연히 예정지까지 와서 막영을 했을때는 기분도 좋았다. 내일도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4월 4일 일요일

6:20 기상 | 8:10 출발 | 10:50 개기재 도착 | 12:45분 광주 도착

어제 산행을 열심히 한 결과 오늘은 목적지인 개기재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

다. 물론 오늘도 산행하면서 봉우리 이름 맞추기 라든가, 능선을 보며 독도하기등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산행을 하다보니 금방 개기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광주행 버스를 탔다. 학동시장에 도착하자 점심시간이 되었다. 당연히 점심은 외식으로~ 메뉴는 자장면... 산행하고 나서 먹는 자장면은 정말 맛있다. 모두들 곱빼기 시키지 못한걸 아쉬워 한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탔다.

호남정맥 종주

■ 47기 이선진

호남정맥(서밧재~개기재) 종주산행

2004.04.02.금

학교 - 학동시장 - 서밧재(217번 버스, 9:25도착) - 막영(10:30) - 취침(2:00)

일학년들 없이 동기들과 지순누나만 산행에 참가했다.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서밧재에 도착했다. 먼저 내가 앞장 서서 길을 찾기로 했는데 어찌어찌 헤매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일 능선을 뚫기로 하고 일단 막영을 하였다. 술을 먹으려고 고기를 굽는데 고기가 크기면으로나 두께면으로나 완전히 스테이크였다. -_- 가위도 없어서 아미 나이프 2개로 이리저리 자르고 소금 쳐가며 맛나게 묵었다. 머 한것도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 취침하기로 하였다.

2004.04.03.토

출발(7:20) - 천운산 도착(8:35) - 모악산 - 점심(11:55) - 말머리재

[물뜨고 저녁(4:30)] - 촛대봉 - 막영(6:50) - 취침(10:30)

얇은 침낭을 가져가서 3시간 자는 동안 무려 다섯 번 정도 깨버렸다. 오늘은 성근이가 먼저 앞장 서 길을 뚫었다. 몸도 덜 풀리고 밥 먹은지 얼마 안되서 그런가 약간 힘들고 땀 짙게 흘러가면서 힘들게 능선에 붙었다. 아따... 길 좋다. 후다닥 가서 천운산에 도착! 지순이 누나가 독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실습시켜 보신다. 전방교차법, 후방교차법, 방위각 등등 다 차근차근 알기 쉽게 요목조목 아무튼 아주 잘 알려주셨다. 휴식을 끝내고 산행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다. 단 한마디도 그야말로 산행만 시작하면 침묵이다. 모악산을 약간 지나서 효준이가 큰맘 먹고 고른 신라면을 먹고 조장은 효준이 순서가 되어 뽀뽀하게 뽀뽀하게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산가 하나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지루하다거나 심심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도 많아지고 괜찮은거 같다. 역시 약간 즐거움은 산가 부르면서 가는 거 보아야 덜하지만... 말머리재에서 물을 뜨기로 했는데 도통 길이 보이지가 않는다. 길을 찾기 위해 우리 셋은 길을 뚫고 길을 찾기 시작했다. 역시 보이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 우연히 오줌을 싸기 위해 내려가다가 길을 발견 --v 물을 뜨고 힘들고 해서 말머리재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저녁 먹고 야간산행 할 각오로 바톤은 다시 나에게로 오고 산행을 시작하였다. 지도의 그 엄청난 거리를 탁월한 조장의 능력으로... 계획한 촛대봉과 두봉산 사이의 막영지까지 왔다. 어찌 막영한 곳이 으스스했다. 막영에 이어 빠질 수 있는 일명 술타임을 시작했다. 지순누나 배낭에서 종천형께서 잘 다녀오라고 하사하신 맥주 2피트가 나왔다. 아따 시원하고 맛있는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영을 빨리해선지 취침도 빨리했다.

2004.04.04.일

출발(8:10) - 두봉산 - 개기재(10:50) - 학동시장 - 학교

카레로 아침을 때우고 몸을 풀기 시작했다. 또 성근이가 아침에 준비운동 하다가 제대로 한번 웃겨주고 즐겁게 산행을 시작했다. 얼마안가 두봉산이 나오고 휴식하는 동안 다들 지도를 유심히 살폈다. 또 얼마안가 목적지인 개기재가 나왔다. 개기재에서 내려와서 총무님이 쏜다 하길래 부랴부랴 마을에서 가게를 찾았건만 보이지 않았다. 광주에서 쏘기로 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경환이형한테 전화한통 하고 광주로 내려왔다. 광주로 내려와서 점심을 짜장면을 먹은 뒤 오지탐사에 간 형 누나 일학년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 4시간 기다렸다. --



길 찾는 중

심심해 죽는지 알았다. 뒷풀이에 경호형 종천형 현준형 잠깐이시지만 용욱이형들이 오셔서 재미있게 보냈다. 이번 호남정맥을 다녀와서 독도에 대해 지도를 보는 것에 대해 약간 익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월출산 정기산행

■ 47기 정효준

대원 : 40기 한성필 42기 김재우 44기 박지순 46기 김가영
47기 임성근 이선진 정효준 48기 조아현 이재국 이광승

4월 10일 토요일

13:30분 출발 15:00 월출산 도착

동방에서 모두 모인 후 1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바로 월출산으로 출발했다. 월출산에 도착하니 3시 정도 되었다. 필요한 짐만 챙기고 바로 검정 슬랩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1학년 아현이가 후등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와 재국이는 시루봉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많아 우리도 검정 슬랩을 하기로 했다. 오랜만이어서 일까 아님 다른 이유일까 계속 2번째 런너를 걸지 못하고 슬랩을 먹었다. 몇 번 그렇게 슬랩을 먹어보니 어느 정도 감이 왔다. 2번째 런너를 걸고 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끝까지 올라갔다. 그곳에서 재국이와 현주누나와 지순누나를 확보 봐 주었다.

선진이는 1학년들과 전남 슬랩을 하러 갔다. 전남 슬랩을 나도 해보고 싶었다. 1학년 때 한번 후등으로 올라가 보았지만 선등으로 올라가 보고 싶었다. 아쉽게도 오늘은 검정 슬랩만 하고 하산했다.

4월 11일 일요일

07:00 출발

어제는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좀 오래 가졌다.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 피곤하다. 그렇지만 예정대로 우린 시루봉으로 향했다.

조를 나누고 코스를 정했다. 성근이는 A길, 나는 공정길, 선진이는 B길이다. 나와 선진이는 2피치부터 만나 같이 등반을 했다. 시루봉은 1학년 때 이후로 처음이다. 거의 반년이 넘어서 다시 시루봉 등반을 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1학년 때 몰랐던 길과 그 길마다 있는 미세한 홀드들이 느껴졌다. 2피치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 그러나 문제는 3피치에서 발생해 버렸다. 고도감 때문일까 아님 힘이 빠져서? 어려

운 인공등반길은 다 올라가 놓고는 크랙등반에서 오르지 못하고 2피치로 하강해 버렸다. 갑자기 모든 의욕과 힘이 다 빠져 버렸다. 때문에 지순누나가 올라가 3피치를 끊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장비를 회수하며 코스를 다시 생각해 봤다. 다음에 이 코스를 한다면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올라 갈 수 있도록... 정상에 올라가니 모두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경호형과 성필이형과 현주누나까지...

그 곳에서 사진 한 컷 찍고 시루봉 하이лай트인 -물론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하강을 했다. 하강할 때 문득 작년에 랜턴끼고 하강을 했던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정말 짜릿했었는데. 어쨌든 역시 하강은 재밌다.

모두 하강을 한 후 장비를 챙기고 야영장으로 하산했다. 형관형과 현주누나의 차에 다 배낭을 싣고 우린 월출산을 내려와 구보로 버스 터미널까지 갔다. 오랜만에 구보를 하면서 땀을 흘리니 기분이 상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부터 아파오던 무릎이 반항을 했다. 다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다.



올챙이 송과 함께 춤을

고 하셨습니다. 특히 1학년인 아현이와 재국이, 그리고 광승이. 또한 이번 산행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모두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밝게-

어쨌든 그렇게 구보를 다친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모두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산행반성하고 1, 2학년이 모여 재우형이 가르쳐 주신 개구리와 올챙이 춤과 노래를 부르며 공연도 했다. 선진이가 제일 잘 한다.

모두들 식사를 마친 후 아쉬운 작별을 하고 광주행 버스를 탔다.

추신: 이번 산행에 도와주신 OB선배님들 그리고 YB선배님들과 후배님들 모두 소

월출산 정기산행

■ 48기 이광승

지난달부터 친구놈의 압력 아닌 압력과 예전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산악회를 처음 찾아가서 작년이나 더 전년의 사진들을 보고 가영이누나와 효준이형의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입회원서를 썼다.

조금있다 들어온 경은이가 ‘넌 후회할꺼야~’ 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찾아가기 전부터 효석이에게 들어서 그날부터 월출산 산행이 있는 것 알았지만, 솔직히 따라 가려는 마음은 없었다. 그런데 가영이 누나의 ‘너도 이번 월출산 갈꺼지?’ 라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가족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았고 일정에도 없었던 산행이 잡히고 나서 될 뉘로 되겠지란 생각을 하면서 형, 누나들의 배낭과 장비 챙기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와서, 나도 얼른 가방을 챙겼다.

그날 만난 형, 누나들과 동기들을 처음이라는 낯선 느낌이 조금씩 들었지만 다음날 후발대로 입산해서 바로 전남과 검정 슬라브를 오르면서는 나의 생명줄을 잡아주는 가장 친근한 사람들이 되어 버렸다.

아무 사전 지식도 없고, 평소에는 볼러보지도 않았던 노래를 형들이 시킬 때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아~,노래가사 한 두 개는 외워둘걸!’ 이란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하나씩 가르쳐 주는 산가들을 배우면서 점점 더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들은 사라져 갔다.

저녁에 내가 밥 담당을 했는데 밥솥 뚜껑을 잘 닫지 않고 밥을 하는 바람에 설익어서 다시 물을 붓고 밥을 하긴 했지만 적당히 먹어주시는 형, 누나들이 무척 고맙게 느껴졌다.

밥을 먹고 저녁에 새로 들어오신 형, 누나들께 인사하고 평소에는 입에 안대는 술을 먹어서 어지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맛본 선배님들과의 술자리였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시루봉 암벽을 타러 갔는데, 솔직히 그렇게 오래 걸릴줄은 생각 못했다. 1피치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만했지만, 2피치부터는 선등을 스는 형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쉽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했다. 암벽을 오르면서 힘들 때마다 자일을 짧게 잡아서 쉽게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형들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렇게 3피치까지 오르고 기념사진을 찍고 하강을 하는 기분은 정말 좋았다. 그 높

은 곳에서 자일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내려오는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그렇게 월출산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산악회 가입 첫 주가 조금은 힘들게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체력을 기르고 될 수 있으면 산행에도 안 빠지고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월출산 정기산행

■ 48기 조아현

회의 때 금요일날 출발한다고 들었지만 계속 토요일 날 가고 싶었다. 재국이가 토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가면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혼자 그렇게 결정 내려놓고 형들이랑 언니에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냥 금요일날 가게 되었다.

처음에 동방에서 가방을 싸고 메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가볍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정류장으로 걸어갈수록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다. 어깨도 아프고 조금씩 자세를 바꿔 봐도 가방은 무겁기만 했다. 영암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창 밖을 봤다. 이번에도 부모님께 말을 안하고 왔기에, 집 걱정도 하고 월출산 산행에 대해서도 상상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다. 같이 있어서 많이 힘이 됐던 경은이도 없고 할매바위 때야 모르고 갔기에 아무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산행이라면 암벽에 대한 부담부터 커진다. 하여튼 버스에서 내려 조금 걸어서 야영장으로 갔다. 가는 동안 형들한테 회가랑 적막가랑 배웠는데 내 머리가 나쁜건지 가사가 잘 외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 날도 계속됐다. 야영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어서 얼른 텐트만 치고 잤다. 둘째날 밤에 비하면 그날 밤은 정말 평온히 잔거 같다. 그 다음날 일어나선 밥만 먹고 산을 올랐다. 매봉까지 올라서 조금 쉰 뒤 암벽을 했다. 나는 형들이랑 언니가 올라가는 걸 보고 괜히 무서워졌고 별로 오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보는 건 정말 멋있었고 좋았다. 성근이형이 슬립을 몇 번 먹었는데 정말 멋졌다-_-;; 형이 다쳤을까 걱정도 됐지만 성근이형의 깡이 느껴졌다. 가영언니와 선진이형이 매봉 오르면서 참 많이 쉬었고 평강도 많이 부렸던 것 같다. 매봉 1피치 오른 후 선진이형이 뒤로 돌아서 경치 좀 보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잘 못봤다. 아쉽다. 매봉에서 하강한 뒤 간단히 라면만 먹고 검정슬라브 있는데로 내려왔다. 매봉같은 경우 잡을게 있어서 잡고 오르면 되지만 검정슬라브는 잡는게 없고 발힘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다. 선진이형이 슬립하는 걸 본 것 때문에 또 무섭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다. 가영언니가 많이 조언해주고 선진이형도 많이 도와주셔서 오른 것 같다. 검정슬라브에서 내려왔을 즈음에 재국이랑 광승이랑 왔는데 많이 반가웠지만 별로 티는 안냈다. 형들 말대로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과연 재미가 있나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슬라브 하나를 더 오르고 산을 내려왔다. 항상 산을 오를 때는 내려갈 때가 더 쉽겠지하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려갈 때도 똑같이 힘들다. 손에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몸도 여기저기가 쑤셨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반찬이 최상급이어서 기분이 좋았다. 같이 모여서 술을 좀 마셨는데 난 소주는 영 맛이 없어서 요령 피우며 안먹었다. 1학년이라고 12

시에 들어가서 잤는데 자리가 영 불편했다. 좀만 자려고 하면 깨고 영 잠도 안오고 눈이 말뚱말뚱했다. 조금 잠이 들었을 때 재우형이 계속 신음했다. 또 잠이 깼다.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도 힘든데 형이 신음하니까 잠이 제대로 달아났다. 너무 더워서 선진이 형이 빌려준 깔깔이를 벗었는데도 더웠다. 또 사람이 많아서 껴 자니까 도저히 잠이 안왔다. 눈 감고 있는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느꼈다. 그 다음날 아침엔 컨디션이 영 별로였다. 잠도 오고 밥을 먹는데 밥맛도 영 없었다. 시루봉으로 오르는데 너무 힘들었다. 나는 등산을 하고 싶어서 산악회에 들었는데 등산을 하면 진짜 체력이 딸린다. 시루봉 1피치 오를 때는 진짜 재미있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1피치 올라서 쉬는 동안 무지 편했기 때문이다. 편하게 서서 보는 경치도 좋았고 재우형이 노래시키는 것 빼곤 다 좋았다. 2피치 오를 때부터 힘이 딸렸다. 힘도 딸리고 길도 어려웠다. 또 화가 났다. 계속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무기력한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났다. 2피치 오르고 나선 오랫동안 쉬었다. 먼저 간 형들이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쉬는데도 마음이 안 편했다. 내가 올라갈 차례가 돼서 3피치 오르는데 처음부터 허덕댔다. 그리고 끝까지 허덕댔다. 시루봉 3피치 오를 때는 내내 허덕인 것 같다. 다 오르자 후련했고 기분도 좋았다. 좀 앉아있고 싶었는데 재우형이 또 노래를 시켰다. 정말 미웠다. 그래도 시키면 한다. 형은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똥씹은 표정이라고 뭐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되는걸까? 시루봉 하강 할 때 기분이 참 좋았다. 오른쪽 손바닥에서 열이 났지만 그래도 다 끝났다는

이번 월출산 산행, 솔직히 암벽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산악회를 그만 두는건 싫은데 경은이도 없고 우선 내가 체력이 딸리니 힘든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다. 과연 이것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생각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 어쨌든 이 문제는 나도 경은이처럼 많이 thinking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번 산행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수학여행 이런거 빼고 밖에서 자는 것도 처음이었다. 텐트에서 겨자는 색다른 경험도 기억에 남고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산은 좋다. 전부터 산은 좋았다. 앞으로 암벽도 좋아하도록 노력해봐야겠다.



월출산 시루봉 3피치에서

춘계 훈련등반

■ 47기 정효준

일시 : 2004년 5월 13 ~5월 16일

구간 : 땅끝기맥 (오소재~영파리)

대원 : 40기 한성필

42기 김재우

47기 정효준

48기 이광승, 조아현

2004년 5월 13일 목요일

19:00 학교 | 22:00 해남 | 23:00 오소재 약수터(막영) | 1:15 취침

춘계 첫 날, 영필형께서 오소재까지 어프로치 해 주셨다. 오소재 도착전에 해남읍에서 약간의 부식을 사고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알탕. 영필형과 장민형께 감사한다. 오늘은 간단하게 막영지에 도착하여 바로 텐트치고 형들의 좋은 말씀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내일부터 기대 된다.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7:00 오소재 출발 | 10:20 간식시간 | 11:40 출발 | 14:00 422.7 봉우리

16:00 청락원 점심겸 저녁 | 17:00 출발 | 22:00 막영 | 23:30 취침

춘계 산행 첫날, 길이 모두 암릉 지대다. 완전 릿지등반 하는 것 같다. 모두들 무거운 배낭 매고도 잘 올라간다. 전 날 비가 와서인지 땅이 젖어있다. 코스가 암릉지대라 설 만한 곳이 거의 없다. 때문에 거의 2시간에 한 번 꼴로 쉬었다. 비가 안 와 다행이다. 비 왔으면 자일 깔았어야 할 뻔 했다. 암릉구간이 끝나자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다. 간단히 점심 겸 저녁을 먹고 산행을 했다. 산 정상에선 능선도 잘 보이고 길도 잘 보였는데 내려가다보니 길을 잘 못 들어 버렸다. 표지판을 보고 길을 갔지만 그 표지판이 잘못되었을 줄이야. 원래 코스보다 더 가 앞 능선으로 붙어버렸다. 게다가 날도 어두워 졌다. 빨리 다시 현 위치 파악해 보니 웬 걸, 길을 잘못 들어 버렸다. 어쩔 수

없이 백!! 모두들 많이 지쳐버렸다. 겨우 원래 코스로 붙어 그 곳에서 막영을 했. 이번 경험으로 표지판도 100% 믿어선 안 된다는 걸 배웠다. 내일 일찍 일어나 산행하기로 하고 눈을 붙였다.

2004년 5월 15일 토요일

6:00 출발 | 11:10 첩봉 | 14:15 204.7 봉우리 | 16:15 275.7봉우리

21:30 양유동 저녁식사 | 22:10 출발 | 4:00 취침

저녁에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더니 결국 하루 종일 내려버린다. 길 또한 거의 가시밭 길이다. 비를 맞고 가시밭길을 헤치며 그렇게 계속 산행을 했다. 성필형을 만나기 위해 우린 잠시 산을 내려와 마을로 들어섰다. 성필형의 프라이드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A조에 먼저 들어서 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성필형이 가져오신 부식을 밥 지으면서 거의 먹어버렸다. 즐거운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산행시작. 근처 마을을 지나 능선에 붙었야 한다. 그런데 지도상에 없는 임로가 엄청 많다. 산 길 못지 않게 마을 길도 어렵다. 여기서 다시 독도법을 배웠다.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운다는 점이 뿌듯하다. 날씨가 점점 나빠져 야간산행은 할 수 없었다. 그래서 1학년들 텐트치기 연습을 했다. 처음엔 미숙했지만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예쁘게 잘 쳤다. 1학년들도 조금씩 산행지식을 배우는 게 좋아보였다. 텐트 안에서 젖은 옷을 말렸는데, 완전 하계냄새다. 정말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취침을 하였다.

2004년 5월 16일 일요일

9:00 만세2저수지 출발 | 09:52 휴식 | 10:10 출발 | 11:00 휴식 및 응급처치 강의

12:00 출발 | 14:20 집결지 도착

오늘은 춘계 마지막 날, 출발부터 하중 훈련을 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힘겨워 했지만 오르막길을 오른 후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길도 좋아서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능선 상에서 돌을 빼고 A조를 기다렸다. 더 늦는다고 하여 우리 먼저 점심을 먹기로 했다. 마을에서 반찬도 얻어서 점심 식사를 했다. 잠시 후 A조가 도착하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따까리 전수식을 했다. 단체사진을 찍은 후 광주로 가는 차를 탔다. 모두들 춘계훈련등반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와서 다행이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1 학년들 모두 수고 하였으며, 산악회 준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밝게-

춘계훈련등반

■ 48기 조아현

(2004.5.13~16)

나는 생각보다 놀라는 일에 둔감한 것 같다. 처음 산악회에 들어와서 암벽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랬고, 춘계훈련등반 때 독도를 해서 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도 그랬다. 산 아래 있을 때는 산악회가 너무 좋고 사람도 좋고 그런데 산 한번 갔다오면 참 오랫동안 패닉 상태에 빠진다. 진짜 하계를 생각하면 산악회 정말 빠지고 싶다. 그래도 항상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적미적한 나를 보면 한심 할 따름이다. 춘계가기 전에 궁금해서 보고서를 딱 하난 읽어 봤는데 선의 언니의 보고서 였다. <동기가 쓰러지고 뒹-뺨을 쳐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다가 또 쓰러졌다.> 이런 내용이였다. 나는 딱 거기까지만 읽었다. 더 읽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다. 하지만 춘계가 두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첫째날 알탕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기분 만땅이었으니까. 약수터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그 무거운 배낭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것이었지만)을 메고 오르막을 오르려니 괜히 눈 앞이 캄캄했다. 첫 발을 내 디을 때 정말 그랬다. OB형들이 차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정말 태워 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생각해 보면 첫째 날이 가장 힘들었다. 오전엔 거의 암릉 이었고 첫날이어서 그런지 배낭의 무게에 익숙하지 못한 어깨가 정말 저렸기 때문이다. 암릉 오르는 건 정말 힘들었다. 배낭도 무겁고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갔다. 나만 빠고 다들 잘 오르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햇볕도 따갑고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그것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재우형이 주신 오렌지 주스도 진짜 환상이었다. 나는 그 때 내려가면 아이스크림이랑 주스랑 많이 먹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려오니 별로 땡기지 않았다. 형이 사가를 시켰는데 (산가였나??)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니까 더 힘이 났다. 다리 아픈 것도, 배낭 무거운 것도 덜 느껴졌다. 근데 오르막에서 노래 시키면 힘도 안 나고 힘들었다. 내가 올라가면서 킁킁대면 광승이는 나 도와준다고 배낭을 자꾸 들어줬는데 솔직히 그게 더 힘들었다. — —;; 배낭이 머리 위로 올라오면 머리 쪽으로 무게가 가서 몸이 자꾸 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 힘들텐데 나 도와준다고 그러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상에 오를 때마다 더 가야할 암릉이 보이면 정말 힘이 쭉 빠졌다. 암릉이 다 지나고 그냥 산길을 오를 땐, 암릉보다 덜 힘들겠지 했는데 이것도 오르막은 그냥 힘들었다. 날이 저물고 천봉으로 가야하는데 길을 못 찾아서 계속 헤맸다. 그래서 1박지 까지

못 가고 그냥 텐트 치고 잤다.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갑갑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비가 후두둑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가 너무 시원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흠뻑 젖고 나니까 춥고 찝찝하기만 했다. 괜히 경은이 걱정이 됐다. 춥고 방수라는 옷은 물을 쪽쪽 빨아들이고 온몸이 축축해졌다. 이제 가방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신발은 밥 달라고 입을 쪽쪽 벌리고 산엔 가시나무만 있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온갖 잡생각이 들었다. 아니 오히려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하기엔 가시나무 젖히기도 바쁘고 효준이형 따라가기에 바빴다. 손에 상처가 늘어갔다. 얼마나 넘어졌는지 셀 수도 없었다. 아-다리가 멍해지고 산가를 부르는데 내가 뭐라 하는 지도 모르겠더라. 그 날 저녁에 마을 회관 앞에서 밥을 지었다. 비 때문에 내내 찝찝했지만 그래도 잠시 쉬는 것 자체가 좋았다. 성필이형이 오셨다. 그저 반가웠다. 하지만 형보다 형이 가져온 크라운 산도가 더 반가웠다. 크라운산도가 그렇게 맛있는 과자인지 미처 몰랐다. 형이 2리터짜리 순수도 사왔다. 어젠 그렇게 귀하고 먹고 싶던 물이 비 쫓딱 맞고 보니 꿀배기도 싫었다. 밥을 먹고 도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배낭 무거운 건 잘 모르겠는데, 신발 때문인지 발이 너무 아팠다. 성필형이 목소리 작다고 뭐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 그래, 목소리 크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웬지 모를 오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형이 야간산행 할 거라고 30분 정도만 잘 거라고 해서 ‘아, 선희 언니 보고서에 써

있던 걸 경험 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한 2시 정도에(맞나?) 텐트를 쳤다. 뽕송뽕송한 옷으로 갈아입고 텐트에 앉아서 뭘 먹는데 형들이 계속 냄새난다고 뭐라고 했다. 나는 창피하고 쪽팔렸다. 꼭 내 냄새 일리만은 없는데...—_—;; 그 다음날은 늦잠을 잤다. 7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7시 10분인가 일어났다. 얼른 밥하고 배낭 썼다. 얼른한다고 해도 나는 손이 느려서 빠르지 못했다.

산산산... 이 변민의 공간이여



모든걸 끝내고~

춘계 훈련 등반

■ 48기 이광승

13일 저녁 우리는 A조 B조로 나뉘서 춘계를 갔다. 그 날 따라 점심도 안 먹고 있다가 시간이 없으며 밥도 안 먹고 출발하게 되었다. 밥도 안 먹다니ㅠ.ㅠ
이제는 정말로 산행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나의 가슴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먼저 영필형의 사무실로 가서 인사를 하고 A조는 버스를 타러 먼저 출발하게 되었다. B조는 영필형의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다. 출발이 늦어져서 도착을 해보니 9시40분이 넘어서고 있어서 읍에서 알탕을 먹고 오소재 약수터로 갔다.

약수터에 가보니 상당히 넓은 평평한 주차장과 화장실이 보였다.

'아~첫날은 그래도 화장실은 좋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잠시, 텐트를 치고 형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소주를 한 피트 먹었다. 출발전날에 영필이형과의 저녁에서 조금 무리를 해서 술이 들어가질 않았다. 이렇게 재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OB선배님들이 감사하다.

5월 14일

그렇게 춘계첫날이 저물어가고 드디어 본격적인 춘계 훈련 등반이 시작되었다.

가볍게 몸을 풀고, 약간은 긴장된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산에 올랐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암릉으로 쭉~우~욱~ 이어진 산봉우리들이었다. 정말 보는 것 만으로도 질려버렸다. 그래도 바위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가시밭길이나 능선길 보다는 편하게 올라간 것이 실제 속마음이었다. 처음 산봉우리 하나를 오르고 나서 효준이 형의 '10분간 휴식'이라는 말을 듣고 멀지만 가깝게 보나는 땅끝의 바다와 물안개를 보면서 재우형이 사진을 찍는다고 품좀 잡아보라는 말도 하고, 독도하는 효준이 형을 보면서 지도에 뭘 적는지도 보면서 첫 휴식을 보냈다. 다시 이어지는 효준형의 '출발1분전~!'이란 말이 들려와 산행은 이어졌다.

'출발1분전'이란 말이 다음날에는 얼마나 웬수같이 느껴질지는 출발의 긴장감에 들뜬 마음을 한 나의 머리속에는 없었다.ㅠ.ㅠ,

그런데 처음 부터 아현이가 배가 살살아픈지 인상이 그리 좋지않았다. 그에따라 산행도 힘들어 보였다. 아현이 뒤를 따라 가면서 본 아현이의 바위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내뺨에는 힘들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자주 밀어 주었다. 나중에 재우형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광승아~아현이 엉덩이 그만좀 만져라'는 말을 듣고 하하 ~민망하기도

해서 더이상 밀어주는 것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생각해 보니 훈련등반을 와서 조금 힘들어 하는 모습의 동기를 보면서 사소한 것부터 내딛에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은 훈련등반의 목적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단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아침에 출발한 산행이 정오쯤에 다다를 쯤에는 배낭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고 맘껏 마실수 없는 물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쨍쨍 내리 쬐는 햇빛과 함께 강해져 가고 있었다. 아~그러나 이놈의 암릉은 언제끝날까나... 가도가도 암릉뿐이구나. 이러다가는 2박지까지도 못가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찌 해서 암릉을 지나서 오후 4시쯤에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었다. 전날 남은 삼겹살 등을 모두 넣고 먹은 푸짐한 식사였다. 다시 산행을 시작하는데 재우형이 앞으로는 쪽 산을 따라서 갈꺼란다. 아 물이 얼마나 고평까????라는 생각을 했다.

점점 날이 저물고, 2박지는 멀었고 해서 야간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능선을 잘못 타는 바람에 날저문 묘지옆의 고목들이 즐비한 곳만을 지나치면서 산뜻한 기분을 느꼈다...--;;a

결국은 야간산행도 포기하고 2박지는 가지 못한 채 묘지 에서 막영준비를 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춘계의 밤을 맞았다. 아 웬지 날이 심상찮은데... 주저주저

5월 15일

새벽부터 불안하던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바람도 장난아녘다. 우리 조 중에는 나만이 판초우의를 입었다. 다행히 아침 출발 즈음에는 비가 적당히 멎은거 같아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출발후 얼마지 않아서 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목대 C.C에서 받은' 쿨맥스 소재 살레와 티만을 입고 판초우의를 입고 산행을 계속했다. 어제의 물고픈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은 채 재발 해 좀 뜨라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얼마나 욕을 지껄였던가... 계속 비를 맞으며 산행을 계속하는데 길들이 보이질 않은 것이다.

점점 몸은 식어가고 산에서는 여름에도 얼어죽는다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재빨리 휴식을 취하고 버너를 켜서 커피 한잔으로 잠시나마 몸이 녹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비는 'No Thanks' 였다. 다시 몸을 움직이면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발광을 했다. 다시 순조롭게는 보이지는 않은 산행이 시작되었다. 어김없이 날은 저물어 오고 캄캄한 상태에서 성필이형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마을회관 앞에서 밥준비를 하고 있을때 성필이 형이 오셨다. 푸짐한 간식과 함께 음식들이 조달됐다. 우호호 크라운 '산도' 념 맛있었다.

다시 야간 산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얼마 못가서 막영준비를 했다. 텐트를 치는 훈련을 몇번 하는데 환한 낮에만 몇 번 해보다가 한밤중에 시간제한으로 해보려니 앞뒤도 분간이 잘 안되고 땅도 못이 다시 나와버리고... 하여간 난리였다.

텐트에 들어가는 성필이 형이 아현이 한테 한 컷마디가 '와 ~~아현이 냄새'였다. 갑자기 춘계에서 하계냄새가 난다고 하고 나는 이미 코가 마비 상태라 어떤 냄새지는

모르겠다.

이른 저녁을 먹은 상태라서 그냥 간단하게 간식과 맥주 한 피트를 먹고 취침에 들어갔다. 비가 이렇게 괴로울 줄 내가 어찌 알았으랴...TT

5월 16일

드디어 이번 춘계도 마지막날이 밝았다. 이념의 춘계, 힘들고 추웠어도 끝은 난다...ㅋㅋ 그런데 출발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늦은 출발로 인해서 벌칙 겸 하중훈련이라고 해서 각자의 배낭에 돌을 넣으라는 것이다... 허거걱.-O-;;

나는 적당한 돌이라고 생각하고 2개를 들고 왔는데 이거 넣고 출발할꺼야. 소신껏 들어라...는 말에 2개보다 더 무거운 한 개를 더 넣고 나자 혼자 배낭 메기도 힘들었다. 성필이 형의 도움으로 배낭을 메고 출발을 하는데 발걸음은 질질질~이었다. 하필이면 또 오르막길만 나타나는지 너무 힘들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배낭의 무게는 그대로였다.



하중 훈련. 이정도 돌쯤이야~

어제 성필이 형이 가르쳐준 자세를 잡고 오기로 올라갔다.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기도 싫어서 나무가 얼굴을 긁고 가시나무가 허벅지를 찢러도 그냥 스쳐갔다. 옆에서 그런 나를 보고 성필이 형은 로봇트라신다. 힘들어서 죽겠는데도 그런 형들의 마음 담긴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이 나고 괴로움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사라져 가기도 한다. 그렇게 3시간 남짓 가다 거의 다왔다는 형들의 말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자리에서 넣었던 돌들을 꺼내 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들과 아현이 돌은 줄어 들어있고 나만 그대로 메고 온 것이었다.TT 아 사고생했다... 흐흐

그래도 돌을 빼내고 나니 날아 갈것만 같다. 바람이라도 불면 정말 날아 갈듯. 이제 여기쯤에서 알핀을 외치면 A조에게도 들린다는 형들의 말들 들으면서 알핀도 외치고 해봤지만 A조는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는 30분정도 더 쉬다가 안되겠다 싶어 먼저 집결지로 갔다.

저수지 옆의 빈집에서 몸도 씻고 밥도 하고, 마을에서 효준이형이랑 아현이가 공수해온 반찬으로 맛난 마지막 춘계 밥을 챙겨 먹고도 A조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쉬다가보니 6시가 다 되간다. 언제나 올런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저기 멀리서 알~~~~핀~~~~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게 A조를 만나고 보니 옷들이 장난이 아녘다.

아 우리 조는 정말 조장 잘 만나서 길 별로 안헤맸구나...하는 말들이 여기 저기서

들려 온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고난인 조가가 남았다. 이 생각저 생각 다 해봐도 역시나 결론은 ...난 너무 노래 못한다...노래 모른다...였다. 안되는 노래는 던져버리고 몸으로 때우기로 했다. 아현이는 노래부르고 난 행동을 보여주기로.

그러나 예상 외로 늦은 귀환으로 시간이 쫓겨서 따까리 전수식을 하고는 학교로 돌아왔다. 아 나 춤은 안해도 되겠다...했는데 뒷풀이 자리에서 보여달라는 형, 누나들의 말에 기어이 나의 안되는 행동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렸다...— 그러나 술 먹은 기운으로 한 행동이라 주위의 썰렁한 반응들에도 많이 무안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옆에서 형관이 형이 팔씨름을 하자신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돈을 걸고... 참 나는 팔씨름은 정말 못하는데 성필이 형이 나에게 5백원을 걸면서 지면 죽어~라신다. TT 눈물난다. 어떻게 저 팔뚝 굵은 형을 이기라는 건지.

그래도 형관이 형이 그냥 버텨주셔서 돈은 내가 먹었다. 그러나 형관이 형의 '힘좀 길러야 겠다.'는 말이 나의 가슴에 비수가 됐다.

앞으로 운동 더 해야겠네. 힘들지만 재밌기도 하고.

아~~~~~드더 춘계끝이다...~~~~~

춘계훈련등반

■ 48기 이재국

산악회에 들어와서 서너번째 되는 산행이다. 바로 춘계훈련등반. 지금까지 했던 산행과는 달리 3박4일이라는 나에겐 꽤나 긴 산행일정과 산악회 특유의 훈련방식도 느낄 수 있는 산행이었다. 출발은 목요일. 3박4일이라는 일정 때문에 이 날 출발하게 되었다. 일단 조는 2개로 나뉘어 땅끝기맥을 종주했다. 서늘한 날씨와 함께 우리는 출발했다.

지금까지 했던 산행보다 비교적 긴 일정과 첫 종주 산행이라는게 나를 기대하게끔 했다. 기대와 함께 긴장되기도 했다.

일단 영암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도갑사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10분 차이로 버스를 놓쳐 월출산 천황봉을 넘어가는 코스로 일정이 변경 되었다. 그러기 위해선 월출산 야영장까지 가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되는 거리였지만, 그땐 처음 가보는 길이라 게다가 어깨엔 무거운 배낭까지 메고 있었던 터라 힘들고 길게 느껴졌다. 산악회 특유의 줄맞춰서 나란히 걷기... 걸음걸이가 늦는 나로선 배낭을 멘 채 성근이형을 뒤따라 가려니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하지만 내일, 모레 있을 산행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야영장에 도착해서 우린 행동이 느리다고 꾸중을 받았다. 그렇다. 우린 춘계훈련등반을 온 것이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술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가영 누나가 시원한 캔맥주를 꺼내들었는데 이 날은 배도 부르고 정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맥주 한모금 한모금, 한방울 한방울이 내일 그렇게 머릿속에 맴돌게 될 줄이야.

다음 날, 바람폭포에서 우린 양치와 세수를 하고 출발했다. 천황봉은 처음 올라봤는데 역시나 바위산답게 바위길이 많아 네발로 기어가듯이 걸었다. 통천문을 지나는데 바위 사이로 통과하는 바람이 시원했다. 정말 하늘로 통하는 문 같았다. 천황봉에 다 올랐는데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더불어 파리들이 귀찮게 했다. 사진을 찍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했다. 점심은 뜨거운 땡별 아래서 라면을 먹었다. 나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 위로는 뜨거운 태양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배고프니 잘도 넘어간다.

물 고문도 당해보았다. 큼... 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란걸 몸소, 땀 속 깊게 느낄 수 있었다. 저멀리 보이는 저수지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런데 춘계만 끝난다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원없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기쁨에 젖어 들었다. 번

태인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춘계가 끝나면 수영장 갈 생각, 물 마실 생각에 당장 몸은 고통스러우면서도 상상하면서 기뻐다. 너무 목이 말라서 챙겨온 가그린 조차 마시고 싶었다. 차마 인간답게 살자면서 마시기까진 안했지만, 선영이와 난 가글을 하면서 갈증을 달랬다.

경은이는 등산화가 밑창이 뜯어지면서 운행에 지장을 주었다. 응급 조치로 철사와 노끈, 본드로 동여 매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뜯어지긴 마찬가지였다. 하는 수 없이 가영 누나와 등산화를 바꾸고 산행을 했다. 아... 경은이 덕을 많이 봤다. 등산화를 고치는데 휴식시간도 길어지고 경은이가 헉헉대면 우리는 또 천천히 가고... 덕유산 등반에 이어 정말 고마운 경은이다.

이 날 저녁엔 길을 잘못 들어서 많이 헤맸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막영을 했는데 오신다던 현주 누나와 지환 형께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 핸드폰 연결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에서야 합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환 형께서 경은이의 등산화를 한 손에 들고 현주 누나께서 먹을 것들을 들고 오셨다. 웬지 기억에 남는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판초우의를 처음으로 입어보았다. 1학년 셋이서 각각 다른 색깔의 판초우의를 입고 올망졸망 걸어가는 꼴이 내가 보기에 웃겼다. 어제 버벅대던 경은이가 등산화를 바꿔서 그런지 잘 간다. 어젠 경은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 몇 개를 넘어 도로 구보를 하



비는 아침부터 내렸다

고 굴다리 밑에서 3시 쯤에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비를 맞은 탓에 몸이 덜덜 떨렸다. 덜덜 떨면서 먹은 라면은 땀속에서 먹은 어제완 대조적으로 맛있었다.

막영지는 암재인가 되는데, 도무지 그 곳이 나올 생각을 안했다. 오늘도 역시 밤늦게까지 산행을 했다. 비 때문에 몸이 젖은 채로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까지 산행을 하려니 턱까지 떨렸다. 휴식시간마다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게 뭔지 느낄 수 있었다. 밤이라 길 찾는데 정말 힘들었다. 백계남 표식기 덕분에 그나마 몇 번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정말 잊지 못할, 얼굴도 모르는 백계남씨다. 엄청 지친채로 새벽 2시 쯤에 막영을 했다. 이렇게 피곤한데 술은 빠질 수 없나보다. 늦게서야 저녁 밥을 먹고 술자리를 가진 후 4시 30분 쯤에 잠에 들 수 있었다.

두시간 정도 취침을 하고 춘계 마지막, 셋째날을 맞이했다. 아~ 드디어 마지막이다. 오늘은 빨리 끝날 줄 알았다.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을 했으나 서기산을 오르고, B조와 알핀 소리까지 나눴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다 내려와서는 산을 하나 더 타야했다. 정말 그뻘 쓰러지는 줄 알았다. 뭐라할까, 발은 물에 퐁퐁 불어 등고선을 그리고 있는데 목은 마르고. 힘은 없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아무런 생각없이 그렇게 산

을 올랐다. 내가 보기엔 그때 모두들 지쳐있었던 것 같다. 마침내 비상식으로 간식을 떼우고 하산 할 수 있었다. 집결지에 왔을 땐 B조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깔끔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거지 꼴에 비하면 산행을 안한 사람들 같았다. 아현이는 그런게 억울했다. 자기들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먼저 깔끔한 모습으로 단정하게 있어서 고생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기분은 좋았다. 그 다음 ‘빠따’가 있었을 줄은 몰랐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따까리 전수식. 성근이 형이 맘이 어려서인지 세계 때리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때 맞은 것에 비하면 정말 가벼웠다.-_- 아프진 않았지만 이런 구시대적 전통을 이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 나쁜건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뜻 깊은 이벤트도 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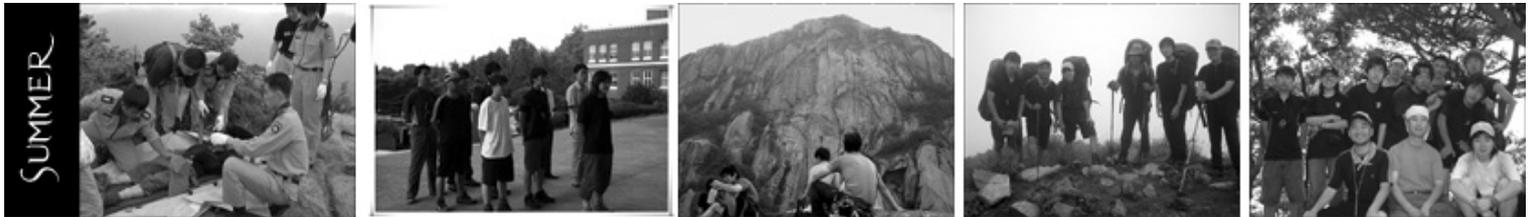
첫 종주 산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지나고 나니 이런 저런 할 얘기 많은 산행이었다. 당시엔 힘들었던 산행이 지금 나의 기억 속엔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PART I

夏

여름

- 하계장기등반 48기 정선영
- 하계장기등반 48기 이재국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하계장기등반

■ 48기 정선영

첫째 날

하계가 찾아 왔다. 형들과 언니들로부터 말로만 들어오던 그 하계... 처음부터 겁이 났다. 그 많은 먹을거리들과 텐트며 여러 물품들 그것을 겨우 몇 사람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부터가 나에게겐 두려움이었다. 춘계 때는 경은이 덕에 그나마 조금 덜 힘들었으나 이젠 내가 경은이 역을 맡아야 된다는 것도 걱정이 되었다. 어깨가 짓눌리고 팔 한 쪽에 피가 안 통하게 하는 배낭은 한숨이다. 형들의 배낭 무게에 비한다면 가볍지만 사람 개개인의 체력에는 각각의 맞는 정도가 있듯이 무게를 느끼는 것은 같았을 것이다.

첫날은 정말 잇을 수 없다. 그 산에 이름도 잇을 수 없다. <만복대>처음부터 백을 해서 출발부터 힘들었는데 이 만복대라는 산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그 길이가 대단했던 것 같다. 가도가도 길은 하늘로 향하고 있을 뿐 나에게 그 길은 계속 걸으라고만 한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있었다. 산을 오르면서 안되겠다고 소리치고 소리쳤다. 지금 생각나는 건 만복대를 오르며 끝도 없이 힘들어했던 생각뿐이다. 정령치에 다다랐을 땐 머리가 멍했다. 첫날 산행은 끝이지만 다음날은 어찌할까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정령치에선 선행이 형을 만나고 저녁식사 시간에 술도 한잔 마셨다. 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한잔에도 취기가 도는 듯 했다. 하계 내내 정말 그리웠던 맥주였다. 그렇게 밤 안개와 함께 정령치 그곳에서 첫째 날 잠을 이루었다.

둘째 날

다음날 아침부터 몸이 빠근했다. 매트리스 아래 돌이 있었다. 등허리가 좀 아팠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 갔다. 후에 보니까 던지고 했지만 온몸이 첫날에 피로를 다 풀지 못한 상태라 그곳을 신경 쓸 여유가 내겐 없었다. 지금 다친 부위엔 흉이 저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정령치 높은 곳에 광경은 유쾌. 상쾌. 통쾌!! 였다. 산 사이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꼬불꼬불 도로하며 산들 그리고 스르르 거치는 안개를 보며 언제 또 이런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며 아쉬워했다.

멋진 것은 멋진 것이고 갈 길은 가야한다. 시작부터 걱정되었다. 오늘은 또 어떤 산이 기다리려나, 지난 날 만복대의 악몽만은 재현되지 않길 바랐다. 둘째 날 기억에 남는 건 막영지를 찾아 내려오는 길에 한 발짝 딛을 때마다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내 입에서 박자에 맞춰 나온 것과 계속된 내리막길이 힘들어서 내질렀던 악-----소리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물보 터지듯 나와버린 눈물이다. 이 눈물은 현주형이 말했듯이 해냈다는 기쁨과 고생한 것에 대한 분함? 이었을 것이다. 돌아가서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다. 그때 참 엄마가 많이 생각났다. 이날은 꼬질꼬질함을 조금 벗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씻을 수 있는 물과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극적일 수도 있구나 새삼 느꼈다. 근데 그 극적인 만남은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3분 만에 머리 감고 씻기까지 했다. 텐트에 들어와서 보니 종아리에 흙들이 마저 씻기지 못해 아직도 그 자리를 꼬질꼬질하게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냈다. 난 큰 무언가를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세는 사람처럼 하루가 지남을 알뜰히 세고 있었다.

셋째 날

항상 그랬듯 힘들었다. 특히 잘 쉬고 난 뒤에 아침에 다시 산을 오르려하면 기름칠 못한 기계처럼 삐그덕 거렸다. 그래서 아침 댓바람부터 눈물 산행을 하였다. 나는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나와 싸우며 산행하고 있었다. 내가 힘들어하며 한숨인지 똥지 모를 신음을 토해 내니까 그 소리가 OB형들이 하모니카라고 하신다. 이거 참... 이를 딱 물고 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잘 되진 않았다. 내가 힘들어해서 형들이랑 재국이 짐을 나눠 매줬는데 눈물 날 정도로 미안했다. 가벼운 배낭이라 쉬고 싶어도 안 쉬고 계속 걸었다.

어떤 마을에 도착하였다. <아...사람들이 사는 물이 많은 곳> 목마르면 떠다 먹을 수 있는 물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분들이 부러웠다. 하계를 끝내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의 작은 것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많이 흐려진 것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씻을 수 있었다. 물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형들은 등목도 했다. 부러웠다.

그곳을 출발하여 도로를 만났다. 처음에 도보였으나 구보로 바뀌었다. 뜨거운 햇빛 아래 도로에서 구보를 하다보니 그 곳이 한중막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니 히치를 한다고 했다. ^_____^ 완전 좋았다. 우리는 히치해서 트럭을 타고 버스 정류장 있는 곳으로 가서 버스도 탔다. 버스를 타고 싱싱 달리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잠도 오고 해서 잤다. 하`그 단잠이란 자본 사람만 알 것이다.

우리는 도로가에 야트막한 곳에 막영지를 잡고 막영을 했다. 그렇게 이른 시간에 막영하기 처음이라 이상하기도 하고 시간을 많이 번 것 같아서 좋기도 했다. 밥을 지어먹고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 얘기를 했다. 정말 멋진 분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잠이 와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 지금 와서는 좀 아쉽다. 소나무 숲 막영지

에서 그렇게 또 하루가 갔다.

넷째 날

아침날씨가 참 좋았다. 능선위로 안개 바람 불어오는 봉화산은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곳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것이 그곳에서 살고 싶었다. 오전에는 해도 뜨지 않고 덥지 않은 좋은 날씨라 그럭저럭 산행을 따라갔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나자 잠이 왔다. 한잠 자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낮잠시간 없이 계속해서 산행을 했다. 그런데 머리가 멍해지면서 눈이 감기고 흐릿하게 보였다. 정신차리려고 볼도



잠에 미친 아이. 잠들다

꼬집고 했지만 눈꺼풀은 천근 만근이었다. 발걸음도 느려졌다. 두 발자국 떼고 나무하나 잡고 그러기를 반복했다. 찰거머리 같이 들러붙는 잠귀신이 온 것이다. 잠 아닌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내 몸이 어디에 부딪히든지 긁히든지 관여치 않았다. 아무튼 이 일로 형들이 매 타작 당하고 재국이도 맞고 우겨서 나도 맞았다. 그렇게 형들이 맞고 하는데도 계속 졸음이 몰려왔다. 정말 괴로웠다. 또 다시 걷다가 얼마안가 주저앉아 형들이랑 재국이 짐을 나눠줬던거 같다. 어디 평평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꽤 오래 잔 것 같았다. 일어나서 가방을 때보니 너무나 가벼워져 있었다. '잠에 미친 아이' 음음음 UU;;

결국 우리는 트레바스해서 중재에 도착했다. 어쩐지 오르막길이 없다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긴급공수 된 맥주를 비가 오는 관계로 텐트 속에서 먹게 되었다. 형들은 세상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다. 맥주 정말 맛있었다. 배부르지만 앓았으면 좋았으련만... 그곳에서 읊었던 하계시가 생각난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속내를 하계시가 대신 말하고 있었다. 넷째 날이 그렇게 갔다.

다섯째 날

이날 산행 길은 좋았다. 그런 길을 느긋하게 경치도 보아가며 걸었으면 오죽 좋았을까. 이날은 그 좋은 길을 이용한 빠센 속보 한판이 벌어졌다. 처음엔 좀 뛰다 말겠지 했는데 끝없이 뛰라고 쉬지 말고 뛰라고만 했다. 뛰고 또 뛰고. 지금 내 다리와 팔에 있는 상처에 90%는 그날 반바지 입고 잡목들 사이를 열심히 속보한 결과 일 것이다. 아침엔 비가 왔다. 하계를 시작하고 산행 중에 온 그런 비는 처음이라 반가웠다. 갈증으로 종주가 더욱 힘들게 느껴졌기에 이날만큼은 좀더 수월했다. 형들은 저체온증을 걱정하셨지만 난 그저 철없는 1학년으로 물 받아먹기에 급급했다. 비가 한번씩 후두둑 많이 떨어질 때면 나무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간 많은 양을 손에 담을 수도 있었다. 나는 가끔 그런 것을 찾아낼 때마다 더 빨리 한 발

짜 내딛었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재국이한테도 알려주었다.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기억되는 걸 보면 재국어도 꽤 목이 말랐었나보다. 쉼 때 잠깐씩 씹기도 했지만 물을 먹으려는 의욕이 앞서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깃대봉. 뽕센 능선 속보 뒤에 오르막길이었다. 형들과 재국이는 먼저가고 가영언니랑 둘이서 마지막 오르막길을 걸었다. 가영언니랑 그곳을 싸복싸복 걸어가는것도 기분좋은 일이었다. 비 온 뒤 흐릿한 날씨에 주위엔 온통 풀냄새였다. 풀냄새가 자꾸 코를 자극했다. 아주 신선한 향기였다. 비에 씻겨진 말끔한 나무처럼 내 기분도 그랬다.

깃대봉에 올라 잠깐을 쉬고 우리의 목적지 육십령에 도착했다. 그곳에 휴게소가 있다는 말에 상당히 기대했는데 기대이하였다. 물이 졸졸 나아서 씻는데도 한참 걸려서 애를 먹었다. 이 날은 주말이라 OB형들이 많이 오셨다. 가져오신 것으로 고기도 굽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술도 오가는 사이에 밤이 무르익었다. 나는 그 좋은 곳에서도 잠이 왔다. 산이 아닌 곳에서 씻기도 하고 좀 편해 지나가 더 쉬고 싶어졌다. 종주 중에 가장 길게 느껴졌던 오일째 산행은 이렇게 끝났다.

여섯째 날

육십령을 출발했다. 우선 오를 산은 할미봉. 이날도 난 아침부터 헤맸다. 응원 차 오신 OB형들도 많이 계신데 내 몸은 눈치도 없이 제대로 움직여 주질 않는다. 하-- 끝까지 그런 약한 모습만 보여서 마음이 썩 좋지 않았다. 할미봉 정상에 찍고 내리막길을 지났다. 줄을 잡아야 될 정도로 가파른 길이 었다. 그렇게 조심하며 내려가고 있는데 낙석으로 인해 가영언니와 효준형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순간에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효준형은 옆으로 팔을 싸 감고 넘어져 있고 언니는 쓰러져 무표정이 되어있었다. 형들이 많이 계셔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 하시고 구조 연락을 했다. 그렇게 두려웠던 시간이 지나갔다. 119구조대가 이곳 저곳에서 올라왔다. 그리고 상태가 위급한 가영언니를 어렵사리 헬기를 동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낙석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언니가 헬기로 운송될 때까지 보여준 형들의 행동들은 정말 믿음직스러웠다.

결국 우리는 할미봉에서 하산하여 종주를 끝마쳤다. 우리는 희영이 형을 만나 무주 리조트로 갔다. 희영이 형과 은옥이 언니의 배려로 우리는 그곳에서 깨끗이 씻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며 편히 쉴 수 있었다. 하계 종주를 하다 그런 곳에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좀 얼떨떨하긴 했지만 즐거운 한때였다.



씹히는 재X 땅콩

일곱째 날

동방에 잠깐 들렀다가 짐을 가지고 하계의 남은 일정인 월출산 암벽을 하기위해 영

암으로 내려와 야영지에 막영했다. 원래 계획과는 달랐다. 종주 때와는 다른 상황 다른 분위기다. 가영언니도 없다. 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잘 해내리라고 믿었다. 힘들고 열악했던 환경과는 달리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연 화장실이 아닌 진짜 화장실까지 너무 풍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리고 나에겐 식량 담당이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잘해 낼 수 있을까 많이 걱정스러웠다.

여덟째 날

예비일 이다. 형들에게 들은 바로는 동양화도 그리고 서양화도 그리고 낮잠도 잔다고 했는데 꿈은 산산이~~ 그날 빨래하고 매듭매기 한 뒤에 잔다고 10분 정도 누워 있었다. 이게 우리의 예비일 이었다.

오후가 되어 연시루봉 릿지를 했는데 좀 험한 종주 같았다. 연시루봉 정상에 올라 매봉을 바라보았다. 대단히 웅장해 보였다. 그런 곳도 오른다고 하여 좀 놀랬었다. 시루봉과 전남슬라브를 올랐다. 전남슬랩에서는 등산화로 올랐는데 진 꽤나 뻘뻘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전남슬랩을 나처럼 힘겹게 오른 사람이 있을까? 그 후로 전남슬랩에 갔을때도 그때에 나처럼 헤매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먼가 돌아오는 결과물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그 곳에서 나에게 슬랩은 난관 이었다. 재국이는 선등을 썼다. 자랑스럽다. 저녁에 재우형과 현식이형이 오셨다. 부식이 늘어났다. 식량담당인 나는 기분이 좋았다.

아홉째 날

<비가 온다. 내 머리 위에도 나뭇가지 위에도 비가 온다. 비 내리는 날씨는 구리다. 하늘을 올려다보기 어렵다.>

수직으로 뻗은 웅장한 자태, 악천후 속에서 암벽을 했다. 비오는 날씨에 이런 곳을 오를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내려갈 줄 알았다. 내가 산악회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보다. 그날도 어김없이 암벽타기를 감행했다.

코스를 3개로 잡고 등반하기 시작했다. 선등 선 형들 정말 대단하단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특히 성근형이 그러하다. '잘하시던 데요'하면 항상 '별로~~'하신다... UU;; 쑥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다. 현조형이 확보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됐다. 그 때에도 비는 우줄우줄 잘도 내리고 있었다. 나도 비오는 날 오르려니까 좀 떨렸는지 추워서 그랬는지 좀 으스스했다. 팔을 뻗어 바위를 잡고 오르면 물이 팔을 따라 줄줄 흐른다. 어렵사리 올라 잠깐 쉬었다. 그냥한번 훌러본 월출산 자락이 너무나 멋졌다. 비가 와서 뿌옇게 흩어진 물방울 사이로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해 있다. 이런걸 보여주려고 비오는 날에도 암벽한 걸까 하- 숨한번 크게 쉬어졌다.

재우형이 한번 슬랩을 먹기는 했지만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래서 모두 무사히 매봉을 마치고 내려오게 됐다. 내려오는 길에 트롤리안브릿지를 했다. 매봉을 오른 일이 어제같이 멀게 느껴졌다.

열흘 째

지나 놓고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간다. 그런데 그 시간을 감당할 때엔 느리고 힘들게 간다.

사자봉 릿지를 했다. 현조형 창균이 형 연주언니 효준형과 같은 팀이었다. 초입까지 갔는데 창균형이 겁주는 소리가 저녁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정말 발을 내딛기가 싫어졌다. 느리작거렸던 것 같다. 거기까지였다. 힘들고 싫었던 건, 본격적으로 사자봉 릿지를 시작하자 재미있었다. 이렇게도 올라가 보고 저렇게도 올라가 보고 올라갈 때마다 즐거웠다. 가는 중에 현조형이랑 아래 보면서 얘기도 하고 좀 힘들었지만 기분 좋았다. 모두들 잘하시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확보도 보지 않고 그냥 오르기만 해서 그리 힘든 것 없이 무난히 정상에 올랐다. 햇빛이 다가왔는데 그곳에서 끓여 먹는 라면도 맛있게 먹었다. ^^하- 기분 좋았다. 하산하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서는 부분이 있어 조금 힘들었다.

열하고도 첫째 날

월출산에는 모기가 참 많다. 설거지하고 나면 발목 주위가 쑥대밭이다. 내가 그곳에서 모기 몇 백 마리는 먹여 살리지 않았을까 한다.

이날은 형제봉 릿지를 하러 갔다. 그런데 어찌다가 형제봉 바위로 변경되어 이루어졌다. 창균이형과 장민이형 효준형이랑 같이 갔는데 형들도 어려워했다. 이날 햇빛도 다가왔는데 선등 선 형들 바위에 땀 좀 흘리셨을 것이다. 내가 후등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잡고 올라갈 데가 없었다. 후- 정말 매끈한 바위였다. 손바닥에 땀이 비질비질 나고 햇볕으로 데워진 바위에서 또 한번 열기가 후끈했다. 정말 어딜 잡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땐 숨이 막혔다. 하강하고나서 다시 올라갈 준비하라고 했을 땐 하- 정말 그 상태에서 바위 오를 때 숨막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간식을 먹고 다시 출발했다. 창균이 형이 확보 보는 지점까지 거의 다 올라가니깐 형이 내가 씹고 있는 껌을 보면서 몇 마디 하셨다. 간식 먹을 때 씹고서 깜박 잊고 안 빨고 온 건데 절대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2피치까지 올라 하강했다. 완만해 보이던 2피치 까지가 좀 까리했다.

시루봉 야바위하던 마지막 산행

야바위를 한다고 했다.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낮에도 어려운데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거리감도 잘 느껴지지 않을 텐데. 형들이 긴장하라고 경직된 표정으로 말하셨다. 내 차례가 되어 올라갈 때 나름대로 여기 저기 보면서 짙을 곳을 찾고 진지하게 했다. 저녁이라 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웠다. 무사히 야바위를 마치고 음식을 먹었다. 수박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다. 그런걸 누가 다 들고 오셨는지 OB형들이 뭐 안 들고 오는 것 같아도 배낭 안은 완전 냉장고인 것 같았다. 하하 즐거웠다. 주말이라 서울에서 영암까지 또 내려오신 지환이 형도 계시고 OB형들과 언니들까지 많은 사람이 그 곳에 있었다. 시루봉아래

시루봉아래서 처음으로 비박을 했는데 월출산 모기들이 겨우 자리 잡고 누우니깐 웅 웅거리고 돌아다녔다. 누워서 있으니깐 시루봉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별도 초롱초롱 한 것이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잘 자는데 나랑 지환이형 재국이랑 새벽까지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새벽에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었다. 하- 첫 비박은 나에게 수많은 모기 물린 자국을 남겼다.



하계 마지막 YB 총집합 ...

하계가 끝이 났다.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다짐을 했는지 모른다. 우선 씻을 수 있다는 것, 잠을 많이 잘 수 있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하계가 끝이 난 것이 신기했다.

하계를 다녀와서 생각해 보면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미안했던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항상 나 혼자 뒤쳐지고 퍼져서 계획대로 못 가고, 종주 중에 양치하고 싶다고 하고 잠 온다고 하고. 훗 내가 불만

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그래도 도중에 귀찮다고 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하계장기등반

■ 48기 이재국

6월 28일 월

고대하던(?) 하계장기등반을 가게 되었다. 종주만 일주일, 암벽 역시 일주일. 이렇게 긴 산행은 처음이었고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다.

아침부터 동방에 모여 잔일을 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후 형들 차를 타고 종주 출발지인 성삼재로 향했다. 중간에 구례구역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음식을 몇 주 동안 구경도 못한다고 생각하니 입으론 맛있게 들어가면서도 마음은 착잡했다.



발대식. 이때는 마냥 웃었다

성삼재 휴게소에 올라서서 출발 기념 사진을 한방 찍고 수통에 물을 채우고 드디어 하계장기산행 일주일간의 종주 첫 발을 디뎠다. 흥분과 긴장, 만감이 교차되는 순간-- 힘들 것 같으면서도 재밌을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우면서도 하계는 어떨까 궁금했다.

처음엔 성삼재에서 시작하는 도로를 따라 쪽 내려갔다. 내려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쉼터가 나왔다. 만복대로 가는 길을 지나쳤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다. 시작하자마자 뒤로- 다시 성삼재 근처로 가서 만복대까지 갔다.

첫 출발이라 다리가 물에 잠긴 듯 무거웠다.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은 하계에 온 것을 후회되게 생각했다. 만복대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길, 정말 끝이 없게 느껴졌다(하지만 땅끝기맥에 비해 역시 길은 좋았다). 약간 깜깜해졌을 무렵 만복대에 도착해서 이어지는 길로 정령치까지 갔다. 표시판에 분명 2km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걸 도저히 2km의 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가는 길에 무릎까지 다치고 지쳐만 갔다. 그러던 중 저녁 늦게서야 정령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선행 형이 기다리고 계셨다. 맥주 한 박스를 들고... 게다가 시원했다! 힘든 산행 후, 목을 넘어가는 시원한 맥주

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날 저녁 아주 깊게 잠이 들었다.

6월 29일 화

아침엔 이를 닦을 수 있었다. 춘계 때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상쾌한 출발을 예감했다. 다들 사기 충전이 되어있는지 가볍게 고리봉을 점령하고 쪽 마을까지 내려왔다. 도로를 타고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햄을 송송 썰어 넣은 라면을 먹고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주어진 시간은 몇 십 분에 불과하지만 역시나 좋았다. 점심 먹은 뒤처리를 하고 나니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눈을 붙이고 한숨 폭- 잤다. 마치 한 시간은 잠들었던 기분이었다. 꿀맛같은 낮잠을 뒤로 하고 다시금 목적지로 향했다. 힘들었지만 역시 첫째 날 보다는 좋았다. 막영지에 거의 도착할 때 쯤 내 앞에 있던 선영이가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폭주해서 무지 빠른 속도로 거의 달려나갔다. 난 정말 지쳐서 게다가 내리막길이라 발걸음 떼는게 힘들었는데 선영이 뒤를 쫓아가려느라 혼이 났다.

산을 내려오니 마을이 보이고 여원암 근처에서 막영을 했다. 막영하는 중 장민 형이 중간에 합류했다. 민가가 근처에 있어서 물도 뜨고 씻을 수도 있었다. 물이 있어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었다.

6월 30일 수

드디어 하계 3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정말 고비였다. 아침부터 몸도 안풀린 듯 다리가 무거웠다. 선영이도 컨디션이 안좋았는지 산행이 힘들어 보였다. 오르막길을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이마에서 쏟아지는 땀은 눈으로 들어가고 안경에 맺혔다. 10분간 휴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가. 머리 속에 계속 맴돌았다.

오후가 되고 나서야 마을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산행 중 최고조로 힘들었던 산행을 마치고 마을을 보니 와- 마음이 탁 트였다.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점심 먹기 좋은 장소를 찾았고, 그곳은 마을회관 앞이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마을회관 물을 이용해 영필 형이 등목을 해주셨는데 몸에 묶은 때가 씻겨가는 그 느낌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씻을 수 있다는 행복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날 라면은 왜 그렇게도 맛이 있던지. 마을에서 사온 시원한 막걸리 한잔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산행에 돌입했다.

도로를 좀 걸다가 히치를 하게 되었는데 용달차 뒤에 타보긴 또 처음이었다. 쏟아지는 바람의 시원함보다 그 무엇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차의 속도감이 더욱 시원했다.

또 이젠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콜라랑 환타를 마셨는데 그게 또 죽음이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또 히치를 하고... 오전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후엔 그야말로 황금같은 시간을 가졌다. 반나절 예비일이라나

막영지에 도착하고 나서 저녁 준비를 위해 효준 형과 물을 뜨러 갔다. 가다보면 절이 있다길래 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민가가 보이길래 다시 민가로 향했다. 응? 웬 비석같이 세워진 나무에 하얗게 종이같은걸로 싸둔게 수십개 씩 세워져 있었다. 효준 형이 먼저 뭘까 하고 지나가는데 알고보니 양봉하는 벌집이었다.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는데도 벌이 막 달려드는데, 효준 형이 외치는 '뛰어!'라는 말에 무작정 뒤로 막 달렸다. 그렇게 몇 십 미터 달리고 나니 차츰 달려드는 벌들도 사라지고, 다행히 처음부터 쫓아오는 벌이 없었다. 효준 형이 벌한테 두 방 물리고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밤 늦겐 나무에 앉아서 모닥불을 피웠다.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며 나눠마시는 술 한잔에 형들의 노래소리는 하나의 낭만이였다.

7월 1일 목

출발부터 날씨가 마냥 좋았다. 자욱히 깔린 안개가 바람에 날리는 그런 시원한 날씨. 힘들면서도 땀 한방울 식힐 수 있는 바람 때문에 발걸음이 자연스레 빨라진다. 어제 반나절을 쉬어서 그런지 몸도 상쾌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좀 가다가 선영이가 잠이 온다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산행을 하면 잠이야 깨겠지 하면서 부추기며 갔는데 아주 못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다. 분위기는 험악해지면서도 기어이 쏟아지는 잠을 못 이겼는지 맞아 가면서 까지 졸립다는 외침을 그치지 않았다. 보다못한 오비 형들이 잠을 채우자고 결정을 내리고 평평한 길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눕혔다. 선영이가 자면서 얼마나 흘렀을까, 꽤 오랫동안 휴식시간을 가지는 동안 물이 없어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했다. 얼마나 처량한가. 식수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았다.

선영이가 잠이 깨자 곧 오늘 막영지로 향했다. 꽤 걸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중재에 도착했다. 중재에 도착하니 민박집 간판이 두 개 걸려 있었다. 그 중 한곳에 맥주를 마을에서 사다 배달시켜 달라고 하니 거절을 했고, 나머지 한 곳은 승낙을 해서 저녁 늦게서야 조출한 안주와 함께 힘든 산행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다.

7월 2일 금

종주 산행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다. 아침부터 출발 시간에 2분 늦어 기합을 받고 출발 했다. 얼마 전부터 꾸물꾸물하던 날씨가 드디어 오늘 비로 쏟아졌다. 목도 마른데 잘됐다 하면서 시원하게 비를 맞이했다. 나무를 타고 흘러 내리는 빗물을 훌쩍훌

짜 마셔가기도 하고 앞에 가는 선영이한테 빗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으면 알려 주라고 부탁도 했다. 갈증은 없었는데 문제는 추위였다. 몸이 젖고 자켓을 입고 있으니 산행할 땐 덥고 휴식 시간엔 춥고.

그래도 비가 오후 썸 되자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빗물에 섞인 라면을 먹고 오늘 막영지인 육십령을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육십령까지 가는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아서 야간산행까지 해야 한다고 형들이 말했다. 그러자 우리는 달렸다. 엄청 긴 능선길이라 달리기도 이처럼 좋을 수 없었다. 생각해보면 길이 좋으면 속보를 해야하니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뒤에서 효준 형이 외치는 속보! 소리와 앞으로 밀착! 소리는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됐다. 아, 얼마간 달리면 그만하겠지 하겠지 하는게 벌써 한시간이 넘고 들쭉이는 배낭은 어깨를 아주 짓이겼다. 육십령 가는 코스 전에 마지막 봉우리인 깃대봉, 그 깃대봉이 보이기 시작했다. 봉우리가 나타난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봉우리가 보이면 금방 오를 수 있는게 아닌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발걸음은 한층 가볍게 느낄 수 있었다. 깃대봉에 올라서 쪽 하산 하는 길을 따라 오후 6시 즈음 해서 육십령에 도착했다. 야간산행까지 해야 한다는 당초 예상을 깨고 이른 쾌거(?)였다.

육십령에 휴게소가 있었고, 2층 짜리 팔각정이 있어서 팔각정에다 텐트를 쳤다. 비에 젖은 옷도 말리고 찢끔찢끔 나오는 물로 씻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 늦게 오비 형들이 많이 오셨다. 역시 형들이 오시니 먹을게 많이도 붙어났다. 지환 형이 사오신 아이스크림은 다 녹았었지만 그래도 속세(?)의 맛을 한번 더 느껴 보게끔 했다.

7월 3일 토

잠에서 깨니 안경이 깨져 있었다. 아무것도 안보였다. 어지럽고 무지 답답한 그 기분, 안경 쓴 사람은 알 것이다. 그래도 오늘은 종주 마지막 날이었다. 끝이다. 끝이라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육십령에서 출발해서 할미봉까지 가는데 바위가 꽤 많았다. 계속 되는 오르막길에서 할미봉을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는데 이 길이 상당히 가파르고 바위로 되어 있어서 설치된 로프가 없으면 못내려 갈 정도였다. 줄줄이 로프 있는 곳에서 한명 한명 내려가는데 순간 낙석! 이라고 외치는 지환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를 돌아봤다. 난생 처음보는 커다란 낙석이였다. 그 커다란 낙석이 지환 형의 머리 위로 쓱 지나갔다. 순간이였다. 비명과 함께 가영 누나와 효준 형이 쓰러진 것이였다. 낙석은 둘로 쪼개져 하나는 내 팔을 스쳐갔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졌다. 긴박한 상황이였다. 가영 누나가 낙석을 머리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혼란스럽고 당황했다. 많이 놀랐는지 선영이는 눈물까지 흘렸다. 일단 상황이 진정되자 그 장소를 피해 평탄한 쪽으로 이동했다. 분명 헬기를 불러야 할 상황이였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못해 헬기는 뜨지 못한다고 했다. 시비가 계속 되면서 날씨가 약



할미봉 낙석사고.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간씩 개었다. 마치 우리를 위해서 날씨가 순간 개인 듯 했다. 몇 시간 후에 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구조대가 오고 헬기를 태워 가영 누나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효준 형은 팔을 맞았지만 다행히 타박상으로 끝났던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행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형들이 논의했다. 합의된 바로는 하산이었다. 2시간 정도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아 그

리고 가영 누나를 맞힌 돌은 장민 형이 직접 배낭에 넣고 하산하셨다. 엄청 무거웠을 텐데.

다시금 육십령에 내려오니 희영 형께서 차를 대기 시켜 놓고 계셨다. 우리는 희영 형이 주신 시원한 냉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차를 타고 무주로 갔다. 가는 동안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커다란 나무들이 흔들거리고 물은 넘쳐났다. 하산을 결정했다는 것이 천만 다행이었다. 무주에 도착해서 희영 형이 체크인 해둔 숙소로 들어갔다. 침대와 티비, 주방이 있고 욕실까지 있었다. 일단 씻고 빨래를 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밖에 나가서 했다. 숙소로 돌아와서 역시나 술자리가 이어졌다. 삼겹살을 굽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일단 좋았던 것은 형들이 뭐든 해줬다는 것이다. 고기 굽는 일이나 잔심부름, 언제나 따까리를 해와서 몰랐는데 따까리를 안하고 받아만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편할 수 없었다.

드디어 종주는 끝이 났다.

7월 4일 일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오늘로써 실컷 풀어버리게끔 잠을 편안히 잤다. 아침에 먹은 희영 형이 손수 해주신 김치찌개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된장으로 간을 맞춘 비결이 있었다.

형들의 논의 끝에 원래 암벽 예정지가 고창 선운산에서 월출산으로 바뀌었다. 무주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나주로 가서 가영 누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들렀다. 머리엔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다. 다시 나주에서 영암으로 가서 월출산 야영장에 막영을 했다. 현조 형께서 합류하시고 성근 형이 임시 대장이 되었다. 성근이형은 또 쑥스러워한다. 나는 장비를 담당하고 되었고 선영이는 식량을 맡았다.

7월 5일 월

예비일인 오늘은 아침 7시에 기상했다. 슬슬 밥을 먹고 나니 날씨가 좋아져서 빨래를 말리고 장민 형께 여러 가지 매듭법을 배웠다. 날씨도 좋고 시간도 있으니 나른하게 오전을 보냈다.

오후가 되어서 연시루봉 텃지를 하러 갔다. 텃지는 처음이었다. 연시루봉을 오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초입까지 가는게 더 힘들었다. 연시루봉을 올라서 매봉을 바라보면서 현조 형이 코스를 설명해 주시는데 저길 어떻게 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산 길에 나는 시루봉, 선영이는 전남 슬랩을 올랐다. B 코스를 오르는데 몇 번 후등으로 서보고 처음으로 선등을 서보았다. 뭐랄까, 약간의 스틸이 있었다고 할까 아무튼 이후로 선등을 서는 형들이 대단해보였다.



연시루봉에서 매봉을 마주보며

저녁엔 재우형이 장비와 부식을 많이 챙겨 오셨다. 덕분에 그 날 저녁엔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늦게서야 내일 시루봉 갈 장비를 준비하고 잠에 들 수 있었다.

7월 6일 화

시루봉을 오르는 날이다. 오늘은 엄청 피곤했다. 잠도 충분히 잔 듯 싶는데 시루봉까지 올라서는데도 눈이 가물가물 했다. 일단 2조로 나뉘어서 올랐는데 우리 조는 A 코스를 오르기로 했다. 침엔 내가 선등으로 올랐는데 어렵긴 어렵고 피곤까지 겹쳐 대기를 외쳐놓고 코스를 연구하는 척 위를 쳐다보면서 1분간 꾸벅 몰래 즐기도 했다. 결국 포기하고 장민 형이 선등으로 3피치까지 올랐다.

우리가 오르는 동안 현주 누나와 아현이가 합류했다. 아현이 얼굴을 보니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는게 눈으로 보였다. 이 날은 시루봉 뒷벽도 올랐는데 짧은 코스라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다. 현조 형이 하는 말이 나는 암벽할 때 발이 11자로 딛는 버릇이 안됐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연습으로 검정 슬랩을 트랙타로 오르기를 수차례, 그리고 전남 슬랩도 트랙타로 오르는데 정말 찢이 다 빠진 기분이었다. 딛고 딛고 미끌어지기 전에 딛고 하는게 자일을 당겨주는데도 힘들었다.

오늘 저녁엔 특별히 백숙으로 외식을 했다.

7월 7일 수

수상쩍던 날씨가 드디어 비를 뿌렸다. 비가 적당히 오는게 아니라 꽤 쏟아진 것이다. 설마 이런 날씨에도 바위를 하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강행군이였다. 상식적으로 산악회를 이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번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오늘 코스는 매봉. 비 때문에 형들이 선등 오르는데 기다리는 동안 몸이 덜덜 떨렸다. 이럴 땐 역시 기합이 따라온다. 형들 모두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도 잘 올랐다. 재우 형은 떨어졌다. 특히 현조 형이 오르는데 정말 대단해 보였다. 우리 1학년들은 모두 현조 형이 깔아놓은 자일로 올랐다. 크랙이 있는 코스였는데 손을 한번 한번 뺨을 때마다 비가 팔을 타고 줄 흘렀다. 크랙 사이로 물이 타고 내려오니 이건 완전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기분이었다. 뒤로 보이는 월출산에 자욱히 깔린 안개 또한 일품이었다.

빗물을 받아서 끓인 라면을 한껏 먹고 트롤리안 브릿지를 하러 천왕사 계곡으로 갔다. 길을 잘못 들어 바람 폭포까지 올라섰다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같은 길을 3번을 돌레돌레 한 것이다. 조금 지체는 됐어도 트롤리안 브릿지를 했다. 형들이 자일 까는 동안 앉아서 놀고 있으니 편하고 좋았다.

저녁엔 현식 형이 통닭을 갖고 오셔서 맥주와 함께 실컷 먹었다. 웬지 길게만 느껴지는 하루였다.

7월 8일 목

오늘은 형제봉 릿지를 가는 날이다. 두 팀으로 나뉘어 또 다른 한 조는 사자봉 릿지를 갔다.

아침에 우리들이 일찍 일어나지 못해 아침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수프를 끓여서 죽같이 떠먹었다-_- . 솔직히 수프 양도 적고 배가 부를리도 없었다. 덕분에 현조 형한테 아침부터 한 소리 들었다.

그렇게 끓은 배를 움켜잡고 형제봉 초입까지 가는데 휴식령이라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덕분에 길이 좋지 못했고, 시간도 많이 지체됐다. 월출산 암벽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데 초입까지 가는게 정말 힘들다. 그렇게 초입에 다다르자마자 굶었던 속을 채우기 위해 간식을 풀어 헤치고 먹기 시작했다.

형제봉은 전에 했던 연시루봉과 달랐다. 꽤 난해한 암벽코스들이 있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걸기만 해야하는 종주나 질질 땀뻘뻘 하면서 암벽에만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암벽등반 보다도 릿지가 재밌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사자봉이 보였다. 사자봉 팀과 알

핀 소리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다. 그렇게 멀리 있는 봉우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루봉에서만 보던 영암이 아닌 새로운 각도로 월출산을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7월 9일 금

어제에 이은 텃지다. 우리 팀은 사자봉에 가기로 되었다. 사자봉은 형제봉보다 암벽 코스가 더 어려웠다. 침니 구간이 많이 있어서 몸을 부비적 대다 보니 멍든 곳이 몇 군데 남아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는데 고도감이 상당했다. 오늘도 역시 성근 형이 선등을 썼는데 정말 잘 올라갔다.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살기 위해' 올라설 수밖에 없는 성근 형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사자봉에 늦게서야 올라서고 하강하는데 하강 코스가 상당히 길었다. 두 번에 걸쳐 하강하는데 손이 뜨겁고 잔 낙석이 많이 떨어져서 꽤 위험했다. 하강을 하니 하산하는게 또 문제였다. 무릎도 안 좋았고 그 먼 길을 하산하려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날이 어둡해져서야 겨우 하산을 했다.

7월 10일 토

드디어 시간이 하계의 끝을 달리고 있었다. 벌써? 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안가던 종주에 비해 암벽할 땐 시간이 꽤나 빨리 간 기분이었다.

오늘은 야바위를 남겨두고 있었다. 낮에 가볍게(?) 시루봉 3피치까지 갔다 내려와서 저녁에 시루봉에서 야바위를 하게 되었다. 랜턴 불빛에 의존해서 좁은 시야로 암벽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했다. 그런 긴장감이 집중력을 더욱 높여주었던 것 같다.

월출산에 모기가 많은줄은 알았는데 저녁에 암벽을 하니 모기가 갑절은 늘어난 듯했다. 무방비로 노출되니 물리기는 많이도 물렸다. 야바위를 하고 있는 동안 지환 형과 군대에서 휴가나온 용주 형이 시루봉까지 찾아 오셨다. 지환 형은 저번 주말에도 오셨으면서 또 오신 것이다. 용주 형은 휴가인데도 이렇게 하계에 찾아 오셨다. 야바위는 1피치까지 B 코스와 공전길만 오르고 하계 마지막 밤을 역시 술로 장식했다. 수박 통에 소주를 부어 마시니 그것도 별미였다. 그리곤 비박을 했다. 춥지는 않았는데 그 놈의 모기가 웅웁 거리는데 지환 형, 선영이, 나는 잠도 못자고 몇 시간을 뒤척였다. 모기향을 머리 끝에 세 개, 다리 끝에 세 개를 깔고 지환 형이 모기 약을 뿌려대는데도 그 독한 모기는 계속 웅웁 거렸다. 저 멀리서 비박하던 재우 형은 가끔 모기 때문에 욕을 퍼부어댔다. 으악~ 진짜 모기, 이놈의 모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잠을 웅웁 거리는 환청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다. 그렇게 하계 마지막 밤을 지새웠다.

7월 11일 일

그렇게 잠을 설치고 2시간만 눈 붙이고 내려왔는데, 정말 피곤했다. 그래도 하계가 끝이라는 마음에 푸근했다. 아침 식사는 재우 형이 해주셨는데 메뉴는 백숙이었다. 1학년들이 다리를 닭다리를 하나씩 집어들었는데 선영이랑 아현이 다리는 핏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쩐지 다들 식욕이 없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 식욕보단 맛이 없었던 것 같다. 오후엔 온천에 가서 몸을 씻었다. 2주간 땀에 절인 목은 몸을 탕에 담그고 한숨 푹 자니 다시 태어난 듯 시원했다.

하계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들었던지 모른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걷는지 기억조차 안난다. 그토록 안가던 2주란 시간이 드디어 시원스럽게 흘러 가버리고 이젠 하계를 끝마쳤다. 정말 바쁘신데 함께 산행해 주시고 찾아주신 OB YB 형들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나도 선배가 된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고 나니 재밌었던 추억이 되어버린 하계였다.

PART I

秋

가을

- 새인봉 개강등반 48기 정선영
- 새인봉 개강등반 48기 이재국
- 전남북대합동등반 48기 정선영
- 추계 훈련등반 48기 이재국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새인봉 개강등반

■ 48기 정선영

1학기 종강등반을 새인봉으로 갔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대로 내려왔었다. 그날은 비도 오고 후덥지근해서 올라가는데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이번에 새인봉 개강등반은 그때 보다는 고대지 않았다. 날씨도 꾸물거리는 것이 괜찮았다. 종강등반때는 내가 지각을 하는 바람에 시간을 늦추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각하지 않았다.(^_^)V 올라가는 동안 헉헉대기는 했어도 쉬고 싶은 마음을 꼭 누르면서 새인봉에 까지 무사히 올랐다. 하~

보건대랑 조대가 일찍 자일 깔고 등반 중이 었다. 막 도착했을 때 조대에 정규형이 마침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마지막 발을 딛고 있었다. 하 참 멋있고 부러운 모습이였다.

잠깐 벨트도 착용하고 한 숨 돌린 후 등반을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직벽을 올랐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그러저러 올랐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말 애먹었다. 옆에 시라소니를 오르고 있는 재국이도 자꾸 대기하는 걸 보니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다. 어찌어찌해서 직벽을 올랐고.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시라소니 오를 때였다. 길이는 짧은데 잡는데가 미세하고 자세도 나오지 않아 그곳에서 꽤 많이 대기했다. 직등 해버리기도 뭐하고 옆으로 가자니 손도 안 닿을 것 같고 계속된 시도에도 주르륵 미끄러지기만 했다. 팔과 다리에 힘도 실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오르려고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뭐하고 있나 싶었다. 결국 가영 언니가 코치해 준 대로 올라 끝을 맺을 수 있었지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새인봉 암벽이였다. 절대 안 될 거 같았던 것이 되니까 아주 흐뭇했다. 성근형이 직벽에서 선등스느라 바위와 싸움하고 있을 때 나는 옆에 슬랩을 올랐다. 보기와는 달리 딛을 때가 많아서 안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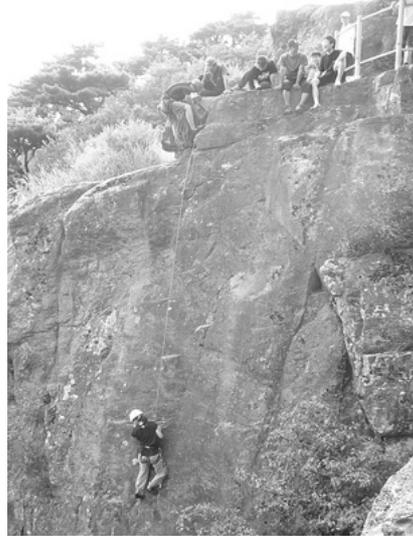
점심시간이다. 배도 고프고 한테 김밥보다는 우유랑 물에 손이 많이 간다. 먹어도 먹어도 물이 고프다.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는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다. 따끔거리는 햇빛을 등지고 다이렉트 길을 오르기 위해 하강하였다. 언니의 조언대로 올라올 길을 보면서 내려가는데 이거 참 어떻게 올라 갈까 막막하였다.

내려와서 위를 쪽 올려다 보니까 갑자기 잠이 온다...—; 성근형은 확보 준비완료라고 외치는데 나는 출발보고 하기가 무서웠다. 숨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그냥 맘 좋게 먹고 올라가기로 했다. 한 발짝 씩 조금 오버 진 곳 아래까지 왔다. 그곳이 난관이였다. 오르려다가 한 열번 미끄러지니까 올라가고 싶은 의욕이 조금 시들했다. 그곳에서 출발. 슬립. 대기를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하- 완전 늑같이 느껴졌다. 점점 힘

만 빠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대기만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바위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재국이도 뭐가 되지 않는지 가영언니가 이리저리 해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르려니 참 이상했다. 계속 있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벨트가 조이는 부분만 아파왔다. 목도 타고 정말 탈출하고 싶었다. 난 지금도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주르륵주르륵 슬립... 결국 성근이형이랑 조대 형들이 힘 좀 쓰셨다. 탈출할 수 있게되어 기뻐지만 왠지 찝찝한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다이렉트길을 마쳤다. 올라와 보니 나보다 성근형이 땀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 오랜 시간 대기를 하고 했으니.



새인봉 다이렉트

우리는 조대랑 같이 하산하였다. 천천히 걸어서 내려왔다. 아래서 연주언니가 사주신 아이스크림 정말 시원했다.

저녁엔 정국이 형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가볍게 술도 마셨다. 편안하게 산행을 마무리했다.

새인봉 개강등반

■ 48기 이재국

2학기를 시작하는 개강등반을 다녀왔다. 코스는 무등산 새인봉. 말로만 들었지 직접 가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아침 9시에 증심사에서 만나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갔다. 한시간 쯤 걸어 올라가니 새인봉이 나왔다. 탁트인 전망에 깎아지른 암벽이 줄을 서 있었다.

인원은 네 명, 가영 누나, 성근이형, 선영이, 그리고 나였지만 새인봉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다. 일단 조대와 보건대가 어제부터 새인봉을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걸 구경하는 등산객이 꽤 많았다. 마치 쇼하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침엔 시라소니를 올랐는데 몇 발자국 던지면 올라설 수 있을 거리라 우습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좀 올라서니 코스가 난해한 코스가 나왔다. 여러 번의 시도에도 안 되고 오른쪽 코스도 봐보고 했는데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홀드도 마땅히 좋은 데가 없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지체되는 동안 직벽을 오르던 선영이는 어느새 저만치가 가까이 올라와 있었다. 가영 누나는 선영이가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라고 보챘다. 어떻게 해서 자세를 잡아보니 대충 홀드를 잡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을 수 있었다. 휴, 진땀빼고 마시는 물은 역시 좋았다.

어디 쉬고 있을 틈이 있겠는가 선영이가 올라오자마자 직벽을 성근이형 선등서는데 확보를 봐야 했다. 시라소니의 두배쯤은 되는 길이에 이름대로 직벽이었다.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오늘 분명 슬립할거라면서 투덜거리며 성근이 형이 올라섰다. 역시 확보보는 것도 여간 힘든게 아니었다. 계속 위를 바라보고 있어야 했고, 자리가 좁아 서있기도 불편했다. 성근이 형이 대기를 외치면 동시에 나도 대기 상태가 되었다. 빠른 목을 풀고 다리도 풀었다. 성근이 형이 마지막 난코스에 다달았지만, 계속 슬립만 외쳤다. 결국 조대 수광이 형이 그 코스 오르는 법을 직접 보여주기에 나섰다. 그렇지만 수광이 형도 잘 되지 않았다-- 정규형까지 나서 몸소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성근이 형은 직벽을 오를 수 있었다. 성근이 형이 그렇게 애먹은건 처음 보았다. 후등으로 내가 올라야 하는데 시간이 점심 먹을때라 일단 슬랩으로 올라가서 밥을 먹었다.

점심먹고 다시 하강, 나는 직벽을 올랐고 선영이는 다이렉트2를 올랐다. 다이렉트2는 직벽보다 더 긴 코스에 이것 역시 이름대로 다이렉트 였다. 직벽을 오르는데 시간이 몇 시 쯤 되었을까, 햇별이 따가웠다. 태양이 그대로 직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도 왼쪽 반쯤 정도는 그늘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햇별이 닿는 코스로 가면 손이고 팔

이고 땀이 주르륵 흘렀다. 역시 아까 성근이 형이 지체한 마지막 지점에 오니 어떻게 올라가기가 힘들었다. 정규 형이 갈쳐준대로 해봐도 자꾸만 미끄러졌고, 그냥 되는대로 크랙에 막 끼어넣고 죽을 힘을 다해 올랐다. 그러기를 여러 번, 많은 시도 끝에 커다란 바위 속에 좋은 홀드를 잡고 정상에 올라 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바위는 주로 월출산에서 했었는데 월출산과는 사뭇 다른 새인봉 바위였다. 일단 바위의 각도가 수직에 가까웠고 때문에 난이도도 더 높았다. 어렵게 바위를 끝내고 그 날 저녁 정국이 형 댁에서 맛있는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전남북대 합동등반

■ 48기 정선영

전남북대가 일년에 한번 갖는 연례행사라고 한다. 이번 합동등반은 우리쪽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먹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먹거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해물탕”이 것 하나로도 음식에 화려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꽃게, 조개 등등이 들어간다. 해물탕을 맛있게 끓이려면 그 맛도 알아야 하는 법, 해물탕집에 가서 해물탕을 시식하기도 하는 많은 노력을 쏟았다. 성근형이 사정상 못가는 관계로 재국이와 함께 챙겼는데 앞번에 선배님들이 기록해둔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준비를 마치고 배낭을 썼다. 하- 근데 내 배낭은 하늘 놓은줄 모르고 올라온다 악돌이 (산지 중 만화) 보니까 배낭을 잘 꾸리려면 수 백 번은 싸 봐야 한다고 하는데 난 정말 많이 떨었나 보다.

음, 오랜만에 매보는 무거운 배낭이 어깨를 짓누른다 이번에 임시총무를 맡아서 정신이 없다. 표를 끊고 야영비를 내고 여태까지 그냥 잘 쫓아 다니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나 보다.

터미널에서 전북대 산악회 사람들을 만났다. 용석이형, 명옥이 언니, 청운이 인철이 영식이(성은 잘 생각나지 않군요) 가영언니가 인사 하라고 하는데 좀 많이 서먹서먹하여 인사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 어색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영암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에 올라 자리를 잡는데 너도 나도 따로 앉는다. 정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무슨 편가르고 싸운것도 아닌데, 결국 나도 혼자 자리를 잡았다. 늦게 도착한 지순언니까지 합류하여 영암으로 출발. 한시간 반 가량 차를 타서 월출산이 펼쳐진 영암에 도착했다. 터미널에서 기념사진 찰카하고 나서 야영장으로 향했다.

아~춘계때 야영장까지 걸어가느라 땀좀 흘렸던게 기억나서 어떻게 걸어갈까 막막했다. 속으론 체념상태였다. -걷다보면 도착해 있겠지- 그런데 한 30m쯤 걸었을까 저기 뒤쪽에서 트럭차 소리가 들린다. 완전히 걸어버리지는 못 했던 히치에 대한 희망이 다시금 고개 들어서 뒤를 돌아보게 한다. 그냥 한번 쳐다보았는데 고맙게도 멈추어준다. 그 때에 감동이란다. 그 차를 태워주신 분은 우리를 위한 천사가 아니었을까 한다. 하하 정말 우리가 히치를 하나보다. 완전 체념했다시피 했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기쁨은 두배였다. 지순언니랑 가영언니는 내눈빛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세워 줬겠냐며 웃었지만 난 그저 월출산 자락에 사시는 분이 우리 배낭과 그것을 짊어진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태워주신게 아닌가 생각한다. 하하

아무튼 야영장에 쉽게 도착했다.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하는데 반 이상이 먹을 거

다. 재국이와 같이 카고백을 들고 왔었는데 그 속에도 역시 온통 먹을 거다 하하. 그게 모두 지금 나에 피와 살을 만들었다는걸 요즘와서 부쩍 통통해진 볼을 보며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우선 텐트를 친 뒤 시루봉 암벽을 하기 위해 짐을 꾸려 산을 올랐다. 아, 시루봉 한 주 전에도 왔던 곳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눈에 익은 곳이다. 전남대와 북대를 섞어서 조를 편성했다. 우리조는 용석이형 명옥이 언니 청운이 인철이 그리고 나 였다. 우리는 서로 돌아가면서 선등을 썼다. 씩씩거리면서 선등을 스고 행동과 풍기는 면이 완전 산사람같은 청운이도 처음인 시루봉을 잘 올랐고 용석이 형도 튼튼한 팔다리 만큼 잘 했다.

근데 내가 전북대와 우리에 보고할 때 용어가 달라서 한 박자 늦게 알아차리곤 했다.-이건 절대 내가 둔하다거나 그래서 그런건 아니다. -전남대는 나 혼자뿐이라 로마법을 따르기로 했다.-음음 여긴 전남이거늘- 특히, 자일먹어란 말이 웃겼다.

시루봉정상에서 찰칵하고 간식도 많이 먹고서 내려왔다. 아 여전히 서먹하다. 저녁시간이 되어 우리의 비장의 무기인 해물탕을 끓였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물을 붓고 해산물을 넣었다. 과정은 좀 불안했지만 결론은 “참 잘했어요” 였다. 내 생각이긴 하지만.

용욱이형 근영이형 장민이형 도균이형 재우형이 오셨다. 해물탕도 바닥을 보이고 술잔도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전북대 청운이는 컨디션을 조절하는 건지 술이 약한 건지 일찍 들어가고 인철이랑 모식균은 용욱이 형한테 딱 걸려서 계속해서 소주를 들이 붓는다. 머리를 박기도 하고 따까리도 한다. 계속 보고 있자니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게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 얼굴이 벌개 저서는 둘이 붙어서 ‘아 죽을거 같애’ 하고 조그마하게 말하면서도 형이 부르면 재빨리 가서 술잔을 받아든다. ㅋㅋ

하루가 그렇게 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고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정말 늙자마자 잤다.

다음날 10월 초인데 아침날씨가 정말 춥다. 가영언니는 어딜갈까 하다가 원래 계획했던 사자봉릿지를 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아 사자봉은 좀 부담스런 곳이다. 탈출로가 희박하니까

영광스럽게도 전날 밤 도균이 형이 취직기념으로 사주신 새 자일을 매고서 선등을 설 수 있었다. 아, 사자봉 선등을 서라는 가영언니의 말은 참 고맙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으려나 걱정도 되었다. 내 확보는 청운이가 봐 주었다. 긴 릿지이고 뒷사람 확보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시간이 많았다. 전날 시루봉 할 때는 별 말 주고 받지 못 했지만 그 날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했다. 주로 산에 대한 이야기 였다. 청운이랑 영석이는 말투가 좀 간간하게 들리지만 정말 산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음음, 전날에 잘 못외웠던 이름도 확실히 외우고 이것 저것 도와주고 서로 봐주고 하다보니 정말 별 서먹함을 느끼지 못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인지 암벽화가 바위에 짹 짹 달라 붙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차가운 바위를 만지는 손가락도 여름과 같지 않았다. 한번은 크랙을 올라가다가 슬립을 먹었다. 확보보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다행히 청운이가 잡아주어서 별로 다친데 없이 착지? 했다. 난 내가 떨어지고 난 뒤에서 “괜찮아?!” 소리가 들렸을 때야 내가 슬립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청운이 재국이 영식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놀라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다. 하하 웃었지만 좀 아프고 놀랬다.

또 한번은 인공등반하는 곳에서 미끄러졌다. 신체적 특징상 맨 처음 런너를 걸어야 하는 곳에 손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이래저래 해보다 결국 청운이 손을 딛고 일어섰지만 슬립먹을 때엔 정말 아찔했다. 그렇게 사자봉 뒗지를 무사히 마쳤다.

아영장으로 돌아와 신속하게 텐트를 갖고 짐을 꾸렸다.

정국이형 차를 타고 영암터미널에서 내려 광주오는 버스를 탔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또 영필이형 등등 오비 형들과 우리들이 얹아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다음날 수업이 있어서 늦은 시간 전주가는 전북대 산악회 사람들은 재우형이 바래다 주었다. 뒷풀이를 하는데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것이 아쉽다.



전남북대 합동 등반을 마치며

추계 훈련 등반

■ 48기 이재국

추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추계는 1학년이 조장 역할을 맡아 운행하는 첫 산행이다. 그만큼 의미있고 산악회에 좀 더 묻힐(?) 수 있는 산행이다. 현대 때마침 바쁜 일들이 겹쳐버린 탓에 나와 선영이는 추계 가기 일주일 전,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야만 했다. 추계 때 나는 임시 총무를 맡았는데 회비를 걷고 식량은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간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편은 어디로 해서 갈 것인지 의류구, 수선구에 맞출 돈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한 건 뭐가 없는지, 귀찮은게 이만저만 아니었다.



보름달을 보고 변해버린 두 사람

추계 출발 당일, 일기예보는 강추위를 떠들어대며 서울에서는 첫 눈 소식이 들려왔다. 산행을 나서는 우리에게 겁이라도 주려는 듯이 주위에서도 강추위를 연발했다. 추우면 어찌랴, 추우면 추운데로 훈련이고 더우면 더운데로 훈련인 산악회 아닌가. 무조건 돌진이다. 하지만 생각만치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출발 시에 채우형이 몸소 출발지인 밀재까지 태워다 주셨다. 밀재에 도착했을 때가 10시 즈음, 그날은 때마침 보름이라 환한 보름달이 랜턴 불빛을 대신해줬다. 보름달 산행은 처음이었다. 막

영지를 찾아 추월산을 향해 몸도 풀 겸 올랐다. 비교적 평평해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 자리에 막영을 하고 역시나 술자리에 들었다. 당연한 코스다. 푸짐한 안주와 함께 2시간 여 술자리를 갖고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날 밤 도균이형이 다른건 기억이 안나도 게임에 져서 나한테 맞은건 기억이 난다고 하신다. 잊으세요 일론.

다음 날 아침 예정 출발 시간은 7시였지만, 평소보다 늦게 6시에 일어나 버렸다.



수~옴 먹는 시간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서둘러 밥을 하고 준비해서 7시 45분 쯤에서야 겨우 출발할 수 있었다. 엄청 늦어버린 것이다. 꾸중을 들을 거란 생각을 염두해 두고 있었는데 웬 일인지 그냥 넘겨버렸다. 덕분에 맘 속으로 풀렸다. 이 날은 내가 앞장을 섰다. 아침에 가볍게 추월산을 오르고 몇 개의 봉우리를 넘어가는 동안 지도를 보며 현재 위치 찾기란 여간 쉬운게 아니었다. 이 봉우리를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많이 헛갈렸다. 점심은 천치재에서 먹기로 했다. 아무리 봐도 멀었다. 으, 지도를 보고 가니 목적지가 왜 이렇게 멀어보인지 모르겠다. 지도를 안보고 뒤 따라서만 갔을때는 얼마나 남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운행 시간을 한번 더 생각하게 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후 2시쯤에서야 천치재에 도착해서 묘 옆에서 라면을 끓여먹었다. 천치재에 오기 전 점심을 맛있게 먹으라는 뜻이었는지 오르막길이 짝 깔려있었다. 허기진 배속을 채우고 다시 도로를 지나 산을 올랐다. 드디어 두 번째 지도를 펼쳤다. 으, 오정자재까지 정말 많이 남았다. 지금까지 온 거리보다 더 길었다. 정말 힘이 짝 빠진다. 그래도 어찌랴, 안갈 수 는 없다. 가는 동안 휴식시간에 현주 누나께서 카프리션과 콜라를 주셨는데 정말 최고였다. 목타게 산행해서 시원하게 마시는 그 음료수는 별미다. 산행 시간이 너무 지체되서 우린 도착시간을 약속했다. 용추봉은 7시 50분까지, 오정자재까진 10시 30분까지. 도착 시간을 지킨다면 내일 도착지인 방축리보다 덜 가서 하산하기로 했다. 대장의 권한으로 말이다. 호아- 이 말을 듣고 정말 힘이 났다. 힘들어 하던 선영이도 힘이 났는지 운행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었다. 용추봉 오르기 바로 전 봉우리에서 스프, 아니 습-을 먹고 도균이형은 비상사태라 비상식까지 꺼내 먹었다. 산행은 계속되었고 섭취한 열량은 서서히 소비되었고 다시 점점 지쳐만 갔다. 도중에 가영 누나가 산행 시간 단축을 위해 능선 코스를 버리고 도로 쪽으로 떨어지자고 했다. 그래서 뚫었다. 처음엔 오래된 길처럼 할만 했는데, 내려갈수록 잔나무 가지에 몸을 비비며 갔다. 얼굴하고 손, 다리도 모두 굼혔다. 하지만 도로로 내려오니 평지를 걷는 그 기분 정말 좋았다. 그날도 그렇게 오정자재에서 잠이 들었다. 의미 깊은게 첫 무 음주 취침이었다. 어색한 기분...

아침에 성근이형의 갈굼으로 텐트를 서너번 쳐보고 출발했다. 그런데 텐트 폴대가 열어서 부러졌나 영 자세가 안나왔다. 아침에 온도가 꽤나 낮았는지 텐트에는 서리가 끼었다. 해가 뜨면서 서서히 따뜻해졌다. 아니 산행을 하니 더웠다. 오늘은 선영이가 앞장을 섰다. 초반부터 끝없는 오르막길이었다. 진짜 지친다. 휴식 시간에 독도 강의도 들었다. 웬지 오늘은 컨디션도 별로였는데 점심 먹기 바로 전까지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 점심은 산성 삼거리에서 먹기로 했는데 도무지 밥 먹을 장소는 레스팅 포인트를 산성에서 몇 번이나 지나쳐도 나오지 않고, 말 그대로 찢이 다 빠져나갔다. 선영이는 혼이 빠져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선 대략 3-4분 정도 눈을 붙였는데 나름대로 포근했다. 밥을 먹고 곧 하산을 한다고 생각하니 없던 힘이 샘솟았다. 선영이 표정을 보자니 영 아니었다. 똥 씹은 듯한 표정. 그렇다고 못 가는건 아니다. 겨우 마을로 떨어지는 길을 찾아 계곡 따라 내려갔다. 아- 산이 아닌 평지가 보이

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현주 누나는 만세를 불렀다. 하산을 완료했을 때의 이 기쁨. 이는 정상을 올랐을 때와 사뭇 다른 느낌이지만 그 기쁨의 강도만큼은 같다.

추계가 끝나니 마음이 후련해진다. 짧은 2박3일 일정이었지만 웬지 길게 느껴졌다. 그만큼 힘든 산행이었다. 운행 거리를 줄이고 독도연습을 더 많이 해봤으면 어땠을까 한다.



PART II



01 산행기

02 기타보고서

03 기획

04 문예

PART II

산행기

- 쇠나드리를 다녀와서 38기 한창균
- 가을의 천관산은 눈발이었다 20기 김희영
- 중국 황산을 다녀와서 13기 양형렬
- 제암산 산행기 지도교수 이계윤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쇠나드리를 다녀와서

■ 38기 한창균

산악회에 몸담은 사람치고 쇠나드리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쇠나드리는 소가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생긴 이름이다, 마을에 원래 다리가 세개 있어서 “세나드리” 라고 하다가 차츰 쇠나드리로 바뀌었다고 한다는 등 특이한 이름 만큼이나 추억 역시 많은 곳이다. 쇠나드리에서 술을 사러 만나절을 갖는 이야기며 폐가에서 본 귀신이야기 등 수도 없이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비록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꼭 가본듯한 곳으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나 역시 4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번도 가 본적이 없었다. 조침령에서 서림으로 내려간 적은 있어도 쇠나드리는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곳이었다. 그러다 백두대간 종주할 때 너무나 궁금해서 쇠나드리로 내려온 적이 있다. 그리고 다시 조침령으로 올라가서 북암령에서 막영을 하고 단목령에서 지환형의 메모를 보고 설피밭으로 내려가서 털보집에 들른 적이 있다. 그때 역시 무수히 들어왔던 털보아저씨를 보지 못 하였다. 대신에 거기 있는 음식을 싹쓸이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나의 진동리에 대한 기억은 조각 조각 모자이크처럼 끊어져있었다. 모처럼 서울지부 산행으로 점봉산이 잡혀서 그 모자이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부슬부슬 비를 맞으며 진동리를 향해 출발했다. 마치 타임캡슐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약간 들떠있었다. 현리를 지나 418번 도로로 갈아탄 다음 한참을 지나도 불빛한점 보이지 않고,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과 바람 소리에 음산한 기분마저 든다. 게다가 무성한 풀들이 도로의 양어깨를 점령해버린 비포장 길을 따라 올라가니 무서운 생각마저 든다. 이 길을 지환형은 혼자서 밤에 걸어서 왔다고 하니 생각만해도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음산한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널따란 들판과 다리가 나왔다. 드디어 쇠나드리에 도착한 것이다.

차에서 발을 내딛으니 시원한 계곡소리와 멀리 설악골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과 동해 바다를 한 것 품은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99년에 올 때는 펜션을 막 짓기 시작할때라 좀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다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손님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을 정도니 유명세를 타긴 탄 모양이다.

북암령에서 단목령까지 산행을 하기로 했다. 빗에 젖은 풀들을 헤쳐갈 때마다 코를 자극하는 풀냄새와 야생화 군락지를 걸어갈 때는 이름모를 꽃들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그 향기에 취하며 오랜만에 산의 정취를 한 것 느낄 수 있었다. 애초에 2시간 산행하

기로 한 것이 4시간을 훌쩍 넘어 버렸다.

하산 길에 설피 밭에 가보니 공사가 한창이었다. 황토에 밭이 푹푹 빠져서 들어가기조차 어려웠다. 예전에 아기자기하게 조각으로 꾸며놓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궁이가 절발썸 드러나 있고 찌그러진 처마, 그리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포크레인은 설피민국을 곧 무너뜨리기 전이었다. 뭐가 그리 괴로운지 아니면 비가 와서 그런지 털보아저씨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젊어보였다.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백두대간 보호법이 발효되면 인근은 건축이 금지되므로 원래의 땅주인이 땅을 팔아 먹으려고 털보아저씨를 나가라고 한 것이었다.(백두대간 보호법이란 마루금으로 부터 1~3차 수계로 나뉜 핵심구역, 환충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지역에선 건축및 공작물 설치, 기존 대지의 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일종의 신 그린 벨트개념으로 2005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생존권 박탈로 인해서 많은 반발이 있다.)

그로 인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것같이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털보아저씨에게 불뚱이 튼 것이다. 결국 털보아저씨는 곰배령 입구쪽으로 옮겨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념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한다. 백두대간을 하다가 꼭 들렀던 설피민국이 없어진다고 하니 추억하나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다.

서림에서 쇠나드리로 터널이 뚫리고 그로인해 앞으로 교통이 좋아질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쇠나드리 일대는 오지중의 오지, 국내 유일의 원시림지역, 국내 최대의 야생화 군락지, 유네스코지정 생물권 보존구역, 열목어 보호구역, 그리고 설피문화로 인해서 진동리는 청정자연과 함께 이 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되어서 새롭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끄러워지고 각종규제가 만들어져서 예전처럼 자유롭지가 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곳저곳 개발 되어 추억의 장소들은 많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산과 그 산을 닮은 선후배들이 있고 같이 이야기할 추억이 있는 한 쇠나드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 일 것이다.

천관산 등행기

-가을의 천관산은 눈발이었다

■ 20기 김희영

누라(마누라)랑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할 요량으로 참치횃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주 한잔을 하다가 문득 몇 년 전 장흥 회진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떠올라 다정하게 지내던 분에게 전화를 하였다.

잘 지내시죠! 안부 인사정도만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몸부림을 쳐대 받아 보니 방금 전화를 하였던 분이 전화를 해 왔다.

“김 선생님, 혹시 농어가 8.2kg짜리 한 마리가 있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아무렴요!”

생선은 커야 훨씬 맛이 좋고 양도 많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이 밤중에 그 생선을 어찌라고……. 이미 술도 한잔해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누굴 약 올리나……. 그리고 그냥 누라랑 먹다 남은 술을 마저 먹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몸부림을 치고 떨고 있었다. 아까 그분이었다. 지금 장흥읍 지나고 있다는… 하여간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긴 하지만, 인기 때문에 피곤하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름이 없다.

다음날은 누라랑 전날 밤중에 괴물을 가지고 오신 분을 생각해서 모시고 장흥을 가기로 하였다. 점심 전에 회진에 도착해보니, 마침 회진 장날이었다. 장 구경을 하고 회 비빔밥으로 점심(삶은 문어, 삶은 소라, 생 뼈뺀이, 전어 소금구이, 돔 소금구이)으로 먹고, 동네 지기들과 천관산에 오르기로 하고 출발 하였다.

회진에서 탐산사로 가는 길은 시멘트 포장에 되어 있는데, 그 길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전에 회진에서 근무할 때는 드라이브코스로 삼고 드나들던 낯익은 길이다. (남들은 해변도로를 드라이브 코스 삼아 다니는데 나는 탐산사 가는 오르막길과 대덕에서 천관산 휴양림 가는 비포장 산악 도로를 드라이브 하곤 했었다)

한참 오르막을 가는데, 이제는 탐산사라는 절의 명성에 맞게 온갖 종류에 탐이 정말 많이도 서 있었다. 내용을 보니 동네 주민들이 동네별로, 또는 학교 동창들이 동기별로 하나씩 세우기로 의견을 세워 각각이 세웠다고 하니, 이동네 사람들의 열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학공원의 시비는 장르별로 작가를 소개했는데, 장흥 출신은 거의 다 소개가 되어 있었다. 내 장흥 친구도 시인하고 소설가 2명이 소개되어 있었다.

탐산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드니 전과는 달리 등산로 확장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여 걷기는 좋았으나, 등산하는 분위기는 전보다 못하였다.



진죽봉에서

탐산사를 벗어나자마자 큰 바위에 벽을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이 나타났다.

석굴 안은 정리가 잘되어 있고 하얀 바
지를 입은 여자 몇 명이 돛자리를 깔고
쉬고 있을 뿐, 도를 닦는 도사 비슷한 사
람이나,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누대 사이의 골목길을 한참 지나 탐산
암이 나타났는데 암자 앞에 있는 와상에
예쁜 글이 써있었다.

산에 오르시는 분을 위하여 2006년말
까지 차를 무상으로 공양하니, 드시라는

내용과 주전자와 5개 정도의 컵이 있었다.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았어도, 정말 시원하
고 상큼한 향을 담은 차였는데, 아마 구기자하고 감초가 들어 있었던 거 같다.

지금 계신 분의 임기가 그때까지인가? 아님 2007년도부터는 돈 받고 판다는 이야
기일까? 하여간 시원한 차를 증생을 위해 무상으로 공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암
자 앞 채전 밭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조금씩 다 심어져 있었다. 스님 한분이 채소에
물을 주면서 친근감 있게 말을 걸어 왔다. 말 답례로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니 그
것만 해도 큰 복이십니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거
사서 짊어지고 오르내리다보면 그렇지마는 않노라고……. 세상살이는 아래나 위에나
다 같노라고…

오죽했으면 이런 암자에 와서 사실까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찌 닦이 봉의 뜻을 알
리오?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로등을 켜는 시설이 되어있었다.
암자 뒤편으로 올라가니 아육왕탑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서 있다. 안
내문에 의하면, 인도의 아육왕이 신병(神兵)으로 하여금 하룻밤 사이에 인도와 우리
나라에 탑을 쌓게 했다는 전설 때문에 아육왕탑이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었다. 엄청나
게 큰 바위가 겹쳐져 있는 모양이 마치 탑과 같은, 아육왕탑은 6층이었는데 맨 위층
이 무너져 지금은 5층만이 남아 있다

드디어 능선에 막 오르니 구룡봉이 버티고 있었다. 봉우리가 9개라 구룡봉인가? 하
여간 봉우리에 올라서면 공룡 발자국 형태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많이 눈에 띈었다.
동네 지기 말로는 아래 동네 아낙네들이 구룡봉에 오르면 남편들이 가려주는 가운데
그 웅덩이에 시원한 맛을 보곤 한다고 한다. 아무튼 구룡봉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절
경이다. 어찌 이 산에 이렇게 바위가 많은가 하면, 반대쪽은 바위는 보이지 않고 그야
말로 흙으로만 된 산, 한쪽은 화려한 반면에 한쪽은 수수한 농부처럼 보이는 산, 어쩔
작은 금강산이 아닌가 싶다.

멀리 보이는 대덕 앞에서 회진으로 이어지는 바다 모습은 답답한 가슴을 툭 터지게
하는데 충분했다.

구룡봉을 내려와 능선 길을 접어들자마자 눈에 전개되는 진죽봉은 정말 멋졌다. 진죽봉부터 시작되는 역새길은 정말 천관산하면 역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부부 바위를 보고 환희대를 지나면서 아하 이래서 환희대나 보구나. 때마침 지는 석양의 해를 등에 업고 비추는 역새의 장관은 겨울철 눈밭의 눈보다 더 희고 찬란하게 눈 부셨다.

아하 역새는 석양에 지는 햇빛으로 봐야 정말 장관이구나.

역새풀밭 사이로 붉게 물든 단풍은 더 붉게 보였고, 푸른 솔은 더욱 푸르게 보였다. 정말 환희를 느끼게 하는 역새밭 능선 길이었다. 아니 하이얀 눈으로 얹게 덮인 능선 길이었다.



환희대에서 연대봉가는 길의 역새 단지

연대봉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하는 의식인, 빨간색이 약간 들어간 도수 있는 음료로 목을 축이고, 멀리 제주도에서 솟아오를지도 모르는 봉화대의 연기를 그려보았다. 눈앞에 보이는 완도, 고금도, 금일도, 금당도, 생일도…….가 안내판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알기 쉬웠다.

지는 태양을 가슴에 안고 하산을 서둘렀다. 닭봉으로 향하여 하산 길을 잡고 내려오는데 또 기막힌 샘 이야기를 듣고 찾아 나섰다. 샘이름이 금샘이라는데 아침에 해가 솟을 때만 샘의 물이 반짝거리 샘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샘의 모양이 여자 생식기처럼 생겼다고 한다. 찾아보려고 했으나, 지는 태양을 잡을 수가 없어서, 랜턴을 켜고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하산하였다.

하산하는 길에 또 탑산사에서 대덕, 휴양림쪽으로 산길을 새로 내고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들어갔더니 공사가 대충 마무리 된 길이었다. 20분정도 걸린 길인데 새 길이라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자동차 유리만 빼 놓고 온통 먼지를 뒤집어썼다. 정말 재밌고, 맛있게 보낸 이틀이었다.

잘 먹고, 재미있게 산행하고, 뿌듯하고…….

그런데 이제 그 괴물(농어 8.2Kg)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또 산행 끝나고 회진 들려서 싸준 전어하고 뼈째 썰어 먹으라는 모챙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하지? 줄려면 쪼끔만 주지 .몽땅 주어가지고 …….

2004.10.16~17

중국 황산을 다녀와서

■ 13기 양형렬

11월 21일 첫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출발했다. 아침의 우리 산하를 두루 살펴보면서 달리고 있으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하다. 중국의 제일 명산인 황산은 어떤 산일까? 남해관광의 소개 팸프렛을 읽으며 머릿속에 그려본다.

소개에 따르면, 黄山 (1,864m 연화봉(蓮花峰))은 중국의 안휘성 남부에 위치한 72개의 봉우리로 우뚝 솟은 천하제일의 산이며 1990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 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험난한 바위산으로 등산로가 전부 계단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레인다.

광주공항에서 일행을 만나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다. 1시간 반을 날아 상해에 도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상해의 대표거리 외탄강가와 푸둥지역의 발전을 한눈으로 둘러보고 다시 황산으로 향했다.

황산 국제대주점에서 1박하고 황산으로 가는 버스 차창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60년대처럼 심난한 농촌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대나무와 차생산지로 유명하다한다.

1시간30분을 달려 운곡사(雲谷寺)에 도착 케이블카 탑승점에 와서 산을 바라보니 말 그대로 우람한 바위산이 버티고 있다. 케이블카에서 올려다보는 황산은 그저 놀랍기 만하다. 깎아지른 바위산이 차갑게 느껴지며 우리를 삼킬 듯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여 진다.

케이블카에서 보이는 자석봉(紫石峰), 천도봉(天都峰), 옥명봉(玉屏峰), 연화봉(蓮花峰)이 뽀족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으며 곳곳에 소나무들이 바위 틈새에 꽂혀 분재가 된 듯이 기묘하게 잘 자라고 있다. 가깝게 보이는 천도봉은 한참 올려 보아도 그 끝을 보기가 어렵다. 도대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1,810m 라 한다.

백학령에 도착해서 정상을 올려다보니 온통 계단만 눈에 들어온다.

멀리보이는 황산의 작은 봉우리들은 모두가 예각의 실루엣이 되어있고 우리나라의 산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게 느껴지며 “누가 이렇게 빚어 놓았던 말인가?”하는 감탄이 절로 났다. 한 봉우리 봉우리마다 다르게 다듬어 놓은 거대한 이정표석 같다.

얼마나 계단을 오르고 내렸나 벌써 무릎이 시큰거리려 바짝 긴장이 된다.

괴암들의 산속에 지어놓은 북해병관을 거쳐 사립호텔에서 짐을 풀이고 백운루에서 점심을 먹었다. 기이한 것은 이곳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이 사람의 등짐(어깨걸이)에 의해 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운반이 되고 있다. 가냘퍼 보이는 몸매로 덩치 큰 짐들을 등에 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애처롭기만 하다. 중국이니까 가능하다고 모두들 중얼거린다. 산에서 사람을 실어다 주는 가마와 가마꾼들도 보인다.

황산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서해대협곡으로 출발이다.

중국의 송나라 사람인 徐霞客(30년에 걸쳐 중국을 일주한 여행가)은 “五岳(태산(泰山), 형산, 형산(衡山), 송산, 화산(華山)에서 돌아온 사람은 보통의 산은 눈에 차지 않으며, 그러나 황산에서 돌아온 사람은 오악조차도 눈에 차지 않는다.” 라고 했다. 다른 산은 접해 보지 못해 가늠할 수 없지만 황산만은 대단한가 보다.

단하봉을 거쳐 배운정에서 바라보는 비래석(飛來石)은 말뚝을 꽂아 놓은 것처럼 거대한 석상이 우뚝하게 서있고, 서해대협곡은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경들이 펼쳐져있다.

특히 송림봉 절벽위에 기묘한 모양으로 자라난 소나무와 갖가지 형태의 기암괴석들을 바라보며 감탄 또 감탄을 외친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공포와 아찔한 절벽에 오금이 저려와 힘든 줄도 모르고 앞 사람 쫓기에 바쁘다. 우리나라 북한산의 백운대, 인수봉은 저 아래 조그만 동산 정도일까?



절벽의 돌들을 다듬어서 계단을 만들고, 시멘트 계단과 난간은 1.5m 폭으로 일정하게 절벽에 붙여놓은 괴기의 성을 올라가는 길처럼 기묘하게 토목공사로 놓여져 있다. 9년 공사에 2년 안전점검을 거쳐 개통되었다한다. 정말 “인민”들이 이루어 낸 공사다.

황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기송(奇松), 기암(奇岩), 운해(雲海), 온천(溫泉)이 있어 4기라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날씨가 쾌청하여 운해 속의 황산을 보질 못하니 다시 오게 하려나 보다. 아쉬움을 뒤로하며, 광명정(光明頂, 1860m)에 오르니 황산의 주봉들이 우뚝 솟아 저 멀리 보인다.

연화봉(蓮花峰), 옥병봉(玉屏峰), 천도봉(天都峰)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저 봉우리들은 도자기 빛의 물레에서 흙을 손으로 마주잡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우뚝하게 보인다. 돌틈에 박혀 자란 괴기한 거목의 소나무들은 어떻게 저토록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자문자답 해보지만 자연의 섭리는 신비스럽기만 하다.

사립호텔에서 1박하고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한 산행이 시작되었다.

서광정에서 시신봉과 관음봉 사이에서 뜨는 일출 또한 아름답다.

뾰족한 바위산과 소나무들이 어울려진 검은 산 사이로 나타나는 일출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한결 가볍고 경건한 마음마저 들어 모든 이의 안녕을 기원했다.

아침을 먹고 연화봉을 향한 발걸음이 가뿐하다. 황산의 제1봉답게 오르는 길도 또한 험난해서 숨이 가빠온다. 바위를 깎아 꼬불꼬불 만들어놓은 절벽의 계단은 우리들의 몸에 긴장을 붙어 넣고 한치의 오차 없는 조심스런 발걸음을 재촉하며 눈 돌릴 틈이 없다. 연화봉에 오르니 연화절정(蓮花絶頂)이라는 뜻말이 말해주듯이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감탄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왜 이곳에 이런 축복이, 신이 빛어 놓은 듯한 조화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멀리 보이는 송곳같은 산들이 뿌연 실루엣으로 나타나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다. 정상에 난간 사슬에는 자물쇠 꾸러미가 빼곡하다. 연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자물쇠를 채우고 사랑을 다짐한 다음, 열쇠를 산 아래로 던져서 그 열쇠를 찾아와야 사랑을



깨 수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금도 행해진다. 연화봉에서 옥병봉으로 향한 길은 급경사로 돌로 쪼아 만든 좁은 길에서는 앞사람의 어깨를 밟고 내려가는 것 같아 긴장이 흐른다. 옥병루에 도달하면 자그마한 분지가 나오고 주변의 일등 소나무들이 세월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다. 갖은 풍상에도 잘 자란 소나무들은 키는 크지 않지만 죽히 수백년은 버텨 온 듯하다.

모두들 사진 찍느라 분주하다 누워서 찍고 서서 찍고 이리 저리 쫓는다.

옥병점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자광각으로 내려와 서하객의 석상을 보면서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면서 머리 속에 그려본다.

“우리나라에 저런 산이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월출산 같다고 생각도 해 보지만 도저히 견줄 수 가없다. 그러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작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아끼고 잘 가꾸어 후대에 잘 물려주어야 된다고 다짐해 본다. 6월말의 백두산은 중국에서 올라 장백산으로 우리민족의 영산으로 여기는 느낌이 별로 남지 않지만 이번 가을의 황산은 중국의 산이지만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살아 있을 것 같다.

황산의 아름다운 운해와 또 다른 절경을 보기위해 꼭 오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

제암산 산행기

■ 지도교수 이계운

토요일 아침 금방이라도 가을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흐린 날씨 속에 9:40분에 제암산으로 출발했다. 화순을 지나 고속도로 같은 새로 난 국도를 능주까지 한숨에 달렸다. 추수가 끝난 주변 들녘에는 짙더미를 태우는 연기가 한가롭게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해 주었다.

대형 관광버스를 빌린 덕에 우리 일행은 여유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창밖에 흐르는 가을을 만끽하였다. 재담 좋은 교수님들의 유년시절에 놀았던 이야기로 우리 일행은 모처럼 동심 속으로 빠져들며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1시간여 가량 가다보니 보성 응치면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한 20여분 한적한 산길을 돌아서니 제암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다.

가느다랗게 내리는 가을 보슬비를 맞으며 잘 가꾸어진 산길을 따라 40분정도 걸어 곰재산(629)에 올랐다. 곰재산 좌측으로는 장흥의 스텝크스라는 사자산(666)이 의젓하게 누워있었다. 사자산까지 가는 길이 철쭉 군락지역이어서 봄에는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잠시 이정표를 둘러본 우리 일행은 사자산을 뒤로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은 나뭇잎들이 별절게 물들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였다. 능선따라 끝없이 널려있는 억새들은 가을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하얀 머리칼을 나부끼면서 도심에 찌든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한 30여분 산행을 하자 좌측에 넓다랗게 펼쳐진 장흥 들녘이 두루말이 펼쳐지듯 한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월출산이 힘있게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목적지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자 능선따라 저만치 우뚝선 제암산 정상이 한아름 가슴을 파고들었다.

발빠른 몇몇 교수들이 아득히 멀어져만 갔다. 추적거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모락모락 오르는 입김을 품어 대면서 왕관처럼 솟아오른 제암산에 오르자 동양화보다 아름다운 장흥 앞 바다가 지중해처럼 펼쳐졌다. 구름 띠에 휘감겨있는 섬들,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지는 포구들... 우리 모두는 아! 아! 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 순간에 부르르 떨면서 전율하였다. 시원한 바람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방울을 감미롭게 씻어주었다. 우리 일행은 옹기종기 앉아 준비해온 과일이며 떡을 나눠먹으며 우정을 나눴다.

아쉬운 제암산을 뒤로하고 시루봉 쪽으로 하산하여 자연휴양림에 다시 도달하였다. 호남 정맥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제암산 산행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시 버스에 올라 울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았다. 산행

에서 얻은 피로를 녹차탕과 해수탕을 오가며 맘껏 풀었다. 뽀송 뽀송한 피부를 만들어 목욕탕을 나서니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선이 된 우리는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하였다. 갈매기가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생선회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걸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듯이 여기는 오로지 자유만 존재했다. 욕심과 가식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이 잠시나마 가슴을 여미게 한다.

얼큰한 기분으로 석양 노을을 감싸 안으며 회천을 떠나 광주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되었다. 정말 멋진 하루의 산행과 여행이었다.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나 사심도 없었다. 오로지 즐거움뿐이었다. 작별도 아쉬워 보성 웅치의 울벼쌀을 한 아름 안고 다음 산행을 기약하면서 어둠 속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다.

PART II

기타 보고서

- 등산학교 암벽반 후기 46기 김가영
- 오지탐사대 파미르 보고서 · 42기 김재우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광주전남등산학교 암벽반 강사 후기

■ 46기 김가영

8/19(木)

3박 4일의 정규반을 끝내고...

다친 머리, 그리고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들... 역시 산악회적인 생각이 앞서게 된다.
오늘부터 나는 암벽반 강사다.

오늘 교육 내용 반성의 시간(교육생들과)

우리조 구성원은 강사 포함 총 10명이다.

지도자- 조장 마수광(조대 00), 신재우(광주교대 03), 손은경(순천대 02)

일반과정- 이아름 외 4명

저녁 때 오늘 문종국 강사님께 배운 매듭법에 대해 교육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쉽게 가르쳐 주셨다.

-많은 매듭을 배워서 좋았다.

-틈나는 대로 매듭법 연습하자.

나? 많은 매듭을 아는 것 보다는 하나의 매듭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암벽반이 시작되어 교육생들이 사용할 가장 중요한 장비들을 확인해 보니 많이 부족하다. 헬멧2, 하강기1, 확보줄1, 링비너1. 거의 초등학생 일반과정은 암벽반 장비를 준비해 오지 않았다.

<암벽반 첫째 날 강사모임>

총 인원) 일반과정 20명,

지도자 6명(학생장 포함), 강사 9명

주제) 3박 4일 동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육부장-송형근 강사님

1. 주마 - 프루지크매듭 사용법
2. 등반법 -슬랩, 크랙(레이백)
3. 장비 설치 - 후렌드, 너트
4. 선등 확보 - 이퀄라이징
5. 인공등반

6. 확보 - 자기확보, 후등자 확보(직접확보,간접확보)
7. 하강 - 압자일렌, 장비를 사용하여 하강, 반 까뵈스탕
8. 자투리 시간 - 로프 사리기, 매듭법

규칙) 로테이션, 시간엄수(철저)- 강사의 욕심은 무리,

그 외)

1. 조 개수는 몇 개? 4개
2. 초보/지도자 섞을 것인가? 첫날 no
3. 강사 배치

조	과정	강사배치	등반구역	자일(12)
A조	지도자	김재우, 윤현식 ①	시루봉 전 피치	4
B,C조	일반	송형근, 김가영, 김수양 ②	전남 슬랩	2
D조	초,중고생	문종국, 장정규, 박대현 ③	시루봉 1피치	5

<내일 일정>

오전 - 기초 (초등학생, 일반인)

먼저 시루봉 밑에서 기초훈련 -문종국 강사님(1시간)

오후 - 시루봉 뒷벽

구역	시루봉 1피치				오전	오후
	A피치	중앙길	공전길	B코스	전남 슬라브	검정 슬라브
오전	√볼트따먹기	√프루지크 오르기	√레이백 등반	√주마링 중	√슬랩 등반	
	√래더밧고 오르기	√카라비너 하강	√후등자 확보(직접)	8자 하강	√압자일렌 하강	
	√후등자 확보(간접)				√하강 중 자일 고정	
	√8자 하강기 하강					
오후		√후렌드, 너트 사용				
강사	③	③	①	①	②	

표. 등반구역 코스별 교육 내용

8/20(金)

오늘 교육 내용 반성의 시간(교육생들과)

- 시간이 없으므로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만이 한 번 더 하는 기회를 얻는다.
- 보고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신속한 보고 연습이 필요.

-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으므로 왜 이걸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자주 물어라.

<암벽반 둘째 날 강사 모임- 마지막 종합등반 계획도 같이 함>

- 시간 지체
- 교육생들이 확보 보는 연습을 많이 못함.
- 전남 슬라브에서 압자일랜 하강 보여주기에 그침.(시간상 빼먹은 교육도 몇 개 있었다.)
- BEST 학생장(칭찬)

<내일 일정>

오전	시루봉 뒷벽 (코스별)			비고
	크랙	레이백	반침니	
	√ 재밍(발, 손)	√ 자세 교정	√ 칸테 등반	√ 직접, 간접확보시
오후	√ 선등 후 자일고정	√ 슬립 정지 훈련	√ 구조 훈련	카라비너 통과
	-쌍볼트 이퀄라이징	-타이어 던져 슬립	-바위에서의 구조(슬링)	
	-나무에 꺾베스탕		√ 등반 중 장비 확보	
	-터벅 매듭		-프렌드 사용	
강사	김재우, 윤일환	장정규, 김가영	송형근, 김수양	

<마지막 날 종합등반 일정>

조	코스	강사	비고
A	연시루봉->매봉정상->바람폭포	송형근, 김수양	※ 형제봉 등산통제
B	사자봉	김재우, 윤현식	
C	시루봉 3피치	장정규, 윤일환	
본부		서무부장 외	

조 편성

※밤에는 안전위주 속공등반(*인공등반 허용), 주마사용 권장(교육생)

강사 준비 음식들 : 돼지고기(소금), 소주, 참치, 햄, 사과, 복숭아, 맘모스빵, 스프, 밧데리 등 (버너, 코펠 준비)

이번 등산학교는 처음으로 내가 강사님들과 함께 저녁 시간의 회의진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교육 내용, 시간 안배, 등산학교 규칙, 특히 등산학교 강사님들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열의와 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나도 의료부장을 맡아 조별 약품을 정리하면서 산행 시 필요한 약품 목록에 대해 자세히 알았고, 교육생들의 다친 곳에 밴드 하나라도 하나 붙여 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지만 내가 교육생이었을 때와는 달리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며 실망도 많았다. 등산 학교 자체의 교육 세부일정이 하루 전날 강사들의 경험에 비추어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작년의 일정들을 꼼꼼하게 기록한 파일을 저장해 놓기만 했다

라도, 교육에 지친 강사들이 다시 다음 날의 교육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글 또한 내년 등산학교에 참고가 되어 교육생들이 불편했던 점이나 더욱 나은 교육내용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

아무리 강사 수가 부족하더라도 강사들이 일주일의 등산학교 중에 너무 자주 왔다갔다 해서 조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인 것 같다. 인스턴트 식으로 교육일정에 강사를 맞추는 것도 조금은 별로였다. 그렇게 하루 정도 들어오는 강사들을 보고 교육생들 또한 저사람은 누구냐는 듯이 쳐다볼 것이 분명하다. 먼 곳까지 교육생을 위해 찾아와 교육을 도와주는 강사들에게는 감사하지만, 무턱대고 교육생들의 눈빛을 바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교육생의 문제점만 탓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강사진과 더욱 알찬 교육내용, 그리고 광주전남 등산학교의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사람이 빠지다 보니 도중 장비관리도...

장비	총 개수	전대	조대	순대	보건대	예당고	목대, 송형근
자일	12	2	1	2	2	2	2
퀵도르	54	10	10	16	16	5	
링슬링	13		5	3		2	
테잎슬링	23		10	3	5	3	
후렌드	5			5			
주마	5	2		1	2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파미르 알라이산맥 보고서

■ 42기 김재우

흔히들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다. “왜 산에 가니?”

정말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은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 이유를 알기위해 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딱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럴땐 내가 역으로 반문한다. 취미생활을 비유해서 축구를 좋아한다면... “넌 왜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단지 재미있다는 이유다. 물론 부차적인 이점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산에 다니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산사람들과 즐거워하며, 같이 땀을 흘리며 같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기에 산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와서 산에 다닌게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된 시점에서, 무언가 더 다른 만년설이 있는 새로운 산을 욕심을 점점 산에 다니면서 생기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축구선수가 무슨 대회에서라도 우승을 하고 싶은 욕구인 것처럼, 개인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추어 달려가는 것이다.

산에 다니면서 누군가가 꿈꿔오는 하얀산이라는데, 내 눈앞에 거대하게 보이지 않을 지라도 그 일부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서 이번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고학년인 시점에서 어찌보면 그만큼의 국내산행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부분일수 있지만, 내 자신의 포부와 욕심에 국내 산행을 벗어나 해외의 어떤 산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기에 청소년 오지탐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나에게겐 소중한 기회였고 경험이고, 추억이었다.

파미르 고원 알라이 산맥에 대해서

유라시아대륙의 중앙부에 솟아 있는 이 황량한 산악지대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비경이다. 파미르라 불리는 이 변경의 바위투성이 지역은 산이 많은 높은 고원이다. 대부분은 구소련 영내지만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도 있다. 깎아지른 봉우리들, 뽕족한 능선, 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계곡 등 이 지역의 냉엄한 경관은 ‘세계의 지붕’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산맥이 맞부딪치는 파미르고원은 6100m가 넘는 100개 이상의 봉우리들과 37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는 계곡들을 포함하는 산과 고원의 집합체다. 이 지역에서 가



장 높은 봉우리는 7495m의 콤무니즘봉으로 이는 타지키스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다. 파미르라는 이름은 ‘산봉우리들의 기슭’이란 의미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슭’이란 이 일대의 기후가 험악하고 녹지대가 드문데도 불구하고 원주민인 키르기스족이 양과 염소를 방목하고 있는 고지대의 넓은 구릉들을 가리킨 말이다.

2004년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파미르 알라이 산맥

·7월19일 발대식

13:00 집결(포스코 사거리, 동부빌딩 건너편 금성호텔)

17:00 2004 한국 청소년 오지탐사대 발대식 (과천 코오롱 빌딩 1층)

19:00 석식 후 해산 | 20:30 숙소 도착 | 1:00 장비, 식량 포장 완료

드디어 내일 떠난다는 생각에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차 있다. 과연 우리가 가는 새로운 오지의 세계란 어떠한 곳이며, 만년설의 느낌은 어떠할지.

하지만 준비하고 점검하는데 있어, 각자 맡은 별 대원들이 해야 하는데, 경험이 부족해선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직도 그 정체성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 싶다.

처음 가는 해외인지라 많이 긴장되고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그전에 현조형 북극갈

때 도와준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드디어 내일 출발이다. 재미있게 갔다와서 대원들과 그 즐거움으로 술 한잔 하고 싶다.

·7월20일 서울⇒타쉬켄트(시차 4시간 늦음)

5:00 기상 | 6:10 서울 도심터미널 출발 | 7:10 인천공항 도착
10:15 타쉬켄트 행 출발 | 13:40(현지 시각) 타쉬켄트 도착
15:20 숙소(엘레나 호텔) 도착 | 16:30 현지 식량구입 및 환전, 매식(만나식당)
20:00 숙소 도착

처음 타는 비행기라 많이 긴장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입 벌리고 잘도 자는데 나만 멍하니 벽만 보고 심심해 죽을려고 했다. 우리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려니 갑갑하고 환장할 지경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여서 인지 물 부족 국가이다. 먹는 물도 사서 먹고 오히려 먹는 물에는 가스 CO2를 넣어서 팔기도 한다. 현지인 말로는 이곳 사람들은 가스 넣은 물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마셔보면 우웁 못 먹겠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전하기란 무지 어려웠다. 나라 내에 돈이 없다면 거절당해 가면서 나중에야 겨우 가능했다. 돈이 돌아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도 살아날텐데. 4시간의 시차때문인지(?), 비행기내에서 잠을 못자서인지 점점 피곤이 밀려온다. 이게 고소증상이려나하는 걱정까지 된다.

·7월21일 타쉬켄트(우즈베키스탄)⇒오슈(키르기즈스탄) (시차1시간 빠름)

10:30 안그랜(차량환승 버스→다마스) | 13:20 차담 (중식 및 차량환승(다마스→미니버스))
14:00 차담 출발 | 16:30 намакан | 18:40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국경
21:00(현지시각) 키르기즈스탄 통과 (7톤 트럭 환승) | 21:30 석식
24:05 오슈 숙소(메나카하 호텔)도착

하루종일 버스를 타면서 이동을 했다. 버스를 타는데도 한 버스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3번의 차량으로 바꿔 탔다. 그 이유는 통역인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마 도로사정상, 그리고 여행사의 수지타산의 이유인 듯 싶다. 이동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낯설기만 하다. 주위에 펼쳐진 고원과 들판, 산, 2000m이상을 오르는 고개, 중간에 검문하면서 지키는 경찰과 군인, 그리고 오슈의 경계지역에 포터를 이용하고 가이드도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게 됐다.

키르기즈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달리 공산주의적 요소의 잔재가 많은 듯 싶다. 아직 덜 개방된 자본주의적 모습 속에서 선불리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시차도 1시간 빨라지면서 갑자기 또 피곤해진다. 저녁에는 한국인 후손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한국의 락카페를 연상케하는 분위기에 무도회장도 있다. 볼거리도 많고 신기하기만 하다. 단지, 이 나라도 역시 물이 부족한 나라인 듯 물도 직접 돈을 지불해야 하며 하지만 탄산물은 정말 못 먹겠다.

·7월22일 오슈⇒탈딕캠프

7:00 기상 | 8:00 조식 | 9:00 오슈출발

(시내 휴지,물,비디오카메라 필름,니튬건전지구입) | 14:55 탈딕 캠프(2,300m)

도착 및 중식 | 16:40 2,600m 무명산 고소적응차 산행 | 18:00 하산 완료 | 20:30 석식

공산주의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 약간의 조심스러움과 긴장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탈딕캠프로 향하면서 우리들이 목적하는 곳과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추워지고 빙하가 녹아 물도 흐르고, 주위에 응기되고 단층된 지형의 경관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중간중간에 트럭에서 내려 고소적응을 하고 쉬면서 올라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탈딕캠프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고소적응을 하기 위하여 어느 한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비가 내려 대원들의 앞으로의 체력적 부담을 생각하며 하산을 결정한다.

대원 중에 지션이가 많이 힘들어한다. 낮은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듯 싶은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첫 해외산행의 고산 경험이 없어 감히 선불리 다가가기가 어려워 미안할 뿐이다.

이 곳 주인인 미키와 나름대로 친해졌다. 어설픈 영어지만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도 많다. 나도 영어가 부족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다.

·7월23일 탈딕⇒코브제네브스키 빙하 카라반 초입

7:30 기상 | 8:00 조식 | 10:00 보르도바 행 출발 | 11:10 3600m고지 휴식 및 사진 촬영

15:00 코브제네브스키 빙하 중간 도착 | 16:00 중식 | 22:00 석식 23:40 취침

아침에 여유있게 일어나 출발하였다. 차량으로 3~4시간 걸린다는데.

주위에 높은 언덕을 넘어갈 때 3600m고도에서 내려, 사진찍고 초원에 흩어진 말들과 유목민, 그리고 유목민의 집인 유트에서 뛰어놀다 트럭에 다시 몸을 싣는다.

유목민의 어린애가 horse milk라면서 동글동글 경단처럼 생긴 하얀 것을 선물로 주는데 우웻~~ 비위 상해 못먹겠다.

중간 보르도바지역 군사경계선(타직스탄)에서 어렵게 통과하고 빙하지대에 들어서

데 트럭이 못갈 것 같아도 힘이 좋게 잘 올라간다. 하지만 가이드도 없이 외국인 트럭기사한테 우리팀을 맡긴게 불안하다. 그러면서 멈춰서더니 등반팀 일행을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일정이 여행사의 계획에 의해 짜여졌다고 하지만, 무언가 확신도 없는 채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다.



1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등반 가이드와 쿡이 도착해서는 여기에서 막영을 하고 B.C라고 한다. (3,600m) 우리가 알고 있는 4,400m의 B.C하고는 다른 곳이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듯 싶다. 빙하지대라고해서 얼음위에서 등을 대고 잘거라 생각했는데. 녹아내린 눈들로 계곡물처럼 부어 오른 물들과 그 주변에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황야별판이다.

넬 부터는 등반 시작이다. 무언가 부담이 밀려온다.

·7월24일 B.C 이동 (3,600m⇒3,800m)

8:00 기상 | 8:15 조식 | 9:20 B.C이동 | 13:05 B.C도착(3,800m) | 21:20 취침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는 B.C가 생각보다 멀어서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빙하시작하기 전 까지 말이 짐을 수송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장비 및 개인 카고백은 나중에 말로 수송하기로 하고 우리는 좀 더 고소 적응을 하면서 B.C를 어프로치하기로 하였다.

거리상 7km라 하는데 실지로 4.8km밖에 오지 않았다. 빙하가 흐르는 계곡과 같은 길이라 거의 평지 수준이고, 주위에는 야생화, 에델바이스 등이 펼쳐져 있다. B.C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어제 가이드가 말한 지점보다 더 못왔다. 하지만 이곳 이상은 말이 이동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1시간 가량 더 올라가서 우리가 갈 곳을 살펴본다. 그나마 지금 자리잡은 곳이 B.C로서는 적당한 듯 싶다. 주위에 모레인 지대로 마땅히 많은 텐트가 들어 서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지점의 진흙밭이 그나마 적당한 듯 싶다.

식량담당인 광섭이가 오늘 힘들어한다. 나랑 성호 그리고 동훈이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현지인들한테 구입한 양고기도 볶고 된장국과 함께 오랜만에 한국 스타일로 준비했다.

흑...-.; 고향생각.

·7월25일 B.C(3,800m)⇒C1 못미쳐 짐 데포 ⇒ B.C

7:00 기상 | 8:30 출발 | 16:00 짐 데포 | 20:00 B.C도착

C1설치를 위해 모두 올라가기로 하고, 성호는 가이드와 함께 공동장비수송을 했다. 먼저 성호가 가서 C1을 설치하고 우리는 천천히 올라간다. 주변의 모레인 지대와 빙하에 깔린 모레들 사이로 사람을 삼켜버릴듯한 크레바스지대, 그리고 주변에 얼음으로 형성된 눈처마들이 햇볕이 내리쬐면서 점점 녹기 시작하더니 낙빙이 형성되어 공포스런 존재가 되었다.

전방 C1을 약1km정도 남겨두고, 날씨가 오후가 되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하여 중간지점에 짐을 데포하고 내려간다.

내일 다시 C1으로 가기 위해 모레인 지대를 트레바스 하면서, 넓은 산기슭에 케른으로 표시기 역할을 하면서 내려왔다. 오후8시가 되서야 도착했지만 아직 해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다행이다. 원래 이런 지역은 오전에 날씨가 좋았다가도 오후가 되면서 눈과 빙하가 녹아 날씨가 안좋아진다고 밤에 출발하여 오전에 산행을 마쳐야 한다고 한다.

오늘이 본격적인 첫 산행인데다 너무 무리해서인지 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그렇다고 그러한 내색도 하지 않고, 자기 일은 잘 알아서 하는 게 팀에게 플러스로 작용한다. 내일 다시 C1으로 가기 위해 조를 편성하고 곧히 잠이 든다.

·7월26일 B.C(3,800m)⇒C1(4,300m)이동

8:00 기상 및 조식 | 9:30 출발(박아숙, 김병권 지도위원, 성호, 동훈, 민진, 나)

11:10 중간 빙하물이 녹아서 30분 기다림 | 18:00 C1도착

어젯밤엔 지진의 땅이 울리는 소리들었냐면서 아침부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죽은 시체처럼 잘 잤다.ㅋㅋ 아마 어제 산행으로 많이 피곤했나보다.

어제 우리가 가려는 C1의 거리가 7.74km이면 국내 산행 같으면 하루에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인데 모레인 지대며 크레바스, 빙하지대를 지나치면서 조금만 올라가더라고 숨이 차오른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의 산행 덕분인지 배낭도 가볍고 속도도 빠르다.

중간에 산에 있던 눈이 녹아 우리가 지나갈 길이 부어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30분후에는 잔잔해 진다면서 우리의 위치는 위험하니까 자리를 옮겨 기다렸다.

점점 C1으로 향해 가는데 정말 크레바스지대가 어제와 다른 공포스런 존재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일정치 않는 간격으로 낙빙이 떨어지는 소리는 그곳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으쓱하게 만들어 버린다.

C1으로 가는 도중에 어제 데포시킨 짐 일부를 메고, 빙하지대의 남쪽부분 산 중턱의 C1에 도착했다. C1은 바로 옆에 눈이 녹은 물이 흐르고, 안부이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정말 사이트는 기가 막히다.

오늘 C1으로 이동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다. 여기서 C2까지도 오늘 이동한 거리

만큼일텐데. 내일 나머지 대원들이 오고 또 다시 C2로 이동하여 스파르타봉으로 접근하는데 하루 종일의 거리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7월27일 C1⇒ 테포 짐 수송 ⇒ C1(4,300m)

8:30 기상 | 9:00 조식 | 10:20 테포 짐 수송하러 출발

12:10 테포 시킨 짐 가지고 C1도착 | 13:10 포터, 가이드 도착

16:00 대원 마중 | 18:00 석식

엣그제 테포시킨 짐 일부를 가지고 오고, 나머지 일부 짐을 가지고 오기 위해 다시 출발한다. 분명 엣그제 테포시킨 짐이 더 아래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우리의 발걸음을 짧게 만들었다. 주변 산에 대한 위치적 감각이 떨어진다. C1으로 짐을 다 옮기고 나니까 무언가 뿌듯한 느낌이다.

멀리서 우리 대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힘들게 올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 먼 우리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내려간다. 무언가 보기 좋은 모습이다.

B.C에서 C1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스파르타봉을 등반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앞으로 C2와의 거리도 이와 비슷한데 주어진 시간과 일정에 비추어 대원들의 체력적 부담에 어려운 산행이 될 듯 싶다.

결국 우리들은 C1을 바라보고 있는 스파르타키아다봉을 등반대상지로 바꾸고 내일의 산행을 생각한다.

·7월28일 A조: 스파르타키아다 봉 정찰 B조:빙하탐사 및 설상훈련 교육

7:00 기상 | 10:00 출발 | 14:00 중식 | 15:00 빙벽등반 | 19:00 석식

한조는 우리들이 등반할 스파르타키아다 봉우리를 정찰갔다오고, 나머지 대원들은 설상훈련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게 되었다. 아이젠을 처음 차보는 대원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피켈 등 설상, 빙벽에 있어 지식들의 일부를 전해준다. 아이젠 워크. 안자일렌, 활락정지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숙지해야할 부분들을 빙하탐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처음 해보는 대원도 있지만 다들 긴장된 눈빛에 재미도 느낀다.

돌아오는 중간에 빙벽등반의 일부를 느낄 수 있어 힘 한번 쓴다고 조금의 얼음을 찍어 본다. 고산에서 빙벽등반을 해서인지 힘 한번 썼다고 머리가 어지럽고 멍하다. 어느 선배말처럼 머리의 골을 벗어다 물로 씻고 다시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다. 그전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입술도 부어오르고 머리도 아파온다. 이렇게 고소 증세일까.

·7월29일 C1(4,300m)⇒무명봉우리 고소순응 (4,600m 도달) ⇒ C1

4:30 기상 | 7:00 출발 | 11:00 글리세딩 및 활락정지 | 12:30 중식 | 18:00 석식

우리가 등반하려고 하는 스파르타키아다는 하루에 1000m이상을 올라야하는 봉우리다. 아직까지 등반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정보도 없고 정찰대의 말에 의하면 픽스로프도 깔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듯 싶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스파르타키아다까지 새벽부터 어프로치하고 등반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않다.

그러기에 하루에 1000m를 오르기에 고소적응이 필요하여, 또 다른 봉우리의 등반으로 고소 적응을 한다.

실질적인 등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접 러셀도 해보기도 하지만, 정말 국내 산행과 달리 5발자국 걷고 핵핵 거린다. 꾸준히 천천히 오르면서 미끄러질 듯한 눈밭길을 아



이젠자국에 의지한다. 대원들도 인내심 있게 올라온다. 정상까지 가고 싶지만 흘러내린 눈뭉치들이 눈사태를 위협하는 듯한 형태를 지닌 봉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산 중턱부분에서 안자일렌과 활락정지를 하며, 주마링 훈련을 하면서 점점 적응해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스파르타키아다 봉의 등반에 대한 긴장감으로 하늘의 허락을 기대한다.

·7월30일(정상공격 당일) 코브제네브스키 빙하탐사

3:00 기상 | 3:40 계획 변경 | 10:00 빙하탐사출발 | 16:00 C1도착 | 18:00 석식

어제 밤사이 내린 눈이 그칠 줄을 모르고 새벽에까지 우리주변의 세상을 온통 하얗게 만들어버렸다. 정상공격을 하루 앞둔 날이어서 긴장을 하며 잤는지, 새벽에 뒤척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산행을 준비해본다. 하지만 무릎까지 쌓여진 눈들은 우리의 일정을 불안케하고, 아직 미답봉인점과 더불어 픽스로프가 설치되지 않아 거기에 맞춘 우리의 일정은 촉박하게 되어 결국 우리들의 정상의 대한 욕망은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른 코브제네브스키 빙하 탐사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엣그제 지나왔던 빙하와는 달리 그 빙하 위로 눈이 쌓여있어 히든 크레바스에 대한 긴장을 하며 스틱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짚어본다.

모두들 긴장을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이동한다. 점점 산기슭으로 다가가니 빙하들이 갈라지고 녹고 모레인들로 섞여있다.

그 중간에 점심을 먹고 우리들의 각자의 기념촬영으로 빙하탐사를 마친다.

물론 등반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자연환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리고 팀이라는 체계와 역할 속에 순응하면서 그 겸손함을 배워간다.

·7월31일 C1⇒ B.C

5:00 기상 | 7:30 출발 | 15:00 B.C 도착 | 19:00 석식

C1을 철수 하고 B.C로 내려가는 길에도 구름은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는지 내려가는 길마다 눈과 우박을 뿌리곤 한다. C1으로 올라올 때는 두 번에 걸쳐서 짐을 수송했지만 이번에는 한번에 내려가니까 개인이 지고 있는 짐 무게만으로도 어깨가 무겁다.

모두들 힘들게 어깨를 추그리고 내려가지만 각자의 페이스에 맞게 움직인다.

역시나 다를까 우리가 30분정도 기다린 지점에서 물이 부어 건너기가 힘들었다. 먼저 내려간 가이드 두 명이 미리 자일을 설치해 놓고는 우리의 안전을 신경쓴다. 은정확히 통하지는 않지만 산행에 있어 웃음을 잃지 않으며 우리를 안내해 준다. 우리의 편안한 안집같은 베이스캠프가 멀리 눈앞에 보인다. C1에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 왠지 반갑고 안도감 마저 든다.

아직 산행이 끝난건 아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앞으로의 남은 일정을 대원들과의 재미있고 잘해보자고 결의하며 한잔이 아까운 소주잔은 기울이며 베이스캠프의 마지막 밤은 지나갔다.

·8월1일 B.C⇒보르도바 민가

7:00 기상 | 8:20 조식 | 9:30 출발 | 19:00 보르도바 민가 도착 | 20:30 석식

오랜만의 편안한 잠을 잤던가. 늦잠을 자고 싶지만 오늘 일정을 생각하며 모두가 분주해 한다. 가이드가 처음 B.C라고 말하는 곳까지 우리의 카고짐은 말로 수송하고 그 이후는 트럭으로 레닌봉B.C로 이동하기로 했다. 장비와 수송담당인 성호와 동훈이가 마지막에 확인하는걸로 우리는 먼저 길을 떠났다. 그러나 내려가는 도중에도 말이 올라오지를 않는다. 가이드가 말한 시간이 지나도 말이 오지를 않더니 우리가 목적인지점에 도착해서도 트럭은 오질 않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식량과 장비는 1박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나는 다시 B.C로 올라가서 가이드를 불러서 상황을 말하고, 대원들의 식량을 내털려고 올라갔다. 무전기를 통해 연락이 가능하고 우리는 철수하여 보르도바로 내려가길 결정한다. 우리의 일정을 갑자기 바뀐 부분도 있어, 가이드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대체하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아무런 확신도 없이 장비도 없이 식량도 없이 이동하는게 맘에 걸렸다.

그러나 다행이 보르도바에 있는 한 민가에 하룻밤의 신세를 지게 되었다. 사람이 없는 산에 있다가, 전기도 없고 물도 빙하물로 그리고 야크들을 유목하며 생

활하는 한 가정집에서 직접 생활을 하고, 그 문화를 경험하니 진정 여기가 오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항상 No problem이라고 자신있어한 가이드가 이런 Big problem이 될 줄야.

우리의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된다.

·8월2일 보르도바 민가 ⇒ 레닌봉 B.C ⇒ 오슈

8:00 기상 | 9:00 조식 | 12:30 출발 | 17:00 레닌봉 B.C도착 | 18:00 중식 겸 석식
18:40 출발 | 20:40 탈덕캠프 (석식2차) | 24:00 출발 | 3:30 오슈 호텔 도착



아침에 온다고 한 트럭이 또 배신을 때렸다. 그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리는 무작정 기다렸다. 그러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조그만한 미니트럭이 도착했다. 그리고 사리타쉬에서 우리가 타고온 트럭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트럭으로 바꿔타서 파미르고원의 대표적인 등반대상지인 레닌봉의 베이스캠프로 이동하였다.

레닌봉B.C는 많은 사람이 등반하는 곳인지 주변에 텐트로 지어진 식당 및 병

원, 그리고 각 나라의 도시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식기까지 있었다. 이곳에서도 레닌봉 등반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날씨가 좋지 못해서 등정은 못했다고 한다. 모두들 자연에 수공해가면 사는 것 같다.

날마다 먹은 점심 하루 안먹었는데 배가 쪼그려드는 것 같다. 레닌봉 B.C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닭조림, 감자튀김, 빵 등으로 허기를 달래고 다시 서둘러서 우리는 오슈로 향해간다.

어두워진 알라이산맥을 등뒤로 오슈를 향해 라이트를 비추며 우리의 오지탐사의 일부인 알라이산맥 탐사를 마치게 되었다.

자신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의지대로 생활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수그릴줄도 알고 특히 자연에 대한 겸손함도 느끼고 많은걸 느끼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리고 팀원으로서 멤버십을 발휘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대원들과 저희를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단장님과 대장님, 그리고 지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ART II

기 획

- 변하자고 했으면 변해보자 · 34기 최지환
- 36기 오장민
- 전남 명산 소개 지도교수 이계윤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변하자고 했으면 변해보자

■ 34기 최지환

악우지를 만든다고 원고를 내주라고 하니 그러한 요청이 고맙기도 해서 그러하겠다고 했건만 막상 쓰려고 하니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 거의 2주일을 그냥 그러듯이 지나버렸다. 물론 회사일이 바빠졌다는 그럴 듯한 핑계도 있긴 하지만.

서울OB들도 한번 많이 내 보자고 몇몇에게 원고를 쓰느냐고 물었더니 모두들 하나 같이 쓰려고 하니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차라리 재학생이 주제를 정해서 부탁을 했더라면 훨씬 수월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건 그렇게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는건, 하다 못해 산과 관련된 하찮은 이야기까지 리조차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분명 내가 반성을 해야 할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물론 산에 미쳐 사는 인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금 더 힘들고 스릴있게 다닐 뿐이긴 하지만 내가 이토록 생각 없이 다녔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주제에 대한 고민이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러하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삭막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주제를 떠올릴려고 하니 아마도 이런식으로 주절대다가 목표한 페이지 수를 채우고 마무리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요즘 홈페이지를 별로 가지 않는다. 물론 별로라는 의미는 거의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회원들에 비하면 자주 가겠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드물게 간다는 의미이다.

광고지우는 것도 지겹고 별로 올라오는 글도 없어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감하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보다 한때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나 어떠한 연유로 우리 홈페이지까지 흘러온 사람들이 방문횟수가 더 많을 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게시판이 회원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데 OB, YB포함 210여 명의 회원 중에서 단 한번이라도 로그인한 회원은 70여명이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로그인한 회원은 불과 30여명이다. 물론 로그인을 해도 몇 가지 빼고는 별볼 일 없다.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구태여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산에 다니는 모습이나 본인들의 과거의 추억을 되새김질을 하는 데

는 별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로그인을 한다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홈페이지 운영 측면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사소한 한 조각이라도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의미와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만 우린 사공이 많다가 보다는 회원의 2/3는 노젓는 모습을 단지 보고만 있을 뿐이며, 그 중의 1/3은 배가 어디로 가건, 가라앉건 관심도 없다는 뜻이다.

물론 홈페이지는 찾는 이유는 가지가지일것이다. 중독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틈만 나면 드나드는 회원도 있고, 누구에게인가 ‘~카더라’라는 말을 듣고 확인차 찾을 수도 있고, 간만에 무덤덤한 기분으로 웹서핑을 하면서 스쳐가는 페이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도 감정이 메말라서 한 줄 이상의 문장은 쓸 엄두를 못내는 것 아닐까? 마치 한사람이 한줄인사가 아닌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사실은 그 정도는 장문도 아니지만)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반론이나 공감의 글은 별로 없고, 광대의 재롱을 보듯 조용히 조회수만 올라가는 무안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피드백이 없는 물음을 누가 던질 것이며, 누가 이 홈페이지를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모두에게 있기도 하고 모두에게 없기도 하다. 아쉬운건 대부분이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라고 한다. 그런데 글쓰는 재주가 없으면서 말하는 재주는 왜 그리도 좋을까? YB시절, 그리고 OB가 되어서도 함께 술을 마시던 밤새 내내 동이 트도록 서로에게 뱉어내도 뱉어내도 끝이 없는 우리들 아니었던가? 그냥 말하듯이 쓰면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가끔 욕을 먹는다. 표현이 거칠다고. 그렇지만 침묵보다는 몇 백배 낫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글쓰는 재주보다는 우리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OB, YB회에 만연되어 있는 은근히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코 글재주 때문에 글을 안쓰는게 아니라는 것은 회원들의 개인홈피나 블로그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미 전남대학교 산악회 홈페이지는 도토리가 필요없는 짝퉁 미니홈피가 되어버린 것 같다.

표현하는 것 보다는 지켜보는 것에 더 익숙하고, 진지한 토론이나 서로의 크고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해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한줄짜리 무의미한 인사나 올라오거나, 무의미하게 토닥거려주는 글들, 사진이나 그럭저럭 볼만한 사이트,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음미해볼만 한 것은 아무리 봐도 한달에 두세 개가 될까 말까한 점점 팽창하는 양에 비해 질은 형편없는 사이트가 되어 가고 있다.

과연 97년도부터 시작된 게시판의 글을 읽으면서 그 당시를 음미해보거나 상상해보

는 회원이 누가 있을까?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물론 아주아주 좋게 말하면 미래지향적이라서 과거는 구태여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지향적이면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하거나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러한 이유로 관리자를 탓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는 관리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다. 관리자는 있는 듯 없는 듯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만 보면 되는 것이다.

YB때도 회의 때마다 느낀 점이지만 산악회 사람들은 다른 생활은 나름대로 유능하건만 산악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너무도 수동적인 것 같다. 저학년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익숙해서인지 자율성이나 개인의 개성표출이 너무도 없다. 매번 회의일지를 봐도 마치 교회주보를 보듯이 뻘한 포맷에 뻘한 내용들 뿐이다. 힘들었다. 재미있었다. 잘해야겠다.

재학생들과 함께 산행을 할 때 매번 불만스러우면서도 우스운 것 중의 하나는 항상 취침 전에 산행반성을 한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즐겁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으로 산행반성을 한다고 하면 모두들 엄숙한 표정들이 된다. 그것도 술에 취해서 눈이 감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그 전까지 도란도란 나눈 이야기들 속에 그날의 산행을 되짚어 봤을 터인데 또다시 산행반성을 하라니 얼마나 자아비판적인가? 물론 그날 산행을 본인이 꼼꼼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게 있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의 산행을 서로 자유스럽게 잘되고 잘못된걸 아무 격식없이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매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뻘한 말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힘들었다. 재미있었다. 잘해야겠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순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발언을 유도해내면 진정 본인들이 생각한 바를 털어놓을 수 있으련만 매일 밤마다 내가 잘못된 뭔가를 생각해 내야 하니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차라리 잘못된건 선배가 지적해주고 잘한 것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항상 반성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발언을 요구하는 듯한 너양스를 주니 모두가 산악회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어버리지 않나 싶다.

“이젠 산악회도 이제 변해야 한다. 그래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고민해봤는지 궁금하다.

재학생 때 고학년이 되어서 회의일지를 기록해본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묘사해 놓고 보니 장난스러운 면도 있긴 했지만 그 회의일지를 볼 때면 지금도 그때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것도 나름대로 포맷을 탈피해보고 싶은 시도였으니까.

산행 때에는 선배 말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사고나 불의의 사태를 줄일 가능성을 훨씬 줄여준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으로 체득한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리생활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건만 이상스럽게도 현실은 그렇게 되어버린다.

어쨌건, 제발 오늘은 누가 홈페이지에서 재롱을 떨어주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를 왜 찾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올려놓았을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흥미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찾는다. 왜 그 누군가가 항상 다른 누군가이길 바라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지 아쉽다.

어쨌면, 사실 나도 지금 쓰는 이 글이 장문의 글을 쓰고 다듬는 연습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거칠지만 그냥 앞에 대고 말하듯이.

■ 36기 오장민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만났던 지명들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위해 올립니다.

남쪽과 앞을 동시에 뜻하는 옛말에 아리와 아래가 있고, 지금은 ‘지난 시간(前)’을 뜻하는 아래, 아래께 등 몇몇 잔재만 남았다. 훈몽자회에 기록된 남(南)의 훈은 ‘앞’, 즉 ‘앞’이다.

그래서 남쪽에 있지 않더라도 마을 앞산은 보통 남산(南山)이고, 내는 아리내 혹은 남천이다. 현재 경주 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북천이 예전에 알천(闕川) 또는 아리내로 불린 것은 그런 까닭이다. 아리는 비슷한 발음인 오리와 혼동됐고 압록강(鴨綠江)으로 표기된 것은 음을 판것에 불과하다.

어원을 따지자면 한강의 옛말인 아리수(阿利水)나 경주 알천, 진주 남강도 다 같은 아리내나 ‘아리물’로 압록강과 다름이 없다. 압록강, 오류하, 오리강, 알천, 아리내, 아리수, 아랫내 등은 모두 남강(南江)을 뜻한다. 아랫마을을 뜻하는 아랫말이나 오리골, 오릿골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남촌(南村)’이 된다.

이와 반대로 북쪽은 ‘감(아래아 입니다, 표현이 안되는 글자라서...)’이다. 하늘이나 신, 왕이나 높은 사람, 검은색을 뜻하는 ‘감’이 감, 곰, 고미, 고무, 가마 등으로 변형됐고 이는 지명으로 많이 남아있다. 상감, 대감, 영감, 일본어 가미도 비슷한 어원을 갖는다. 단군신화에서 곰이 변한 것으로 알려진 웅녀(熊女)는 북쪽에서 왔거나 신분이 높은 여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감내, 감천, 곰내, 웅천(熊川), 금강이라는 이름은 아리내와 반대쪽인 북쪽 개울을 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지도를 잘 살펴보면 오릿골 북쪽에 가맛골이나 감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가맛골, 가막골, 가랫골, 가라골, 감골, 검은모루, 검은돌, 거머리, 거미울, 상곡, 검단이, 떡골, 현리, 가무름, 금곡동 등은 마을에 큰 가마솥이 굴러다니거나 감나무가 온 마을을 뒤덮었거나 또는 마을 사람들 속이 시켜매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게 아니다. 단지 북쪽이나 뒷마을, 즉 산 안쪽 깊숙이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가라’는 검은색의 옛말이다.

알은 또한 씨앗이나 태양에 해당하는 말인데, ‘최고’, ‘최상’을 뜻한다. 아사달의 어원 ‘아사(이것도 둘 다 아래아입니다.)’가 최고, 최초를 뜻하는데 이것과 비슷하다. ‘아사’는 현대 국어에서 ‘으뜸’으로 그 잔재를 볼 수 있다. 한민족의 생활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남쪽이 기본방위이므로 알과 아리는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사를 연구할 때 곤란한 점이 시대에 따라 지명이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경주 남산은 지금도 여전히 남산이고 어느 지방에서든 주변에서 남산이라는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역사기록에 남아있는 지명을 고유명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지명이 한자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한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말 발음과 원래의 뜻으로 찾아야 한다.

전남의 명산소개

■ 지도교수 이계윤

한국의 산은 1대간 1정간 13정맥 즉 백두대간, 장백정간, 청북정맥, 청남정맥, 해서정맥, 임진북예성남정맥, 한북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낙동정맥, 낙남정맥으로 분류한다. 전남의 산들은 백두대간이 짧은 구간에 불과하지만, 호남정맥이 바다에 그 맥을 다 할 때까지 전라남도의 심장부를 관통하면서 길게 이어진다. 이 호남정맥이 전라남도에서 들어서는 지점은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안에 솟은 백암산 주봉인 상왕봉이다. 이후 호남정맥은 추월산-산성산-설산-무등산-용암산 남동봉-가지산을 거쳐 사자산-일림산-존제산-조계산-백운산에 솟구쳐 섬진강 하구에 잠긴다. 또 하나의 산줄기는 서해안과 영산강 사이를 가름하는 산줄기로 백암산 상왕봉-입암산-방장산-태청산-불갑산-모악산-균유산-승달산을 거쳐 목포 유달산을 끝으로 마감한다. 마지막으로 장흥과 화순경계에 있는 깃대봉과 삼계봉 사이 430m 봉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는 월출산-두륜산-달마산을 거쳐 흑석산-별매산-만덕산-덕룡산-주작산-땅끝의 갈두산에서 마무리 짓는 산줄기이다.

이러한 호남정맥 속에 안겨있는 산들 중에서 호남의 5대 명산인 지리산, 월출산, 천관산 세 곳과 빗고을 광주의 어머니이자 명산인 무등산을 중심으로 여러 산악서적을 참고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구례 지리산(1915m) : 백두대간의 남단을 점하고 있는 지리산은 3도 5개시군(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하동군, 산청군)에 걸쳐 무려 800여리나 되는 남한에서는 한라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서쪽의 노고단에서 동쪽의 천왕봉에 이르는 42km의 장대한 주능선은 반야봉을 비롯하여 삼도봉, 삼각봉, 명선봉, 덕평봉, 촛대봉, 영신봉, 제석봉 등 1500m급 고산 준봉이 10여개나 솟아 광활한 산세는 웅장하기 이를 데 없다. 웅대한 산줄기 못지않게 계곡 또한 골이 깊어 골짜기 마다 비경을 이루어 소위 지리산 12동천을 일컫는데 산줄기의 북쪽으로는 뱀사골, 백무동계곡, 칠성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는 연곡천, 화계천, 내대리계곡, 중산리계곡 등이 주류를 이루어 지리산자락을 굽이쳐 내리고 있다. 지리산은 중추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있으며 산자락들이 동서간(영호남)에 걸쳐 어머니 치마폭처럼 펼쳐져 있다.



지리산 천왕봉

지리산의 가장 오랜 이름은 쌍계사 대웅전 앞뜰에 있는 진감선사 대공탑비(국보47호)에 신라 때 최치원이 쓴 비문에 나오는 智異山과 백두산이 한반도를 타고 내려와 이곳까지 이어졌다는 뜻에서 두류(頭流), 불가(佛家)에서 유래한 지리(地利), 그리고 태조이성계가 기도드릴 때 지리산에서만 소지가 타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복(不服)이라고도 불렀다. 지리산의 넓은 품안에는 화엄사, 연곡사, 천은사, 쌍계사, 칠불사, 대원사, 법계사, 실상사 등 대 사찰만도 10개가 넘는다.

지리산의 등산로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산행 코스는 지리산 주 능선 코스인 덕두산-세걸산-만복대-노고단-임걸령-벽소령-세석-장터목-천왕봉코스가 있다. 이 주능선 사이사이로 200여개의 산행 코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코스를 택하던 간에 1박2일 이상 소요된다. 산행 중 숙박시설은 군데군데 산장시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화엄사골 코스 : 지리산 종주코스로 가장 많이 알려진 관문이 화엄사 계곡이다. 화엄사의 돌담길을 끼고 약 40여분쯤 오르면 제 3야영장에 다다른다. 야영장에서 연기암을 오르다 보면 작은 폭포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이곳이 집선대다. 이곳부터 무내기머리재까지는 가파른 길이 나오는데 이 곳이 코가 땅에 닿을 것 같다하여 붙여진 코재다. 화엄사 코스에서 가장 힘든 이 곳을 오르면 작은 바위에 도달하는데 이를 눈썹바위라 한다. 이 바위의 전설은 그 옛날 어떤 노인이 지리산을 찾는 길에 바위에서 잠시 쉬었다가 간 일이 있었는데, 이 곳에서 눈썹 하나를 뽑아버리자 지친 몸이 거뜨해졌다고 한다. 자기가 잠시 쉬어서 몸이 가벼워진 것을 잊었던 모양,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바위를 눈썹바위로 불렀다고 한다.

눈썹바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20여분 오르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무내기머리재에 도착한다. 무내기머리재부터 노고단 산장까지는 10여분 거리다. 이 노고단에서 천은사골, 피아골, 뱀사골, 반야봉으로 하산할 수 있고 아니면 천왕봉 종주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지리산 피아골

피아골 코스 : 지리산 10경 중 1경이 피아골 단풍이다. 피아골은 삼홍소, 통일소, 연주담, 남매폭포 등 소(沼)가 단풍의 아름다움을 더 덧보이게 한다. 피아골 등산로는 제비가 날아가는 형세

의 명당 터에 앉았다는 연곡사에서 출발하여 임걸령을 잇는 길이 가장 알려진 산행코스이다. 임걸령에서 노고단으로 오르면 화엄사 길과 천은사 길이 그리고 만복대로 가는 길이 있다. 또한 임걸령에서 지리산 제2고봉인 반야봉을 올라서 뱀사골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천왕봉 종주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그 외 쌍계사-대성리-세석평전-천왕봉 코스와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천왕봉 코스가 있으며, 천왕봉으로 오르는 최단 코스인 중산리- 법계사-천왕봉 코스 등 수없이 많다.



무등산 서석대

광주의 무등산(1186.8m) : 무등산은 광주·화순·담양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아도 하나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듯 하다.

무등산의 이름은 높이를 헤아릴 수 없고 견줄만한 상대가 없어서 등급을 매길 수 없다고 해서 무등(無等)이다. 무등산은 과거에 무진악, 서석산, 무당산, 무덤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무등산의 비경은 천왕봉 동남쪽의 규봉(圭峰)과 남쪽의 입석(立石) 그리고 서석(瑞石) 세 암

봉이 다른 어느 산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특히 장불재 북쪽 약 800m 지점에 솟아있는 서석대는 저녁노을이 물들 때면 수정처럼 반짝인다하여 수정병풍(水晶屏風)이라 일컬어지고, 장불재 북동쪽 약 400m 지점에 위치한 입석대는 선돌을 수백 개 세워 놓은 듯 오묘한 모습으로 솟아있다. 천왕봉 남동쪽에 위치한 규봉암은 세 개의 규봉이 우뚝 솟아 있다 하여 삼존석(三尊石)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삼존석은 여래불(如來佛), 관음불(觀音佛), 미륵불(彌勒佛)을 일컫는다.

무등산 정상부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 천왕봉은 호남 어디에서 보아도 한 눈에 들어오고, 지왕봉은 비로봉이라고 불리면서 꼭대기의 뿔바위는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반야봉이라고도 불리는 인왕봉은 세 개의 봉우리 중 가장 낮은 봉이다.

무등산 등반코스는 증심사-대피소-중머리재-장불재-규봉암-꼬막재-원효계곡이 있으며, 학운 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새인봉-중머리재-장불재-입석대-서석대까지 가서 산장 또는 증심사쪽으로 하산하는 코스가 있다. 또한 산장에서 출발하여 역순으로 등반할 수 있는 코스가 서너개쯤 있다.

영암 월출산(809m) : 월출산은 호남의 소금강이라 일컫는 명산이다. 월출산은 호남정맥이 ㄴ자로 꺾이는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져 나온 한 지맥으로 천황봉을 비롯하여 제 2봉인 구정봉, 향로봉, 장군봉, 매봉, 시루봉, 각지봉, 죽순봉 등이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저마다 장관을 이루고 있다.

월출산의 이름은 삼국시대에 월나산(月奈山), 고려 때는 월생산(月生山)으로 불리워짐으로 보아 달과 연관이 많은 산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산은 예부터 달과 연유된 산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영암쪽에서 바라보는 월출산의 모습은 많은 전설과 비화를 낳을만한 신비를 간직한 산이다. 이 산은 해안 가까이 위치하여 안개가 자주 끼어 산행시 주의를 요하고, 능선 상에는 샘터가 없기 때문에 식수를 반드시 준비해서 산행을 해야 한다.



영암 월출산

월출산의 일반적 등산코스는 주능선인 도갑사-피왕재-구정봉-천황봉이 있으며, 천황사를 출발하여 구름다리-사자봉-통천문-천황봉 코스 그리고 무위사-기왕재-발봉-향로봉-구정봉-천황봉 코스와 월남 마을에서 출발하여 청소년 야영장-바람재-천황봉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다.

장흥 천관산(723m) : 천관산은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능가산(내소사 뒷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명산이다. 이 산은 전체적인 산세가 부드러우면서 곳곳에 기암괴석이 솟구쳐 부드러움과 날카로운 면이 잘 조화된 산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능선 상에는 기묘한 바위들이 침봉군을 이뤄 멀리서 보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하여 산 이름도 천관산이라 불린다고 한다.

천관산은 역새와 어울린 기암 괴봉의 풍치와 함께 다도해의 조망이 어울린다. 동쪽 능선 끝자락은 눈앞에 바다가 있어 능선 어디서든 동양화처럼 펼쳐진 다도해의 풍치를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관산은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하여 등산객의 발걸음을 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산이다. 특히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을철 역새밭은 대역새 평원을 이룬다. 이러한 산세 때문에 지제산(支提山), 천풍산(天風山), 신산(神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천관산의 일반적인 등산코스는 관산읍 당동 또는 탐동에서 출발하여 장천재 위 체육공원에서 계곡코스, 금수굴 코스, 금강굴-구정봉 코스 등 세 가닥으로 나뉜다.

이 세 코스 가운데 천관산 특유의 바위군을 보려면 금강굴-구정봉 코스가 가장 적합하다.

보성 제암산(807m) : 토요일 아침 금방이라도 가을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흐린 날씨 속에 09 : 40 분에 제암산으로 출발했다. 화순을 지나 고속도로 같은 새로 난 국도를 능주까지 한숨에 달렸다. 추수가 끝난 주변 들녘에는 짙더미를 태우는 연기가 한가롭게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해 주었다. 그 외에도 화순의 모후산과 백아산, 승주의 조계산, 광양의 백운산, 보성의 제암산과 일립산, 영광의 불갑산, 해남의 두륜산과 달마산 고흥의 팔영산 등 우리 곁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산들이 저마다 깊은 역사를 간직한 채 그 지역의 산 증인으로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대형 관광버스를 빌린 덕에 우리 일행은 여유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창밖에 흐르는 가을을 만끽하였다. 재담 좋은 교수님들의 유년시절에 놀았던 이야기로 우리 일행은 모처럼 동심 속으로 빠져들며 까르르 까르르 웃으며 1시간여 가량 가다보니 보성 웅치면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한 20여분 한적한 산길을 돌아서니 제암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다.

가느다랗게 내리는 가을 보슬비를 맞으며 잘 가꾸어진 산길을 따라 40분정도 걸어 곰재산(629)에 올랐다. 곰재산 좌측으로는 장흥의 스텝크스라는 사자산(666)이 의젓하게 누워있었다. 사자산까지 가는 길이 철쭉 군락지역이어서 봄에는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잠시 이정표를 둘러본 우리 일행은 사자산을 뒤로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직은 나뭇잎들이 별정계 물들지는 않았지만 절반 이상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였다. 능선따라 끝없이 널려있는 억새들은 가을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하얀 머리칼을 나부끼면서 도심에 찌든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한 30여분 산행을 하자 좌측에 넓다랗게 펼쳐진 장흥 들녘이 두루말이 펼쳐지듯 한 눈에 들어오고, 저 멀리 월출산이 힘있게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목적지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자 능선따라 저만치 우뚝선 제암산 정상이 한아름 가슴을 파고들었다.

발빠른 몇몇 교수들이 아득히 멀어져만 갔다. 추적거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모락모락 오르는 입김을 품어 대면서 왕관처럼 솟아오른 제암산에 오르자 동양화보다 아름다운 장흥 앞 바다가 지중해처럼 펼쳐졌다. 구름 띠에 휘감겨있는 섬들,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지는 포구들... 우리 모두는 아! 아! 하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 순간에 부르르 떨면서 전율하였다. 시원한 바람은 등줄기에 흐르는 땀방울을 감미롭게 씻어주었다. 우리 일행은 옹기종기 앉아 준비해온 과일이며 떡을 나눠먹으며 우정을 나눴다.

아쉬운 제암산을 뒤로하고 시루봉 쪽으로 하산하여 자연휴양림에 다시 도달하였다. 호남 정맥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제암산 산행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된다. 다시 버스에 올라 울포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보성군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을 찾았다. 산행에서 얻은 피로를 녹차탕과 해수탕을 오가며 맘껏 풀었다. 뽕송 뽕송한 피부를 만들어 목욕탕을 나서니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신선이 된 우리는 점심겸 저녁 식사를 하였다. 갈매기가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입안에서 살살 녹는 생선회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걸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더라! 산은 산이고, 물

은 물이듯이 여기는 오로지 자유만 존재했다. 욕심과 가식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았던 일들이 잠시나마 가슴을 여미게 한다.

열큰한 기분으로 석양 노을을 감싸 안으며 회천을 떠나 광주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되었다. 정말 멋진 하루의 산행과 여행이었다.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나 사심도 없었다. 오로지 즐거움뿐이었다. 작별도 아쉬워 보성 응치의 올벼짚을 한 아름 안고 다음 산행을 기약하면서 어둠 속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다.

산은 우리에게 젊음을 준다. 산을 오르며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 서새로운 나를 찾는다. 이러한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노래 한 토막을 소개하면;

지상에서 하늘까지
신의 손길은 우리에게 이른다.
우리의 길은 높은 산이다.
태고의 세계로 이르니...
젊음은 우리의 것
구름 속에 쉴 곳을 세우자.
험한 절벽
구름과 폭풍 속에서
하늘 끝까지
우리의 세계를 세우자.

서독영화 -알프스 빙벽에의 도전에서

PART II

문 예

- 김C의 음악 살롱에는 48기 정선영
- 추계 48기 정선영
- 무제 35기 김정국



열정 가득한 알파인 클럽, 전남대학교 산악회



김C의 음악 살롱에는

■ 48기 정선영

……………재미있는 프로가 있다.

여자 이야기 : 환상과 전설

여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몇 가지 환상이 깨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학만 들어가면 살이 빠진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고3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들렀던 선배 언니들은 한결같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있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 대학에 갔는데도 남자친구는 커녕 소개팅 조차 드물 때 여자는 동호회에 가입한다. 특히 여대에 들어간 여자는 반드시 남녀가 섞여 있는 연합 동호회에 가입하고야 만다.

하지만 동호회도 동호회 나름이지, 만일 ‘예의범절 동호회’나 ‘십자수와 켈트, 누가 더 빠른가’ 이런 동호회에 가입한다면, 그건 차라리 집에서 채팅을 하는 것만도 못하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것이다.

“산악회 가입”

산악회에 가입하면, 우선 선배님들이 남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은 선배가 보여주는 사진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암벽 등반을 주로 하는 산악회에는 여자 회원이 붙어날 수가 없었다. 암벽을 기어오를 때마다 ‘내가 여길 왜 왔지?’하고 실존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며, 시퍼렇게 멎든 무릎은 일년 내내 아물지 않는다. 스커트는 산에서 내려와도 못 입는 것이다. 하지만 산악회에 끝까지 남은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졸업 후에 거기서 만난 선배와 결혼했다.

한 편의 프레스토 벽화 같이 숭고하지 않은가…

나, 정선영

중간고사 기간에 “산악회”에 가입했다.

이 동아리 가입이 내 인생에 일대 전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추계

■ 48기 정선영

힘아 솟아라, 힘아 솟아라. 앞 사람 잘 좀 따라가게 힘아 솟아라
어제 저녁 꿀꺽꿀꺽 쓰디 쓴 소주 마시고 보름달 아래 밤새도록 안주 씹어먹고,
어제 먹은 안주밭 200배 살려서 힘아 솟아라

오르막이 싫어, 오르막이 싫어.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오르막이 싫어
돌덩이 같은 내 다리 이끌고 오르는 오르막이 싫어

힘아, 뚫어오르는 힘아. 네가 오면, 나에게 오면은
나는 나는 산행이 좋아라. 여기 저기 경치도 바라보고
흐르는 땀에 뿌듯함을 느끼는, 불끈불끈 힘이 생기면
오르막도 좋아라

산길을 따라 산길을 따라, 저기 저 산 봉우리로 산길을 따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표식기 따라 표식기 따라
흐영흐영 막영지는 어디메이고

힘아, 뚫어오르는 힘아, 힘아 솟아라. 자꾸만 쳐지는 걸음걸이에
휴식시간도 즐기지 못하는 산행은 싫어. 아자 아자 힘내어 가자
속세에 내려가면 힘 좀 길러서 휴식시간에 활짝 좀 웃어보리라

무제

■ 35기 김정국

1.

초등학교 코흘리개 시절, 학교 소풍 길에 억불산을 땀 흘리며 오른 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산행이 내 생애 최초의 등산다운 등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부모님을 따라 성묘를 간다거나 동네 또래들과 야산을 오르락내리락 했겠지만 학교 친구들과 틈에 끼어 오르던 등산길을 오르며 땀 흘리는 노력 뒤에 얻어지는 알 수 없는 가슴 뿌듯함에 산의 매력을 마음에 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설 연휴 아니면 추석 연휴가 되면 TV에서는 아마도 고상돈 혹은 허영호의 에베레스트 등반 소식을 전하는 다큐물을 방송하곤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숨을 헐떡거리며 힘겹게 한발 한발 걷던 대원들의 모습이 한편으론 신기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한번도 끝까지 보았던 기억은 없네요. 'TV에서 보여주는 등산 다큐멘터리는 볼게 못 되는구나' 짧은 머리의 사춘기 중학생 녀석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고산을 등반하는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TV에서 보여주는 등산은 무등산 자락을 내발로 오르는 재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현실로 가득한 것이었으니까요.

3.

고등학교 때 호기심 가득한 그 또래들에서 잠시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길을 묻는 행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답례로 건네준 음료수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한 학생의 이야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도망치려해도 도망 칠 수도 없는 바다 위 새우 잡이 배로 팔려갔다는... 아무도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맹랑한 이야기였지만 꽤나 오랫동안 떠돌던, 그 당시 그 누구도 믿지 않던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일부러 붙들고 있으려 했었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4.

대학생이 되고, 어찌어찌하여 산에 다니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힘들게, 힘들게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열정을 산과 그 속 사람들에게 주고받으며 세상을 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조금씩 차고 오르던 거만함으로 이제

생각하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산과 그속 사람들과 떨어져 버리고는 주변인으로 어울릴 거리며 마음 아픈 연애를 꿈꾸는 시절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5.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날 대학 2학년때 선배가 전해준 ‘나의 작은 산에서 생긴 일’이라는 소설을 다시 읽었습니다. 산 얘기는 거의 없는 그런 소설이었지만, 책 갈피로 끼워 숨겨져 있던 선배의 엽서들로 숨은 보물을 찾은 기쁨, 그리고 그저 마음에 들었던 책 중에 한 권이 되었답니다. 덕택에 소원해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알았죠.

6.

조금쯤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산에 대하여 별로 희망의 꿈을 꾸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고 믿어버렸습시다만, 이따금씩 꿈에 하얀산이 보입니다. 거기를 꿈꾸고 여기를 돌아보며 성실히 내 삶의 봉오리를 오르리라 스스로 다짐합니다.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한발한발 나아갈 뿐입니다.

* 딱히 쓸 글도 없는데 성근이 독촉전화가 몇 번 있었다. 번개같이 글 쓰고 성근이에게 보냈는데 이 녀석은 글 읽어보지도 않고 군 입대해 버렸다. 그렇게 죽어버릴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영이가 다시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란다. 다시 읽어보니 마음에 너무 들지 않는 글이지만 그래도 한가지 느낀게 있다면 내 삶도 그리고 산행도 한순간의 생략이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꿈의 대화

■ 20기 오성개

새벽.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오감을 깨우며, 눈을 감은 채 발가락과 인사를 나눈다.

꿈지락 꿈지락.... 잘 잤니?

발목을 돌려본다. 괜찮지?

허리를 가볍게 흔들어본다. 이제 일어나도 되겠지?

엠펙!!!

힘찬 대답이 맘에 든다.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나나 한 개를 밀어 넣는다. 그리고 다시 물 한 잔을 마시고 바나나 한 개를 먹는다. 일어나자마자 먹어도 거부하지 않는 뱃속이 너무나 고맙다.

운동복을 입고 심박계를 차고... 몸을 풀기 위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어린 아이 달래듯이 살살, 조심 조심. 부담되면 말해야한다. 몸의 구석구석과 대화를 한다.

마지막으로 물을 한 컵 마시고 집을 나선다. 바깥공기가 상쾌하다.

어! 진눈깨비인가!!!! 발끝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땅의 촉감이 좋다.

가볍게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본다.

발목쟁이야! 느낌이 좋지?

무쇠돌이는 어떠니?

장경근이는 괜찮아?

영치는 이상 없고?

콩순이는 피곤하지 않니?

허식아! 찬 공기 마셔도 괜찮지?

심돌아! 일초도 쉬지 않고 일하려니 힘들지? 대단해요!!!!

사방에서 야유가 들려온다.

왜 심돌이만 칭찬해요?

미안 미안, 그치만 젤 큰 힘을 쓰는 건 심돌이잖아.

우두머리는 정신이 든거야? 네가 지휘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정신차려라. 길이 미끄럽다.

처음 5Km는 심박계를 110 아래로 유지한다. 달리면서 대화를 계속한다.
힘들면 말해라. 끝까지 참고 있다가 다치면 너만 손해야.
왼 발목쟁이가 먼저 나선다.
조금 불편해요.
오른 발목쟁이는 괜찮니?
예!!!
그럼 왼쪽 대신 좀 더 수고해라.
조금 지나서 왼 무쇠돌이가 말한다.
저 도요.
왼 발목쟁이는 괜찮니?
예! 괜찮아졌어요.
장경근이?
저도 조금 불편해요.
아무래도 왼쪽이 약하니 오른쪽이 거들어라. 서로 돕지 않으면 모두 힘들어진단다.

5Km가 지나면서 심박계를 120 으로 올린다.
전원 이상 없니?
예!!! 이상 없습니다.
그럼, 속도를 올린다.
허식이가 먼저 숨이 가쁘다고 호소한다.
조금만 참아!
심돌이는 괜찮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느껴봐! 너는 너무 무더서 탈이야. 묵묵히 일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거든. 불만은 그때그때 풀어야 하는 거야.
예!!!
어쨌든 대답은 잘한다.
우두머리는 괜찮니?
약간 불편하지만 참을 만 해요.
역시 가장 듬직한 놈이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우두머리가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모두를 격려한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 뒤에 오는 기쁨을 이미 느꼈던 터라 모두 잘 견딘다. 생각이 깊고 참을성이 있는 녀석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벌써 마지막 5Km이다. 심박계를 다시 110으로 내린다.

누가 가장 힘든 거야?

원 무쇠돌이가 대답한다.

저요!!!

너는 참 대단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

그 외엔 모두 괜찮아?

예!!!

그래 고맙다. 약해서 제 몫을 못하는 것 같지만, 원 무쇠돌이가 있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예!!!

모두 착한 녀석들이다. 자기에게 더 부담이 와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참아낸다. 모두 수고했다. 덕분에 오늘 즐거웠어. 추웠지? 조금만 참아. 따뜻한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야!!! 집이다. 따뜻해서 좋다. 우선 물 한 잔 주세요. 그래...

이제 정리운동과 스트레칭하자. 힘들수록 더 정리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물론이죠. 우리가 바보인줄 아세요?

아!! 미안 미안, 헛들 헛들.....

야호!! 따뜻한 물이다. 난 샤워 할 때가 켈 좋드라. 와!!!!!!!!!!

◎ 편집 후기

선영 - 대학이라는 새로운 곳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산악회에 발을 들여 놓았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데 이미 이끌이 났다고 생각했었는데 오산이었다. 산악회에 들어와 달을 거뜬할 수록 새로운 일들의 규모가 커져갔다.

악우지 책자를 만드는 것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 역시 새로운 경험이다. -비록 한일은 별로 없지만. 모두 예고 없이 찾아왔다. 춘계 때 한 따까리 한 것도, 살 떨리는 바위를 줄 하나에 매달려 오르는 것도. 이때는 형들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했었다. 그런데 이번 악우지 만드는 것은 처음이거니와 어깨 너머로 본 것도 없어서 안타까웠다.

내가 컴퓨터에 문외한 이어서 많은 일은 떠맡게 된 동기한테 미안하고, 바쁘신데도 악우지 원고 보내주신 형들한테 감사하다.

재국 - 벌써 연말이다. 일단 악우지가 너무 늦게나와 죄송하다. 원래 바쁜 일이 없는 나인데 운이 없어서인가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정말 말도 안되게 바빠져 버렸다.

책을 만든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들면서 배운게 많다. 배우면서 만들 수 있어 나름대로 재미를 찾을 수 있었다.



술독에 빠진 사람들...